

E 11-2017-01

2017 제6권 제1호

해외곡물시장 동향

World Grain Marke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 동향」은 농업관계자 및 일반인이 해외곡물시장을 이해하고 정부가 농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세계 곡물시장 동향과 관련 정보, 주요 지표를 정리·분석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곡물시장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해외곡물시장정보 홈페이지(<http://grains.krei.re.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집 담당〉

성명환 연구위원 mhsung@krei.re.kr(Tel 061-820-2366)

김원정 연구원 wonjeong@krei.re.kr(Tel 061-820-2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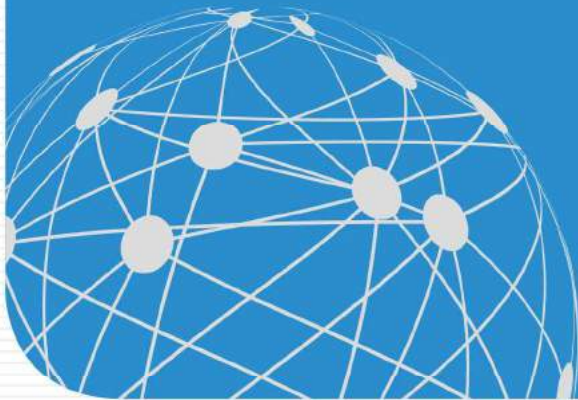
CONTENTS

해외곡물시장 동향	3
세계 곡물시장 동향과 전망	5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15
해외 곡물 선물 12월 동향과 1월 전망	27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49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61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73
 특집 2017년 곡물시장 주요이슈 전망	 83
2017년 세계경제 전망	85
2017년 외환시장 전망	97
2017년 국제유가 전망	109
2017년 곡물 해상운임 전망	119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129
FAO 곡물시장 뉴스	131
 세계 농업기상 정보	 143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145
 부록	 153
세계 곡물 통계	155
국가별 쌀 통계	159



Part 1. 해외곡물시장 동향

세계 곡물시장 동향과 전망	5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15
해외 곡물 선물 12월 동향과 1월 전망	27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49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61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73



세계 곡물시장 동향과 전망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1. 세계 곡물 수급 동향 및 전망

1.1. 곡물 전체¹⁾

2016/17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세 기관 모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USDA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2,562백만 톤, IGC는 3.8% 증가한 2,569백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며, FAO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2,578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공급량과 소비량의 경우에도 세 기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공급량의 경우에는 1.6~4.3%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소비량의 경우에는 1.9~4.3%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교역량의 경우에는 기관별로 상이하게 전망하였는데 먼저 USDA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403백만 톤으로 전망한 반면, IGC와 FAO는 각각 전년 대비 1.3%, 2.0% 감소한 379백만 톤, 388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각 기관별 재고율 전망치는 IGC, USDA, FAO 순으로 24.7%, 24.5%, 26.1%이다.

표 1. 세계 곡물 수급량

(단위 :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5/16 (추정)	2016/17 (12월 전망)	전년 대비	2015/16 (추정)	2016/17 (11월 전망)	전년 대비	2015/16 (추정)	2016/17 (12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2,457	2,562	4.3	2,476	2,569	3.8	2,534	2,578	1.7
공급량	3,035	3,164	4.3	3,048	3,160	3.7	3,190	3,239	1.6
소비량	2,433	2,537	4.3	2,457	2,539	3.3	2,518	2,566	1.9
교역량	377	403	6.9	384	379	-1.3	396	388	-2.0
기말재고량	602	627	4.2	591	622	5.2	661	670	1.4
재고율	24.7	24.7		24.1	24.5		26.2	26.1	

자료 : USDA, IGC, FAO-AMIS

1) 곡물 전체는 밀, 쌀, 그리고 잡곡의 합계를 의미함.

1.2. 쌀

2016/17년 세계 쌀 생산량은 세 기관 모두 전년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USDA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482백만 톤, IGC는 2.8% 증가한 485백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며, FAO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499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공급량과 소비량의 경우에도 세 기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공급량의 경우에는 0.6~1.9%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며, 소비량의 경우에는 1.2~1.9%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교역량과 기말재고량의 경우에는 기관별로 상이하게 전망하였는데, 먼저 교역량의 경우 USDA와 IGC는 전년 대비 각각 2.0%, 2.5% 증가한 40백만 톤, 41백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나 FAO는 0.5% 감소한 43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기말재고량의 경우에는 USDA와 IGC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FAO는 전년대와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각 기관별 기말 재고율 전망치는 IGC, USDA, FAO 순으로 24.4%, 25.2%, 34.1%이다.

표 2. 세계 쌀 수급량

(단위 :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5/16 (추정)	2016/17 (12월 전망)	전년 대비	2015/16 (추정)	2016/17 (11월 전망)	전년 대비	2015/16 (추정)	2016/17 (12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472	482	2.0	472	485	2.8	491	499	1.6
공급량	587	598	1.9	590	601	1.9	666	670	0.6
소비량	470	478	1.6	474	483	1.9	495	501	1.2
교역량	40	40	2.0	40	41	2.5	43	43	-0.5
기말재고량	116	120	3.2	116	118	1.7	171	171	0.0
재고율	24.8	25.2		24.5	24.4		34.5	34.1	

자료 : USDA, IGC, FAO-AMIS

그림 1. 세계 쌀 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톤, %)



자료 : USDA, IGC, FAO-AMIS

1.3. 밀

2016/17년 세계 밀 생산량은 세 기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USDA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751백만 톤, IGC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749백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며 FAO 또한 전년 대비 1.9% 증가한 749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공급량, 소비량, 기말재고량의 경우에도 세 기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먼저 공급량의 경우 USDA와 IGC는 각각 4.1%, 3.0% 증가한 992백만 톤, 970백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며 FAO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976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소비량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2.2~3.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기말 재고량은 전년 대비 4.7~5.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교역량의 경우에는 기관별로 상이한 전망을 하였다. 먼저 FAO의 경우 전년 대비 변동 없는 168백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나, USDA와 IGC는 전년 대비 각각 2.8%, 1.2% 증가한 177백만 톤, 166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표 3. 세계 밀 수급량

(단위 :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5/16 (추정)	2016/17 (12월 전망)	전년 대비	2015/16 (추정)	2016/17 (11월 전망)	전년 대비	2015/16 (추정)	2016/17 (12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735	751	2.1	737	749	1.6	735	749	1.9
공급량	953	992	4.1	942	970	3.0	947	976	3.1
소비량	712	740	3.9	720	736	2.2	714	734	2.8
교역량	172	177	2.8	164	166	1.2	168	168	0.0
기말재고량	241	252	4.7	222	235	5.9	227	239	5.3
재고율	33.8	34.1		30.8	31.9		31.8	32.6	

자료 : USDA, IGC, FAO-AMIS

그림 2. 세계 밀 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변화 추이

(단위 : 백만 톤, %)



자료 : USDA, IGC, FAO-AMIS

1.4. 옥수수

2016/17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평균 약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풍부한 수급여건이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USDA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1,040백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며, IGC는 전년 대비 7.3% 증가한 1,042백만 톤, FAO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1,027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옥수수의 경우에도 쌀과 마찬가지로 공급량과 소비량에 대해서는 세 기관 모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먼저 공급량의 경우 USDA는 전년 대비 6.8% 증가한 1,249백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며, IGC는 6.1% 증가한 1,250백만 톤, FAO는 1.2% 증가한 1,244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소비량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2.3~6.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교역량과 기말재고량에 대해서는 세 기관이 상이한 전망을 하였다. 먼저 교역량의 경우 기관별 전망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USDA의 경우 전년대비 22% 증가한 148백만 톤으로 전망한 반면, IGC와 FAO는 전년 대비 각각 0.7%, 1.4% 감소한 135백만 톤, 137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기말재고량의 경우에는 USDA와 IGC는 전년 대비 각각 6.4%, 7.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FAO는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각 기관별 기말 재고율은 FAO, USDA, IGC 순으로 20.6%, 21.7%, 21.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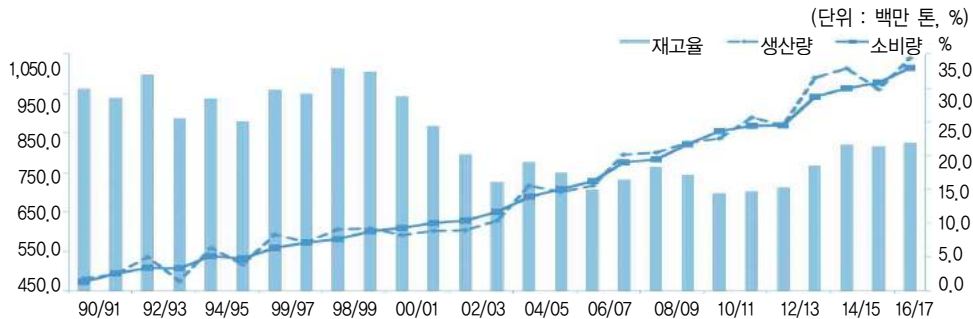
표 4. 세계 옥수수 수급량

(단위 :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5/16 (추정)	2016/17 (12월 전망)	전년 대비	2015/16 (추정)	2016/17 (11월 전망)	전년 대비	2015/16 (추정)	2016/17 (12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961	1,040	8.2	971	1,042	7.3	1,006	1,027	2.1
공급량	1,169	1,249	6.8	1,178	1,250	6.1	1,229	1,244	1.2
소비량	960	1,026	6.9	970	1,026	5.8	1,007	1,030	2.3
교역량	121	148	22.0	136	135	-0.7	139	137	-1.4
기말재고량	209	222	6.4	208	224	7.7	217	212	-2.3
재고율	21.8	21.7		21.4	21.8		21.5	20.6	

자료 : USDA, IGC, FAO-AMIS

그림 3. 세계 옥수수 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변화 추이



자료 : USDA, IGC, FAO-AMIS

1.5. 대두

2016/17년 세계 대두 생산량은 336~338백만 톤으로 전년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USDA는 전년 대비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IGC는 전년 대비 6.7%, FAO는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의 경우에도 세 기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먼저 공급량의 경우 USDA와 IGC는 전년 대비 5.9%, 4.8% 증가한 415백만 톤, 370백만 톤으로 전망하였으며, FAO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379백만 톤으로 전망하였다. 소비량의 경우에도 4.1~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교역량의 경우 3.0~5.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말재고량의 경우에는 기관별 상이한 전망을 하였는데 먼저 USDA와 IGC는 전년 대비 각각 7.3%, 11.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FAO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각 기관별 기말 재고율은 IGC, FAO, USDA 순으로 11.4%, 12.8%, 25.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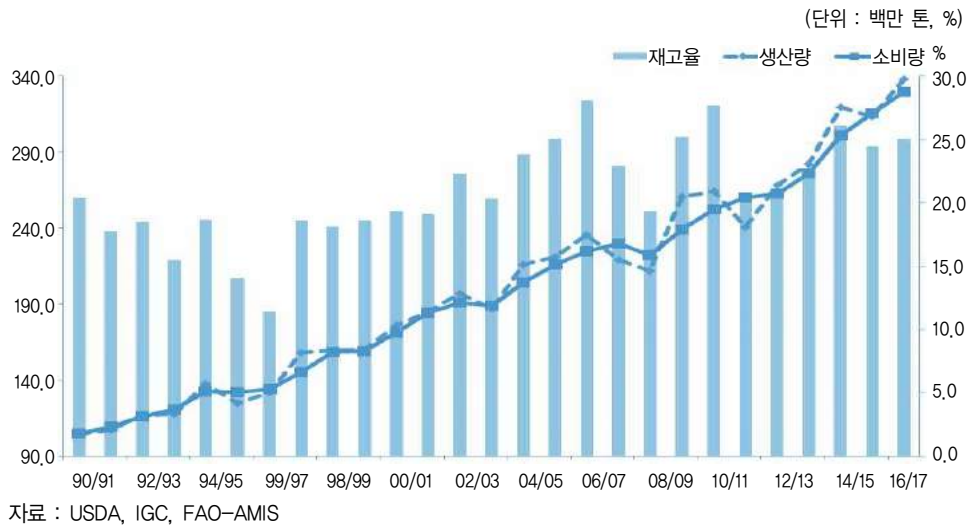
표 5. 세계 대두 수급량

(단위 : 백만 톤, %)

구분	USDA			IGC			FAO-AMIS		
	2015/16 (추정)	2016/17 (12월 전망)	전년 대비	2015/16 (추정)	2016/17 (11월 전망)	전년 대비	2015/16 (추정)	2016/17 (12월 전망)	전년 대비
생산량	313	338	7.9	315	336	6.7	314	336	7.0
공급량	392	415	5.9	353	370	4.8	358	379	5.9
소비량	316	330	4.5	319	332	4.1	320	335	4.7
교역량	132	139	5.5	133	137	3.0	135	139	3.0
기말재고량	77	83	7.3	34	38	11.8	43	43	0.0
재고율	24.5	25.1		10.7	11.4		13.4	12.8	

자료 : USDA, IGC, FAO-AMIS

그림 4. 세계 대두 생산량, 소비량, 재고율 변화 추이



2. 월별 선물가격 동향

■ 해상 운임 강세 등으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향후 안정된 수급으로 안정세 전망

12월 밀 선물 가격은 공급의 압박과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11월 이후 달러화는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산 겨울밀 작황 호조는 글로벌 생산량 호조와 더불어 가격 하락에 압력을 더하고 있다. USDA의 12월 수급 보고서에서는 미국산 밀 수급 전망을 전월과 동일하게 발표하였다. 밀 소비가 중국과 동남아시아 위주로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호주, 유럽 등의 생산량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공급 과잉 요인이 시장을 지배하고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특별한 가격 상승 요인은 당분간 발견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6년 11월 밀 선물 평균 가격은 톤 당 151달러였으며, 12월 현재 밀 선물 가격은 톤 당 148달러로 전월 대비 2.1%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15.7% 하락하였다.

옥수수 선물 가격은 11월 동안 좁은 레인지장내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달러화 강세 속에 약보합세를 보였고, 12월은 유가가 반등하며 소폭 반등하는 강보합세를

보였다. 풍부한 글로벌 공급량이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외적 변수로 달러화 강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어 향후 전반적인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사회는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내년에도 2~3차례 추가 인상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였다. 이로 인해 달러지수는 14년래 최고점을 갱신하였다. USDA의 월간 수급보고서에서는 미국산 옥수수 수급 전망을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에탄올용, 등산업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작황 호조 및 생산량 증가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가격은 여전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2016년 11월 옥수수 선물 평균 가격은 톤 당 136달러였으며, 12월 현재 옥수수 선물 가격은 톤 당 137달러로 전월 대비 0.9% 증가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6.1% 하락하였다.

12월 대두 선물 가격은 공급의 압박 속에도 사상 최대의 수요 기대감으로 완만하게나마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남미지역의 건조기후에 대한 우려 및 수출 시장에서의 강력한 데이터가 가격 상승을 리드하고 있다. USDA의 주간 수출 보고서에서 2016/17년 Net Sales 2백만 톤, 누적 수출량 27.8백만 톤, 총 수출 계약량은 45백만 톤으로 발표하였으며, 월간 수급 보고서에서는 미국산 대두의 2016/17년 수급 전망을 11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하였다. 유럽의 사료용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글로벌 생산 전망치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수급상황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견조한 수출 수요가 이어지고 있으나 미국 및 남미 지역의 생산량 추정치 증가는 가격 상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금리 인상 및 달러화 강세 또한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11월 대두 선물 평균 가격은 톤 당 370달러였으며, 12월 현재 대두 선물 가격은 톤 당 370달러로 전월 대비 동일한 수준이며, 전년 동월 대비 14.5% 증가하였다.

표 6. 곡물 선물가격 동향

(단위 : 달러/톤)

	2014/15	2015/16	2015.12	2016.11	2016.12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밀 ¹	219	172	175	151	148	-21.5	-15.7	-2.1
옥수수 ²	147	144	146	136	137	-2.0	-6.1	0.9
대두 ²	379	318	323	370	370	-16.1	14.5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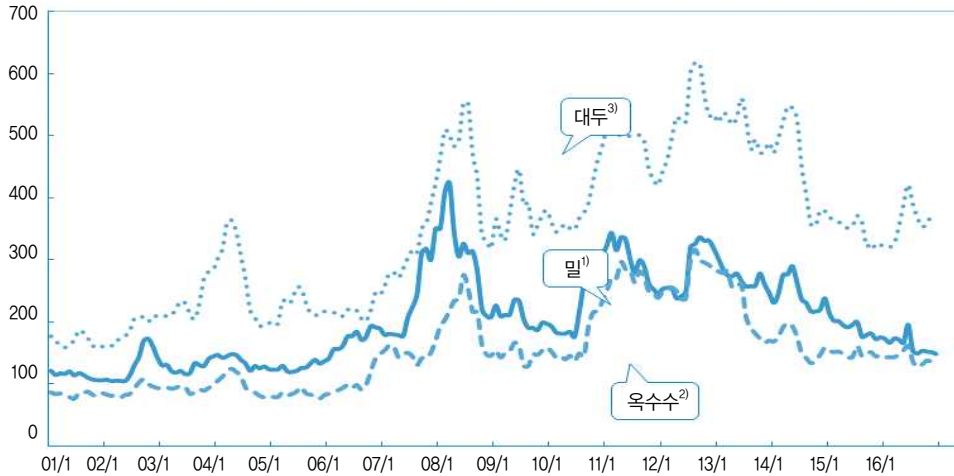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이며 2016년 12월 가격은 28일까지의 평균가격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이며 2016년 12월 가격은 28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그림 5. 밀·옥수수·대두의 월별 선물가격 동향, 2001.1~2016.12

(단위 : 달러/톤)



주: 1) 밀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3) 대두는 Chicago 1등급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3. 월별 현물가격(FOB) 동향

■ 생산량 증가 전망으로 곡물 현물 가격 안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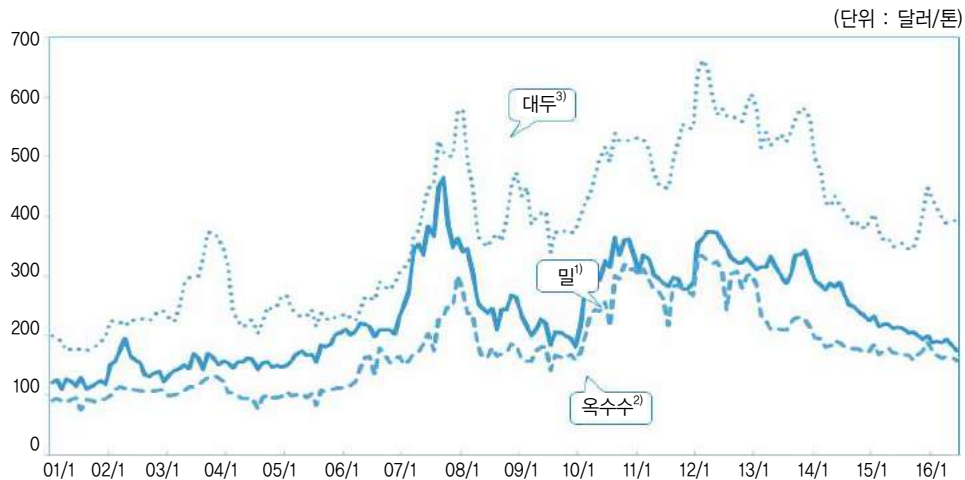
12월 밀 현물 가격은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 저하로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약세를 보이는 식용밀과는 달리 사료용 밀은 공급이 제한적이며 옥수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식용밀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사료용 밀은 수출 물량 감소로 오퍼가 중단된 가운데 한국의 사료용 밀 구매도 주춤하면서 당분간 사료용 밀 가격은 강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년 12월 현재 밀 수출 가격은 톤당 174달러로 전월 대비 4.7%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18.2% 하락하였다.

12월 옥수수 현물 가격은 미국과 남미지역의 옥수수 생산량 증가로 전월에 이어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옥수수 재고 물량 소진을 위해 중국 정부가 수출을 허용하였으나 아직은 국제 시장 가격과의 높은 차이로 인해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옥수수 가격은 지속적인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향

후 옥수수 현물 가격은 안정된 수급과 남미 지역의 순조로운 파종으로 인해 지속적인 약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달러 지수 강세로 인해 추가적인 변동이 예상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한동안 약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해상 운임이 상승에 따른 반등이 예상되기도 하며 가격 상승시 중국산 옥수수의 수출 가능성 및 충분한 공급 물량으로 당분간 안정세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12월 현재 옥수수 수출 가격은 톤당 159달러로 전월 대비 1.5% 하락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6.0% 하락하였다.

12월 대두 현물 가격은 최근 미국산 대두에 대한 수요 증가와 중국의 수입 기대감 등으로 반등하였으며 해상 운임 상승까지 더해져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두박 가격의 경우에는 대두 가격의 반등과 해상운임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안정되면서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대두 가격은 중국의 수요 증가와 남미의 대두 파종에 앞선 기상 우려 등으로 반등이 예상되지만 안정적인 세계 대두 생산량과 재고량이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수입 수요 외에 유가나 환율 등의 외부 요인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대두박 가격 또한 수급 여건 개선에 따라 안정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6년 12월 현재 대두 수출 가격은 톤당 395달러로 전월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12.5% 증가하였다.

그림 6. 밀·옥수수·대두의 월별 현물가격 동향, 2001.7~2016.12



주: 1) 밀은 US HRW Gulf 2) 옥수수는 US 3YC Gulf 3) 대두는 US 2Y Gulf

자료: 국제곡물이사회(IGC)

■ 필리핀 민간 부분 수입 개시에 따른 장립종 쌀 가격 강세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으로 낮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생산량 증가로 인한 안정적인 수급상황과 연말 및 연초 시장 움직임 둔화로 인해 안정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12월 현재 중립종 쌀 가격은 톤당 618달러로 전월 대비 동일한 수준이며, 전년 동월 대비 17.6% 하락하였다.

태국 장립종 쌀 가격은 농민들의 조곡 판매 감소 및 필리핀 민간 부분 수입 승인 등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민간 부분 수입 개시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긴 하지만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며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현재 장립종 쌀 가격은 톤당 379달러로 전월 대비 3.3%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하였다.

그림 7. 쌀의 월별 현물가격 동향, 2001.7~2016.12

(단위: 달러/톤)



주: 1) 태국 100% 장립종 B등급 2)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1등급

자료: USDA Rice Outlook

표 7. 곡물 현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2014/15	2015/16	2015.12	2016.11	2016.12	증감률(%)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밀 ¹		273	213	213	183	174	-22.0	-18.2	-4.7
옥수수 ²		180	172	169	161	159	-4.4	-6.0	-1.5
대두 ²		402	378	351	391	395	-6.0	12.5	1.1
쌀 ³	태국	420	386	365	367	379	-8.1	3.8	3.3
	캘리포니아	911	768	750	618	618	-15.7	-17.6	0.0

주: 1) 밀의 곡물연도는 6-5월이며 2016년 12월 가격은 27일까지의 평균가격임.

2) 옥수수 및 대두의 곡물연도는 9-8월이며 2016년 12월 가격은 27일까지의 평균가격임.

3) 쌀의 곡물 연도는 8-7월이며 2016년 12월 가격은 27일까지의 평균가격임.

자료: 국제곡물이사회(IGC), USDA Rice Outlook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김민수 (애그스카우터 대표)*

최근 수년 동안 세계 곡물 시장은 소비량과 교역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의 대폭 증가로 공급과잉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4/15년 이후 주요 곡물의 수급 상황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6/17년에는 곡물 공급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밀 수급과 관련하여 16/17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동유럽권 국가들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량 확대로 소비량 및 교역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 밀 기말 재고율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 밀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다만 유럽 내 주요 밀 생산국인 프랑스의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인도의 가뭄에 따른 공급량 감소 등이 밀 가격의 하락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 바 있다.

세계 옥수수 수급과 관련하여 16/17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 주요 국가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량 및 교역량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공급 우위의 시장 형성과 세계 옥수수 기말 재고율 상승으로 옥수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다만 남아프리카의 가뭄에 따른 옥수수 공급 부족과 브라질의 과도한 옥수수 수출에 따른 내수용 공급 부족 등이 옥수수 가격의 하락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 바 있다.

세계 대두 수급과 관련하여 16/17년에는 중국의 소비량 및 수입량 증가 대비 미국, 브라질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세계 대두 기말 재고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국제 팜유 및 유지작물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다른 곡물 가격 대비 하락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하는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등을 살펴봄과 아울러 주요 국가들의 곡물 수급 상황을 차례대로 살펴본다.

1. 밀

■ 세계 밀 수급량

세계 밀 공급량¹⁾은 08/09년을 기점으로 9억 톤을 넘어선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1/12년에는 10억 톤을 넘어섰다. 16/17년에는 11억 6,345만 톤에 이를

* agscouter@naver.com

1) 공급량은 기초 재고량, 생산량, 수입량 모두를 합산한 수량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계 밀 수요량²⁾ 역시 11/12년을 기점으로 8억 톤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6/17년에는 9억 1,66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더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세계 기말 재고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3개년 기말 재고율은 25%를 넘어섰으며 16/17년에는 27.5%까지 이르는 등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세계 밀 수급량 및 재고율

(단위: 백만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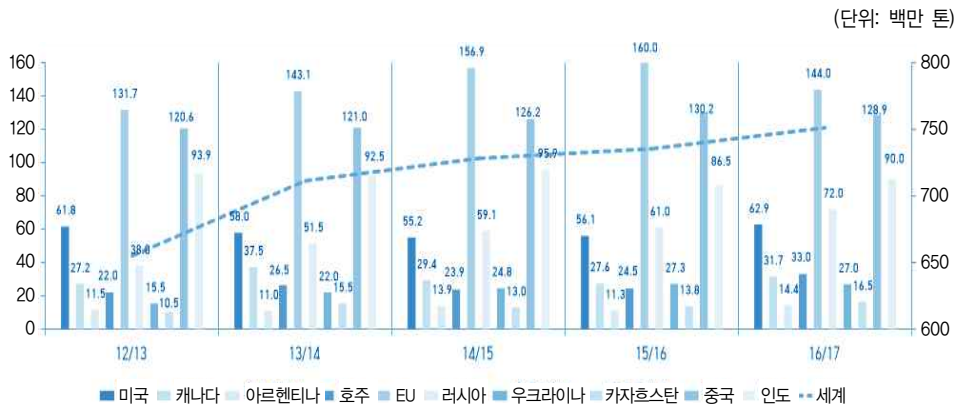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 국가별 밀 생산량

세계 밀 생산량은 13/14년을 기준으로 7억 톤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6/17년에는 7억 5,126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동유럽권 국가들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아르헨티나 및 호주의 밀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세계 밀 생산량 증가에 기여하였다. 미국의 경우 밀 생산량이 최근 3년 동안 정체를 보여 6천만 톤을 넘지 못하였으나, 16/17년에는 크게 증가하여 6,286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의 밀 생산량은 15/16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16/17년에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경우 밀 생산량이 14/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5백만 톤을 넘어섰으나, 15/16년에는 가뭄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87백만 톤까지 줄었다. 16/17년 역시 기후 불순에 따른 생산량 저조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 수요량은 소비량과 수출량을 합산한 수량임.

그림 2. 국가별 밀 생산량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 국가별 밀 소비량

세계 밀 소비량은 13/14년을 기준으로 7억 톤을 갓 넘어선 이후 증가폭이 둔화되어 정체된 흐름을 보였으나, 16/17년에는 7억 4천만 톤 가까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개년 동안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인도의 밀 소비량이 다소 줄어들어 세계 밀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16/17년에는 이들 국가의 소비량이 상당 부분 증가하고 파키스탄,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등 전통적인 밀 소비국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세계 밀 소비량은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국가별 밀 소비량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 국가별 밀 수출량

세계 밀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2/13년 1억 3,277만 톤에서 16/17년 1억 7,683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동유럽권 국가들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경우 최근 밀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수출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16/17년 밀 수출량이 29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 될 것이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 밀 수출량이 13/14년을 기점으로 하락하였으나, 16/17년에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호주의 경우 수확기 일시적인 기후 불순으로 피해가 우려되었으나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대풍작을 기록하여 예년 대비 수출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4. 국가별 밀 수출량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 국가별 밀 수입량

세계 밀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2/13년 1억 3,915만 톤에서 16/17년 1억 7,154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밀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6/17년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밀 수입량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밀 수입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서남아시아 국가들의 밀 수입량은 14/15년 2천만 톤을 넘어섰으나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여 16/17년에는 1,736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밀 수입량은 13/14년까지 850만 톤에 이르렀으나 이후 생산량 증가로 수입량이 줄었으며 16/17년에는 350만 톤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경우

자급자족이 가능함에 따라 수입량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가뭄에 따른 공급량 부족으로 16/17년에는 3백만 톤의 밀을 수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5. 국가별 밀 수입량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 국가별 밀 기말 재고율

16/17년 세계 밀 기말 재고율은 27.5%로 예년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밀 수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더 커 기말 재고율이 높아졌다. 특히 미국의 기말 재고율이 상당히 높아졌으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밀 기말 재고율도 예년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수출량 증가와 EU의 소비량 증가로 이들 국가의 기말 재고율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의 경우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량이 더 크게 늘어 16/17년 기말 재고율은 15/16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표 1. 국가별 밀 기말 재고율

(단위: %)

구분	12/13	13/14	14/15	15/16	16/17
세계	21.9	21.2	25.0	27.2	27.5
미국	31.6	23.6	37.3	50.0	50.4
캐나다	20.2	29.7	21.2	17.3	18.9
호주	24.7	18.5	20.3	26.3	22.9
러시아	13.2	12.1	10.8	9.0	14.9
우크라이나	16.6	12.9	24.9	10.9	10.9
카자흐스탄	20.6	19.2	26.3	17.7	23.4
아르헨티나	6.7	10.0	41.2	5.3	6.4
EU	7.1	8.2	8.0	8.5	6.7
인도	23.9	20.9	17.8	16.2	11.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2. 옥수수

■ 세계 옥수수 수급량

세계 옥수수 공급량은 07/08년을 기점으로 9억 톤을 넘어선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09/10년에는 10억 톤을 넘어섰으며 16/17년에는 13억 8,46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량 역시 10/11년을 기점으로 9억 톤을 넘어선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여 13/14년에는 10억 4,889만 톤에 이르렀으며 16/17년에는 11억 7,411만 톤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량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계 기말 재고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13/14년 이후 15% 이상의 기말 재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15/16년에는 19.3%까지 올랐다. 16/17년에는 수요량이 급격히 늘어 기말 재고율은 18.9%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세계 옥수수 수급량 및 재고율

(단위: 백만 톤,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 국가별 옥수수 생산량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최근 5년 이내에 급격히 증가하여 14/15년에는 10억 톤을 넘어섰다. 15/16년에는 미국을 비롯한 브라질, 우크라이나, EU, 남아프리카 등 주요 국가의 생산량 감소로 9억 6천만 톤까지 줄어들었으나, 16/17년에는 이들 국가의 생산량이 늘어 10억 3,97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경우 옥수수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16/17년에는 3,65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남아프리카의 경우 15/16년 극심한 가뭄으로 생산량이 790만 톤까지 줄어

들었으나 16/17년에는 예년 수준인 13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15/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6/17년에는 다소 줄어든 2억 1,955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국가별 옥수수 생산량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 국가별 옥수수 소비량

세계 옥수수 소비량은 14/15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여 9억 8,052만 톤에 이르렀으나, 15/16년에는 미국과 브라질, EU 등의 소비량 감소로 인하여 9억 6,040만 톤에 머물렀다. 그러나 16/17년에는 주요 국가의 소비량이 크게 늘어 10억 2,643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 이집트, 동남아시아 및 중국의 소비량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세계 옥수수 소비량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림 8. 국가별 옥수수 소비량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 국가별 옥수수 수출량

세계 옥수수 수출량은 14/15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여 1억 4,220만 톤에 이르렀으나, 15/16년에는 브라질과 우크라이나의 수출량 급감으로 인하여 1억 2,122만 톤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16/17년에는 주요 국가의 수출량이 증가하여 1억 4,76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수출량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세계 옥수수 수출량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림 9. 국가별 옥수수 수출량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 국가별 옥수수 수입량

세계 옥수수 수입량은 15/16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여 1억 3,885만 톤에 이르렀으나, 16/17년에는 소폭 감소한 1억 3,59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멕시코, 일본, 한국 등 주요 수입국들의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집트의 옥수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수입량을 늘리고 있다.

그림 10. 국가별 옥수수 수입량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 국가별 옥수수 기말 재고율

세계 옥수수 기말 재고율은 14/15년부터 18% 이상을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5/16년 19.3%를 기록한 이후 16/17년에는 0.4%p 감소한 18.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옥수수 소비량 및 교역량 증가로 인하여 기말 재고율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요 공급국들의 16/17년 기말 재고율은 15/16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공급 우위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표 2. 국가별 옥수수 기말 재고율

(단위: %)

구분	12/13	13/14	14/15	15/16	16/17.11
세계	12.3	15.5	18.5	19.3	18.9
미국	5.8	13.7	12.6	12.7	16.5
브라질	14.6	15.7	8.6	7.4	7.5
아르헨티나	6.2	3.5	6.5	3.5	5.8
우크라이나	5.4	11.2	6.3	2.4	5.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3. 대두

■ 세계 대두 수급량

세계 대두 공급량은 10/11년을 기점으로 4억 톤을 넘어선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14/15년부터는 5억 톤을 넘어섰다. 16/17년에는 5억 5,21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수요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4/15년부터 4억 톤을 넘어섰으며 16/17년에는 4억 6,93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량이 증가한 만큼 수요량 또한 늘어남에 따라 기말 재고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1. 세계 대두 수급량 및 재고율

(단위: 백만 톤, %)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 국가별 대두 생산량

세계 대두 생산량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14/15년에는 3억 1,978만 톤을 기록하였다. 15/16년에는 주요 국가들의 생산량이 약간 줄어들어 따라 3억 1,331만 톤의 생산량을 나타냈으나, 16/17년에는 주요 국가들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3억 3,8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과 브라질의 대두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2. 국가별 대두 생산량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 국가별 대두 소비량

세계 대두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4/15년에는 3억 톤을 넘어섰다. 16/17년에는 소비량이 더 늘어 3억 3,00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대 대두 소비국인 중국의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대두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16/17년에는 10억 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3. 국가별 대두 소비량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 국가별 대두 수출량

세계 대두 수출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13/14년에는 1억 톤을 넘어섰다. 16/17년에는 수출량이 더 늘어 1억 3,925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비롯한 브라질의 대두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계 대두 수출량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출량은 14/15년 1,057만 톤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어 16/17년에는 9백만 톤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4. 국가별 대두 수출량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 대두 수입량

세계 대두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3/14년에는 1억 톤을 넘어섰다. 16/17년에는 수출량이 더 늘어 1억 3,696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14/15년에 7천만 톤을 넘어선 이후 16/17년에는 8,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의 대두 수입량 증가가 세계

그림 15. 세계 대두 수입량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대두 수입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한편 EU의 대두 수입량은 15/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473만 톤을 기록하였으나, 16/17년에는 다소 줄어든 1,38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가별 대두 기말 재고율

세계 대두 기말 재고율은 13/14년에 18%를 넘어선 이후 16/17년에는 17.7%까지 감소하였으나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기말 재고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15/16년 대비 6.7%p 증가한 11.7%를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 브라질의 경우 소비량 및 수출량 증가로 16/17년 기말 재고율은 15/16년보다 1.1%p 감소한 18%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기말 재고율은 14/15년 19.5%를 기록한 이후 소비량 증가에 따른 재고량 감소로 16/17년에는 1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국가별 대두 기말 재고율

(단위: %)

구분	12/13	13/14	14/15	15/16	16/17
세계	16.6	18.6	18.4	17.2	17.7
미국	4.3	4.6	4.9	5.0	11.7
브라질	21.6	23.5	20.7	19.1	18.0
아르헨티나	42.7	56.5	58.3	55.6	55.9
EU	1.8	3.0	4.4	5.7	4.4
중국	19.1	17.1	19.5	17.8	14.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해외 곡물 선물 12월 동향과 1월 전망

임호상(Economist & Grain Analyst)*

[요약] 12월 21일 현재까지 미국의 주요 곡물 선물 가격은, 기본적으로 미국 농무부의 11월, 12월 글로벌 곡물 수급 보고서를 통해 수급 우려가 제한적임이 확인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달러 강세를 부각시키는 요인들로 인해 미국의 곡물 수출에 불리한 여건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로 전월말 대비 하락했다. 이 같은 달러화 강세 요인들로는, 1)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며 향후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정책 도입 기대로 2017년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수정되고, 2) 이로 인해 12월 14일 개최된 미국의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의 0.50%에서 0.75%로 인상하고, 3) 앨런 FRB 의장이 트럼프 당선자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대한 견제 속에 향후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을 시사한 점, 4) 유로존 이탈리아의 헌법 개정안 의회 통과 실패 및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은행들의 신용 불안 우려 부각, 5) 이머징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의 자금 역회귀 우려가 부각된 점 등을 들 수 있다.

1월 곡물 선물 시장은 미국 경기회복 기대 속에 달러화 강세 흐름 자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가격 조정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11월 30일과 12월 10일 회의를 통해, OPEC 회원국 및 비회원국 간에 일간 175만 8천 배럴의 감산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가 상승을 통해 상품 가격 하락을 제한할 요인이다.

한편 실제 곡물 수급 요인을 두고 볼 때, 12월 9일 발표된 12월 USDA 수급전망에서 글로벌 기말 재고율이 옥수수, 대두, 소맥 모두 상향 수정된 점은 곡물 선물 가격의 반등 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남미 아르헨티나의 날씨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을 부분이다.

한편 월간 전망 말미의 곡물별 주간 차트를 살펴보면, 소맥의 경우 러시아와 호주의 생산량 증가 전망 속에, 주요 기술적 지지대의 하단이 무너질 경우 가격 하락 폭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차트 출처: 블룸버그, USDA, 삼성선물]

* ryanlim@naver.com

1. 곡물 12월 동향: 달러화 강세 지속 우려 속에 가격 조정 흐름

표 1. 12월 주요 상품선물 최근월물 기준 가격 등락률 (12월 21일 종가 기준)

품목	옥수수	대두	소맥	원당	원면	원유
전년말비 (%)	-11.6%	+14.0%	-23.1%	+20.5%	+7.9%	+17.7%
전월말비 (%)	-0.36%	-2.3%	-0.8%	-8.1%	-2.0%	+4.3%

12월 21일 현재까지 미국의 주요 곡물 선물 가격은 기본적으로 미 농무부의 11월, 12월 글로벌 곡물 수급 보고서를 통해 수급 우려가 제한적임이 확인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달러 강세를 부각시키는 요인들이 부각되며 미국 곡물 수출에 불리한 여건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하락했다.

그림 1. 옥수수 선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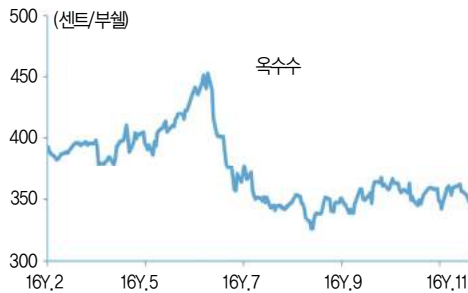


그림 2. 소맥 선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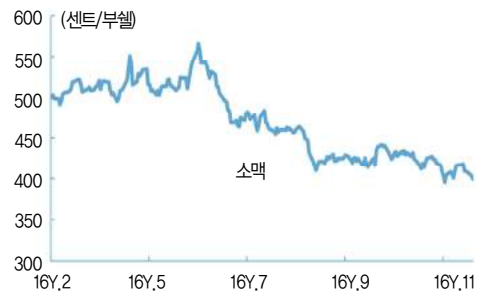


그림 3. 대두 선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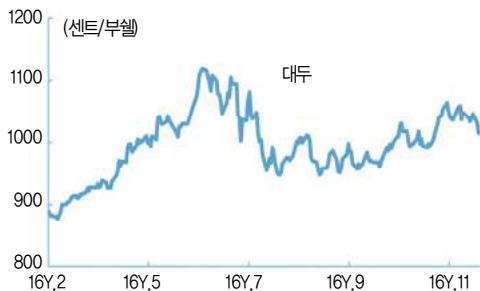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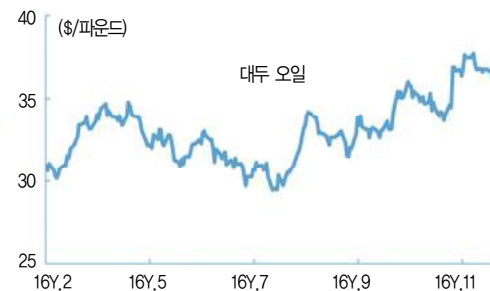


그림 4. 대두 오일 선물 가격 추이



이 같은 달러화 강세 요인들로는 1) 美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며 향후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 정책 도입 기대 속에 2017년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수정되고, 2) 이로 인해 12월 14일 개최된 미국의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의 0.50%에서 0.75%로 인상하는 한편, 3) 엘런 FRB 의장이 트럼

프 당선자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가져올 인플레이 요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을 시사한 점, 4) 유로존 이탈리아의 헌법 개정안 의회 통과 실패 및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은행들의 신용불안 요인 부각, 5) 이머징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의 자금 역회귀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5. 달러화 지수 추이



그림 6. 유로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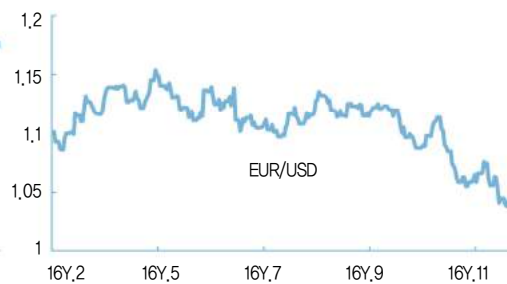


그림 7. 달러원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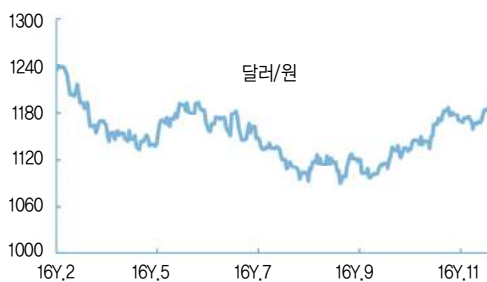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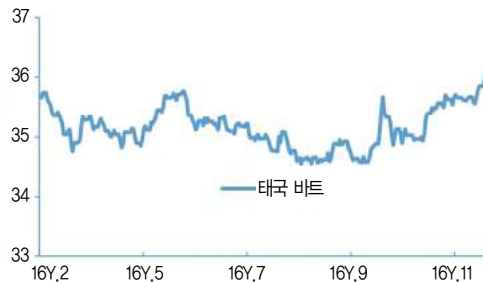


그림 8. 태국 바트화 추이



다만 12월 10일 개최된 OPEC 및 OPEC 비회원국들의 회의를 통해 원유 감산 합의가 이루어지며 유가가 상승 폭을 확대한 부분은, 향후 상품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 속에 곡물 가격의 낙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이다.

그림 9. 금 선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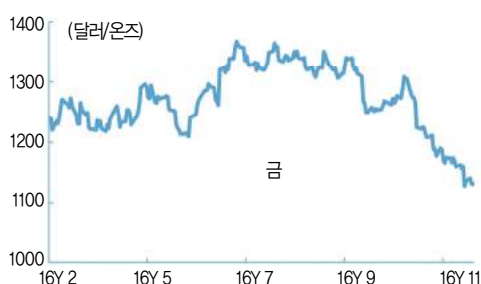


그림 10. WTI 원유 선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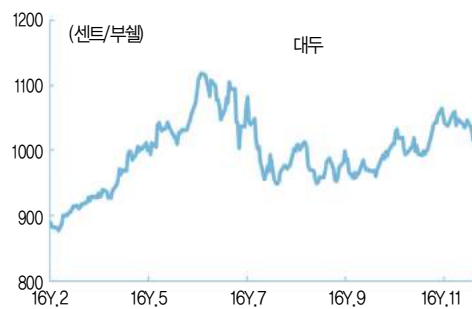


한편 곡물 수급상의 요인으로서는 지난 11월 전망에서 언급했듯이 12월은 전체적으로 곡물 시장의 계절적인 Post Harvest Rally 요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12월 FOMC의 금리인상, 계절적인 미국산 곡물 수출검사 물량 축소 흐름 등이 가격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다음 차트를 보면 계절적으로 미국산 대두의 수출 검사 물량은 피크를 지나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 대두 주간 수출 검사 계절성



그림 12. 대두 선물 가격 추이



또한 전체적으로 USDA의 11월, 12월 수급전망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수급 우려가 제한적인 점도 곡물 선물 가격의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물론 가격 하락 폭을 확대시킬 수준의 재고 수준도 아니어서 가격 하락 폭도 제한될 전망이다.

표 2. 주요 농산물 선물 가격 및 거래량 변화 추이(12/21일 종가 기준)

상품	현재	전주말	주간 변동	주간 변동률 (%)	전월말 대비 (%)	전년 대비 (%)	거래량	거래량 증감	미결제 약정	미결제 약정 증감
옥수수	356.25	359.5	-3.25	-0.9	-1	-9.4	605,485	-229,665	695,578	-9,844
대두	1,046.75	1,048.5	-1.75	-0.2	0	17.4	394,882	29,103	310,440	54,140
소맥	409.25	416.3	-7	-1.7	-2	-21.2	252,802	-45,220	262,001	-5,472
대두유	37.03	37.2	-0.18	-0.5	0	16.9	199,670	-15,412	172,831	22,726
원면	71.04	70.8	0.24	0.3	0	9.3	67,664	4,172	176,305	1
원당	18.22	19.2	-0.12	-5.3	-5	20.7	300,963	72,587	369,495	-19,082
커피	142.45	139.4	3.1	2.2	2	3.8	83,841	-8,542	95,975	-2,896
돈지육	64.7	61.6	3.15	5.1	5	1.1	82,785	-40,890	88,822	-4,833
생우	115.35	110.5	4.825	4.4	4	-6.7	127,125	11,379	123,741	7,033

2. 곡물 선물 1월 전망

■ 시장 외부 환경 1: 美,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기대로 달러 강세 지속

최근 해외 기관들의 글로벌 경제전망 자료들을 보게 되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2017년 성장률 전망치의 상향 수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1) 2017년 7월경으로 예상되는 개인 소득세율 약 2%pt, 기업 법인세율 약 20%pt 인하를 통한 대규모 감세 정책 도입 전망, 2) 2017년 말로 예상되는 10년간 약 5,500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 단행, 3) 2017년 말로 예상되는 러시아 및 중국의 군비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국방비 지출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향후 미국 FOMC의 금리 인상 속도를 빨라지게 할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미국의 곡물 선물 가격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이다. 이미 일부 일본 기관 자료들은 달러엔 환율의 추가 상승(엔화 약세)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다음 IMF가 10월 발표한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유로존의 성장률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미국 달러화의 강세 흐름은 유럽 산과 경합하는 미국의 소매 수출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이다.

표 3.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 자료

IMF 성장률 전망			실질성장률(%)			
			2014	2015	2016	2017
전 세 계	선 진 국		3.4	3.2	3.1	3.4
			1.9	2.1	1.6	1.8
		미국	2.4	2.6	1.6	2.2
		유로존	1.1	2.0	1.7	1.5
		독일	1.6	1.5	1.7	1.4
		일본	0.0	0.5	0.5	0.6
	이 머 징		4.6	4.0	4.2	4.6
		중동부 유럽	2.8	3.6	3.3	3.1
		러시아	0.7	-3.7	-0.8	1.1
		아시아	6.8	6.6	6.5	6.3
		중국	7.3	6.9	6.6	6.2
		인도	7.2	7.6	7.6	7.6
		브라질	0.1	-3.8	-3.3	0.5
		중남미	1.0	0.0	-0.6	1.6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 흐름은 미국 기업들의 대외수출 환경을 악화시킬 요인이기 때문에, 新 행정부가 일방적인 달러화 강세 흐름을 그대로 용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달러화의 강세 흐름 자체는 이어지겠지만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질 경우 트럼프 정부의 정책 대응으로 인해 달러화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곡물 시장의 급등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림 13. 브라질 헤알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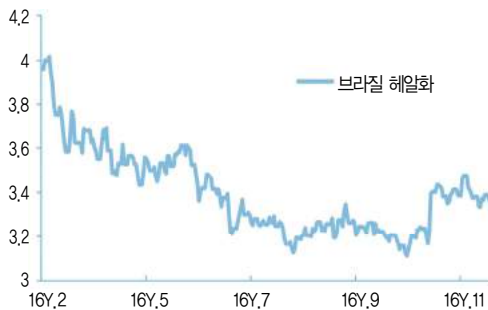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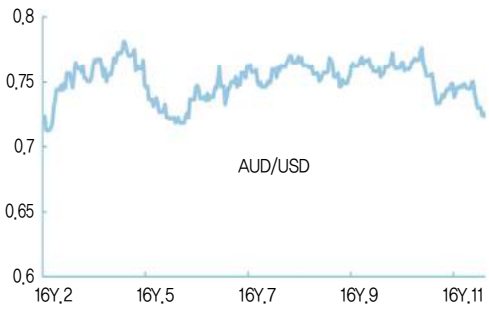


그림 14. 호주달러 환율 추이



실제 아래 차트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12월 들어서도 미국의 각종 경제지표들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국 지난 12월 14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25bp 인상을 결정하게 했고, 옐런 의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이 단행될 경우 향후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는 2017년 상반기까지 달러화 강세 우려를 지속시키며 곡물 선물 가격의 반등 폭을 제한할 부분이다.

그림 15. 미국 FRB 금리 추가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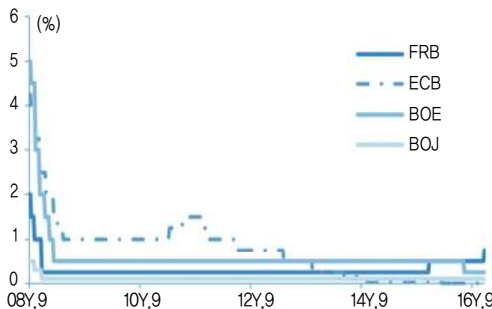


그림 16. 미국 경기 선행 및 인플레이션 지표



그림 17. 단 미국 개인 소득/지출 전년대비 회복 흐름주의



그림 18. 생산자 물가 전년대비 증가율 상승 흐름은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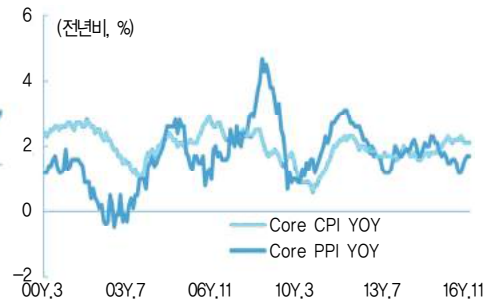


그림 19. 미국 개인 소비자신뢰지수 회복 이어짐



그림 20. 미국 고용시장 회복 흐름 지속



그림 21. 미국 제조업 관련 지표들 개선 흐름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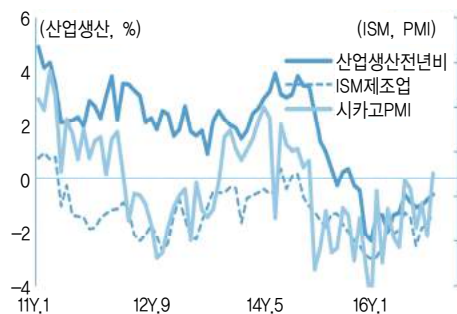


그림 22. 미국 ISM 제조업 신규 수주 회복 지속



■ 시장 외부 환경 2: FOMC의 2017년 금리 인상은 2회 아니면 3회?

다만 아직 시장에서는 FOMC의 2017년도 금리 인상이 최근 뉴스를 통해 보도된 연 3회가 아닌 6월과 12월의 연 2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추

가 금리인상 시기를 1) 소득세율 및 법인세 감세 정책이 본격 단행될 7월을 앞둔 6월 FOMC회의, 2) 재정지출 확대책 도입을 앞둔 12월 FOMC 회의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3. 미국 국채 5/10년물 금리 급등(6개월 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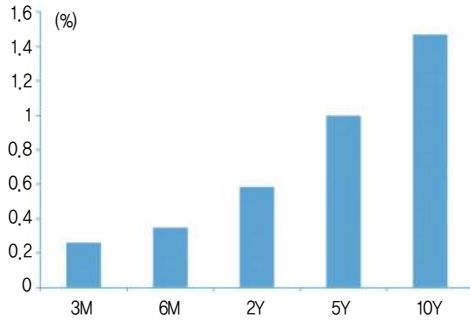


그림 24. 미 국채 10년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급감



그림 25. 미국과 독일 수익률 커브·경기 회복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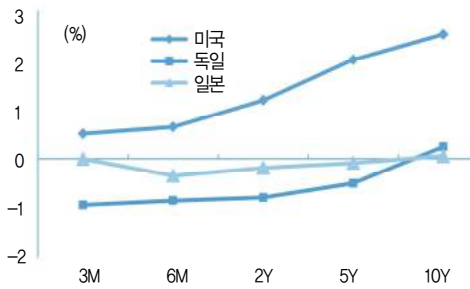


그림 26. 미 도매재고 증가 흐름에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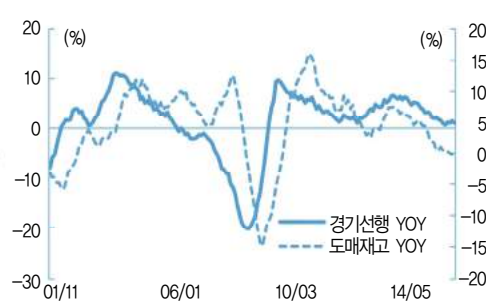


그림 27. 미 금리 인상이 주택시장 지수에 미칠 영향에 주의



그림 28. 미국 기존 주택가격 상승 폭 둔화 가능성 주의



물론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이들 정책이 신속히 단행되고 경기 부양 효과가 확인될 경우 FOMC의 금리인상 속도는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곡물 가격에는 부정적인 요인을 제공할 부분이다.

그림 29. 아직 PCE Core Deflator도 증가 폭 완만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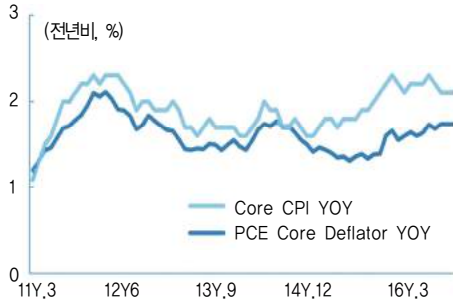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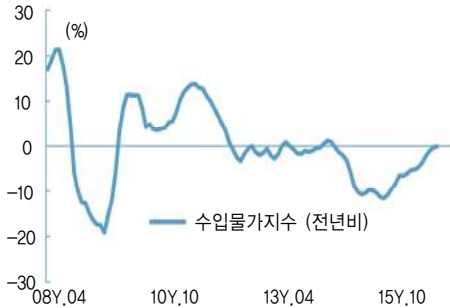


그림 30. 하지만 수입물가지수 전년비 플러스 전환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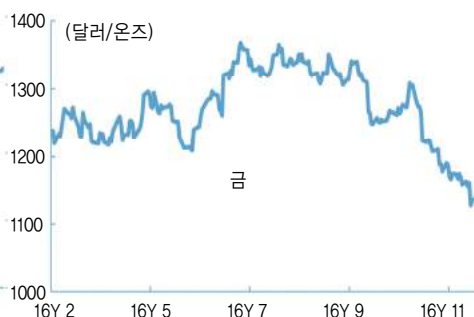
■ 시장 외부 환경 3: OPEC 감산 합의 속 유가 반등은 가격 지지 요인

한편 지난 11월 30일 개최된 OPEC 회원국 간의 정례 회의에서 일간 120만 배럴 규모의 감산 합의가 이루어지고, 12월 10일 개최된 OPEC 회원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비회원국들 간의 회의에서도 비회원국들이 일간 55만 8천 배럴 감산(OPEC의 제안은 일간 60만 배럴 감산)에 합의하며, 총합계 일간 175만 8천 배럴의 감산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림 31. WTI 원유 선물 감산 합의 기대로 견조한 흐름



그림 32. 금 선물 달러 강세 및 신용불안 완화 속 하락



이로 인해 12월 21일 종가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산(WTI) 원유 최근월물 선물은 전월말 대비 4.3% 상승한 상황이다. 이 같은 부분은 달러 강세 흐름 속에서도 곡물을 비롯한 상품 가격의 하락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물론 안전자산 선호 움직임이 축소되면서 금 선물 가격의 조정 흐름은 이어졌다.

이는 결국 비관론자들이 예상하던 글로벌 디플레이션 원인 중 하나였던 유가 급락 우려가 완화되면서,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를 빠르게 하는 한편,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켜 줄 요인**이라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아래 1) 유로존과 독일의 경기기대 지수, 2) 일본의 수출 및 제조업 PMI 지표들, 그리고 3) 유럽과 일본의 인플레이 관련 지표들의 움직임을 보면, 향후 점진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들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플레이 요인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림 33. EU 생산자 물가지수 추이



그림 34. EU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



그림 35. 일본 실업률 하락세 다시 이어짐



그림 36. 일본 전국 소비자물가 전년대비 +0.1% 기록



그림 37. 유로존 경기기대지수회복 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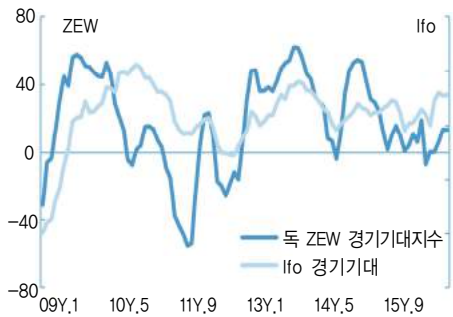


그림 38. 독일 Ifo 경기 기대 지수 추이



그림 39. 일본 지역별 수출 회복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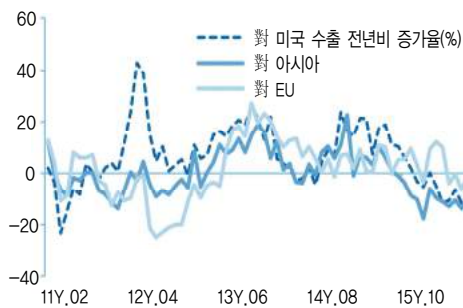


그림 40. 일본 수출입 총액 증가율 추이



그림 41. 일본 경기위저치 수 개선 흐름 이어짐



그림 42. 일본 닛케이 제조업 PMI 지표 회복 흐름



물론 이번 원유 감산 합의에서 OPEC이 감산 기간을 1~6월로 제한함에 따라 유가가 과거처럼 100달러 대에 근접하는 급등세를 보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해외기관들의 유가 전망 자료에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배럴 당 50달러 대 후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국 글로벌 디플레이 요

인을 완화시키는 한편,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도 희석시킬 부분이므로 긍정적인 요소라 하겠다.

■ 미국 농무부 12월 수급 전망: 글로벌 기말 재고율 모두 상향 수정

12월 9일 발표된 미국의 12월 USDA 수급전망에서 미국산 곡물들의 12월 기말 재고율전망치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며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줄 요인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글로벌 기말 재고율은 옥수수, 대두, 소맥 모두 상향 수정되면서 곡물 선물 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옥수수의 신곡 12월 글로벌 기말 재고율은 21.7%로 11월의 21.4%, 10월의 21.28% 대비 상향 수정되었다. 대두 신곡의 12월 글로벌 기말 재고율도 25.1%로 11월의 24.8%, 10월의 23.53% 대비 추가로 상향 수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소맥 신곡의 12월 기말 재고율은 34.1%로 11월의 33.8% 대비 상향 수정되며 18~20%대의 적정 재고율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USDA 11월과 12월의 수급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수급 우려가 제한적인 점이 재확인 된 점은 곡물 선물 가격의 상승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1월 전망: 달러 강세와 수급 우려 제한. 단 남미 날씨의 주의 필요

곡물 시장 수급 요인을 보면 앞서 언급한 미국 농무부의 12월 수급 전망에서 글로벌 곡물 신곡의 기말 재고율 전망치가 상향 수정된 점은 기본적으로 수급 요인에 따른 가격 반등을 제한할 부분이다. 다만 남미 아르헨티나 재배지역의 날씨에 대한 리스크 요인은 당분간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옥수수는 남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작황 개선 및 재배면적 확대에 의한 생산량 증가 전망이 가격 반등 폭을 제한할 전망이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경우 9월에서 11월에 걸쳐 강우로 인한 작황 우려가 부각되었으나, 최근 날씨가 개선되면서 작황에 대한 우려는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앞으로도 아르헨티나 재배지역의 날씨는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을 전망이다.

대두도 1) 남미 브라질의 생산량 증가 전망, 그리고 2) 적정 수준인 20%대의 기말 재고율에 비해 낮은 미국의 재고율 11.7%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말 재고

율이 전년도의 5.0%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대두 선물의 가격 반등 폭을 제한할 요인이다.

물론 12월 초반까지 미국의 대두 주간 수출검사 물량이 늘어나며 누적으로 2,790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9%대의 증가율을 기록한 부분은 대두 수출 물량 확대에 대한 기대를 이어갈 부분이다.

하지만 미 농무부(USDA)의 12월 전망에서는 2016/17년도 대두 수출수요 전망치가 19.36억 부셸로 전년대비 +5.9%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미국 농무부가 내년도 하반기로 가면서 미국산 대두 수출물량 증가 폭이 남미의 수출물량 증가로 인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이번 12월 USDA 수급전망에서는 브라질산 대두의 생산량이 1억 200만 톤으로 전년도의 9,650만 톤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5,700만 톤으로 전년도의 5,680만 톤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12월 글로벌 대두 기말 재고율은 남미의 생산량 증가 전망 속에 25.1%로 전년도의 24.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지만 11.7%라고 하는 미국의 대두 기말 재고율은 적정 재고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남미의 재배 작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가격 급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대두 선물 가격의 낙폭을 제한할 부분임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남미의 날씨 변화로 인한 대두 재고 감소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을 전망이다.

특히 대두의 경우 지난 9월에서 11월에 걸친 아르헨티나 재배지역의 호우로 인해 농작물 작황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었던 점은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물론 최근 들어 아르헨티나의 날씨가 개선되며 작황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부분은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시킬 부분이지만.

소맥은 미국의 2016/17년도 단위면적당 수확량 전망치가 3.54(톤/ha)으로 전년도의 2.93(톤/ha)을 상회하며 높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의 대평원 지역의 2017/18년도 겨울소맥 파종작업도 과거 5년간 평균치를 소폭 상회하며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작황에 대한 우려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양호한 소맥 작황과 호주의 소맥 재배에 적합한 날씨 등이 곡물 선물 가격의 반등 폭을 제한할 요인들이다.

한편 지난 11월 전망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음 차트들을 보면 계절적으로 미국산 옥수수, 대두, 소맥의 수출 검사 물량이 향후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갈 것으로 예상

되는 가운데, 남미의 옥수수와 대두 작황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곡물 가격 반등 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그림 43. 옥수수 주간 수출 검사 계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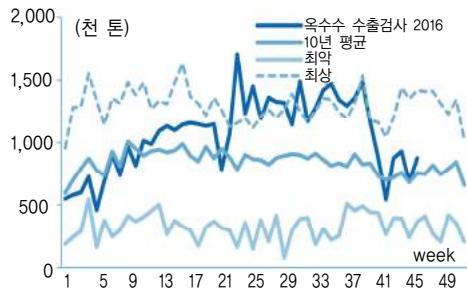


그림 44. 옥수수 선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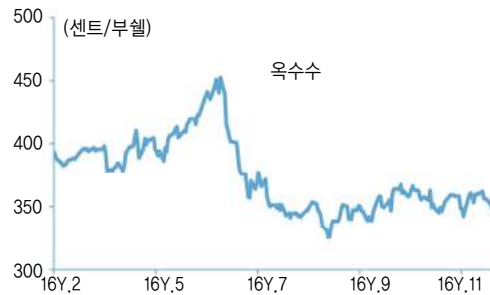


그림 45. 대두 주간 수출 검사 계절성



그림 46. 대두 선물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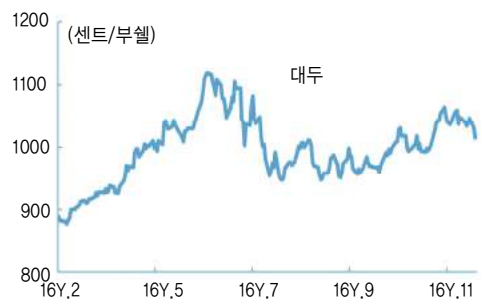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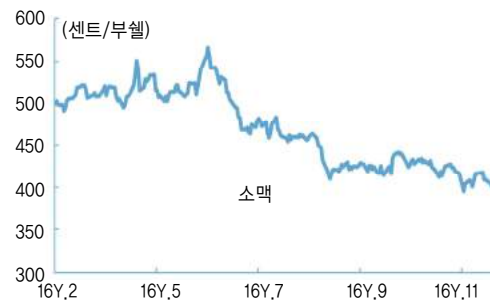


그림 47. 소맥 주간 수출 검사 계절성



그림 48. 소맥 선물 가격 추이



■ 곡물 선물 포워드커브 현황: 내년 초반 하락 가능성은 주의

지난 월간 전망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미국산 곡물 수출 검사의 계절적 요인과 연계해서 향후 포워드커브의 움직임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옥수수는 2014년과 2015년 말의 포워드커브 움직임을 보면, 그 다음해 1월에 이어 2월 말까지 하락 흐름을 이어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미 농무부의 12월 수급 전망의 글로벌 옥수수 기말 재고율 상향 수정에서 보듯, 향후 남미의 작황에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림 49. 옥수수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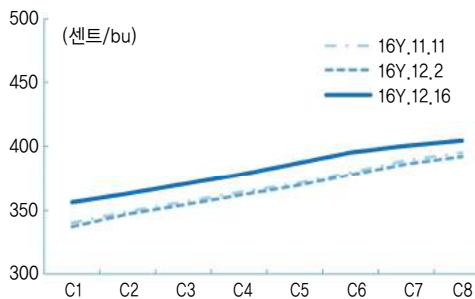


그림 50. 2014년 옥수수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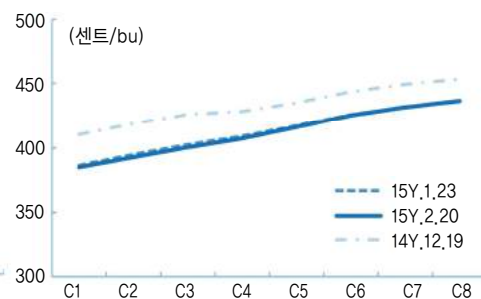


그림 51. 옥수수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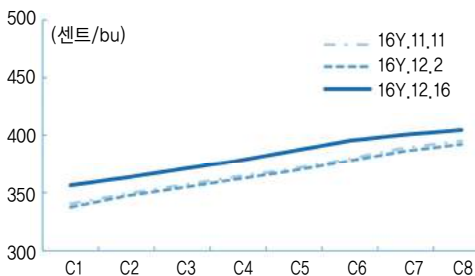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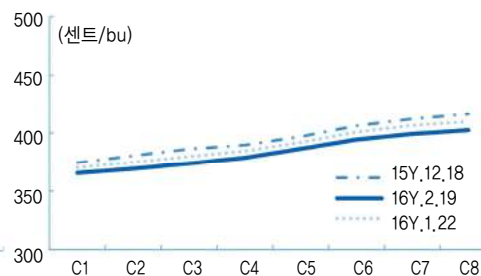


그림 52. 2015년 옥수수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소맥 선물도 2014년과 2015년 말의 포워드커브 움직임을 보면, 다음해 2월 말까지 하락 흐름이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달러화 강세 흐름과 함께, 러시아와 호주의 소맥 작황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하락 지속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53. 소맥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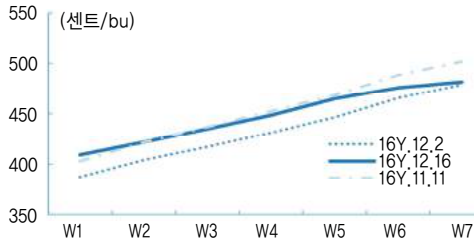


그림 54. 2014년 소맥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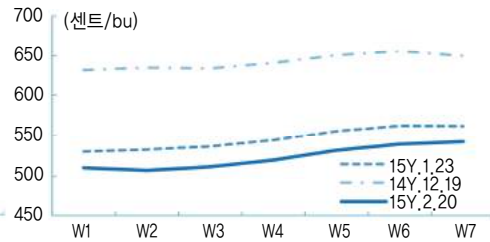


그림 55. 소맥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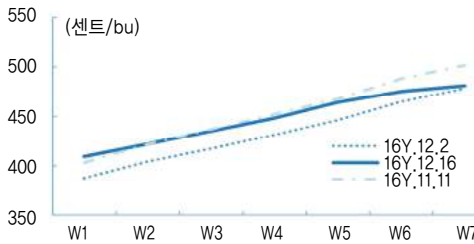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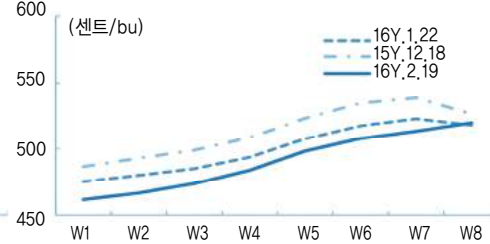


그림 56. 2015년 소맥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대두는 2014년과 2015년 말에서 다음해 1월 말까지 하락한 후, 2월에는 반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또한 향후 남미의 작황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림 57. 대두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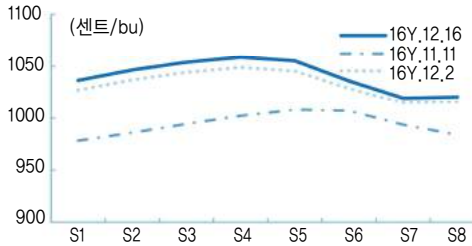


그림 58. 2014년 대두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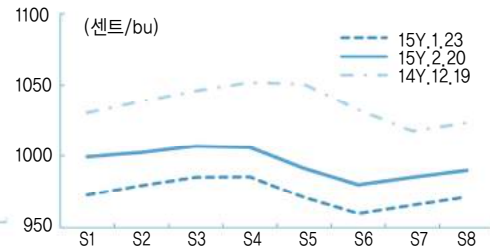


그림 59. 대두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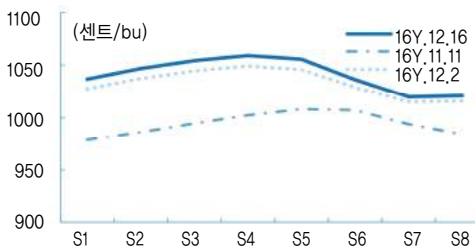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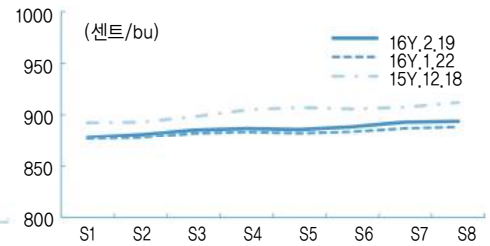


그림 60. 2015년 대두 선물 포워드커브 추이



■ 옥수수/대두 상대 가격 비율 소폭 반등. 추가 상승 가능성에 주의

옥수수/대두 가격 비율은 지난 달 월보 작성 시점의 0.3408 대비 상승한 0.3449를 기록했다. 이는 남미 작황 개선 속에 옥수수에 비해 대두 선물 가격의 하락 폭이 컸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향후 앞서 언급한 대두 수출검사 물량의 추가적인 조정이 예상되고, 브라질의 작황 개선 기대가 부각되고 있는 점은, 대두 가격의 하락을 통해 同 옥수수/대두 가격 비율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남겨 두고 있다.

다만 12월 21일 현재까지 대두 선물 가격이 전월말 대비 -2.3%로 옥수수의 -0.36% 대비 컸던 만큼, 향후 두 곡물 간 가격 하락 스프레드가 축소되며 옥수수/대두 가격 비율의 하락 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61. 옥수수/대두 선물 비율 주간 기준 추이



■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의 경우 대두 축소, 소맥 확대 가능성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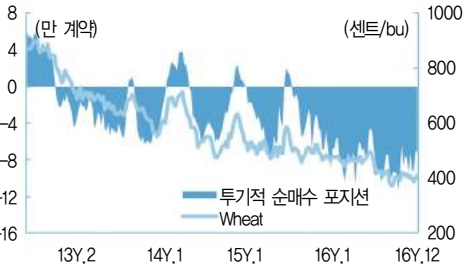
아래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의 흐름을 보게 되면 대두의 경우 향후 남미 작황 개선이 나타날 경우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의 추가적인 축소 가능성이 남아 있다.

소맥의 경우는 그 동안의 조정 흐름 속에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이 크게 확대된 상황으로 향후 과대도에 따른 기술적인 투기적 매수 포지션 증가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62. 대두 선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추이



그림 63. 소맥 선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추이



■ 옥수수, 대두 선물 내재 변동성 확대. 소맥도 향후 확대 가능성 주의

옥수수, 대두 선물 가격의 역사적 변동성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재 변동성은 미국의 금리인상을 비롯한 대외 요인들의 충격 속에 증가했다. 미국 FOMC의 추가 금리인상 단행, OPEC의 원유 감산 합의 달성 등의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들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남미의 작황 개선에 따른 가격 조정 리스크 등이 남아 있어, 흰색으로 표시된 내재 변동성의 추가 확대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64. 옥수수 선물 역사적/내재 변동성 추이(일간 2년)



그림 65. 대두 선물 역사적/내재 변동성 추이(일간 2년)



그림 66. 소맥 선물 역사적/내재 변동성 추이(일간 2년)



■ 기술적 분석 : 소맥 주요 가격 지지대 지지 여부 주의

지난 12월 전망에서 옥수수, 대두, 소맥 모두 중장기 저항대를 앞두고 있어 조정 흐름이 예상되므로 단기 급등 시에는 일부 차익실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실제 곡물 가격의 조정 흐름이 나타났다. 아래의 각 곡물별 주간 차트를 보면 이들 곡물들 모두 추가적인 가격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그림 67. 옥수수 선물 주간 차트(자료: 삼성선물)



그림 68. 대두 선물 주간 차트(자료: 삼성선물)



특히 아래 차트에서 보듯 소맥은 주요한 가격 밴드권 하단의 지지 여부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러시아와 호주의 생산량 증가 전망 속에 향후 소맥 선물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同 가격 지지대가 붕괴될 경우 단

기 저가 매수 유입을 통한 가격 반등 흐름이 예상되나, 달러 강세와 수급 요인의 영향 속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같은 매수 진입은 단기 거래에 그쳐야 할 것이다.

그림 69. 소맥 선물 주간 차트(자료: 삼성선물)



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 전망

이진우(GFM(Global Financial Markets) 투자연구소)*

우리는 지금 고정관념과 상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자주 놀라게 되는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브렉시트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라는 쉽사리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가 하면, 국내적으로는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탄핵 당함으로써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를 실감하는 중입니다. 美 대선 이후 급격한 추세를 보인 금리상승 및 주가상승, 그리고 달러의 급격한 강세 와중에 동반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해가 바뀌어도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까요?

1. 국제금융시장 동향

■ 유럽 불확실성 확대 vs ECB의 존재감 과시

12월 4일(日)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 재투표에서 지난 5월 승리를 거뒀던 알렉산더 판 데어벨렌(무소속, 좌파) 후보를 선택했다. 反이민, 反EU 성향의 극우(極右) 노르베르트 호퍼가 당선되었더라면 2016년의 두테르테(필리핀), 트럼프(미국)에 이은 유럽판 선거 이변이 될 수도 있었지만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트럼프의 당선을 보고 느낀 바가 있었는지 무난하고 평온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날 단행된 이탈리아 국민투표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바와 같이 마테오 렌지(41) 총리가 제안한 상원의원의 숫자와 역할을 줄이자는 개혁안이 부결되었고, 렌지 총리는 이후 약속대로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그림 1]은 이탈리아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위기라는 점, 그리고 이번 이탈리아 국민투표의 부결로 브렉시트(Brexit)에 이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EU(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이 여전한 시장의 우려로 남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 jopok5298@nate.com

그림 1. 이탈리아 發 유로존 불확실성



[그림 2]는 이탈리아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가 2010년 이후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느 나라들에 비해 일반 국민(개인투자자)들의 직접적인 채권 투자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에서는 정부나 유럽중앙은행(ECB) 차원의 공적자금 투입(Bail-out)이 아닌 주주, 채권자, 예금자 등이 손실을 부담하는 ‘Bail-in’ 방식의 부실은행 해결 방안은 표(票)를 행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정치적 혼란과 표포리즘의 준동이 이어지게 된다.

[그림 3]은 1472년에 설립된 세계 최고(最古)의 은행이자 이탈리아 내에서 3대 은행에 속하는 몬테 파스키 은행(BMPS; Banca Monte dei Paschi di Siena)의 주가 추이를 통해 이탈리아 은행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함을 시사하고 있다. 12월 12일 BMPS에 대한 구제금융을 결정한 이탈리아 정부는 ECB가 BMPS의 자금 부족 추정액을 55억 유로에서 80억 유로로 상향하면서 애초 예상보다 큰 규모인 65억 유로(약 8조 2천억 원) 수준의 자금 지원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비슷한 상황을 몰고 오기에 새해에도 계속 살펴야 할 변수다.

그림 2. 이탈리아 은행들의 부실채권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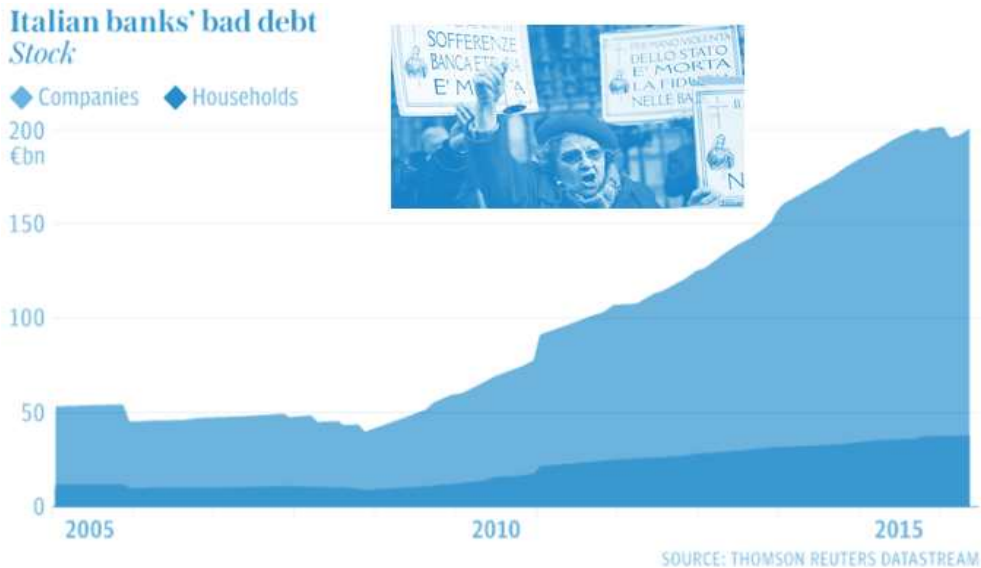


그림 3. 몬테 파스키 은행(BMPS) 주가 추이



그럼 이탈리아 국민투표 부결 이후 12월 27일까지(16 거래일) 세계 증시 가운데 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어디일까? 역설적이게도 이탈리아다(+13.48%). 독일(+9.12%), 영국(+5.01%) 등은 가볍게 늘었고, '트럼프 랠리' 를 자랑하는 미국 다

우지수(+4.04%), 나스닥(+4.41%) 등과 겨루어 보았을 때 더욱 돋보인다. 브라질(-2.68%), 중국(선전 종합지수 -5.03%), 인도네시아(-2.73%) 등 이머징 증시들이 부진을 보인 점과는 대조적이다. 또 한 가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스페인(+8.94%), 포르투갈(+6.18%) 등 이탈리아를 떠올리면 같이 살피게 되는 'PIGS' 증시가 유로존 은행권 부실이 우려되는 와중에 아웃 퍼폼 중이다. 그리고 이게 다 이탈리아가 배출한 불세출의 영웅(?) 마리오 درا기 ECB 총재 덕분이다([그림 4] 참조). 드라기는 독일 총선(2017년 10월)을 염두에 두었는지 QE 연장을 2017년 12월까지 시장 예상보다 3개월 늘렸고, 언제든지 QE를 확대 혹은 연장할 수 있고 예치금 금리(-0.40%) 이하의 수익률에서도 국채 매입에 나설 수 있음을 밝히면서 무원칙(無原則), 그러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ECB임을 과시하였다.

그림 4. ECB 통화정책회의(12/8) ... “우리 아직 살아있다!”



■ 미국 분위기 띄우는 트럼프 vs 냉정을 유지하자는 연준

과연 얼마나 고민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인 상태에서 내놓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America First!"를 외치면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친(親)기업'의 모토 하에 감세(減稅)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을 툭툭 던지고 나오는 도널드 트럼프

프 美 45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뉴욕 금융시장은 최근 한 달 남짓 열심히 환호하고 반응해왔다(재정확대 →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상승 → 국채수익률 급등 & 달러강세 & 주가상승). [그림 5]는 역사에 남을 ‘부동산 개발업자 트럼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정확한 시기와 디테일한 투자 내역은 밝히지 않은 채 소프트뱅크의 500억 달러 투자로 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근사한 뉴스 헤드라인을 뽑아내고, 오바마 정부에서 추진한 대통령 전용기 교체를 비싸다는 이유로 없었던 일로 만드느라 하면, 민주당 집권기에 이른바 ‘political correctness’라는 논란의 여지 있는 가치 추구 과정에서 사라졌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마음껏 외치게 함으로써 타고난 예능 및 흥행 감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있다.

그림 5. 트럼프의 타고난 흥행 감각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 “내가 당선되면 (과도한 저금리 정책으로 ‘오바마’를 돕고 있는)엘런 의장을 자르겠다!”고 공언하던 트럼프의 당선 이후 열린 2016년 마지막 FOMC에서 연준(Fed)은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0.50 ~ 0.75%로 25bp 인상하였다. 2015년 12월 FOMC에서 발표된 ‘점 도표’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네 번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시되었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시장금리가 크게 뛰고 증시도 예상 외로 크게 오르면서 ‘겨우’ 한 차례 더 올리는 것으로 체면치레를 했다. 그러나 재닛 옐런 의장은 기자회견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제

시해 온 정책 방향에 대해 무조건적인 순종을 거부했다([그림 6] 참조). 그리고 이번 12월 FOMC에서 제시된 점 도표는 시장이 한 번 흘깃 보는 정도로 넘길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그림 7] 참조). 연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 3 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그 동안 시장금리의 하락에 후행적으로 반응하며 번번이 점 도표의 중간값을 낮추어 오던 행태와는 분명히 차별화된 것이다. 트럼프와 연준 중 누가 약속을 못 지킬지 두고 볼 일이다.

그림 6.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적극 동의하지 않는 연준(Fed)



- 현재 시점에서 완전고용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재정정책이 명백히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 금융 규제가 후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 FOMC참가자들은 경제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12/14, FOMC 후 기자회견]

☞ 트럼프의 경제 정책, 불안해 보인다!!

- 여러 해 동안 느리게 이어진 경기 회복기를 지나 여러분은 이제 약 10년 만에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고용시장으로 나아가게 된다. [12/19, 볼티모어 大 졸업식 축사]

☞ 美 대졸자 연봉은 고졸자보다 70% 높아(1980년에는 20% 격차)

그림 7. 12월 FOMC '점 도표'의 중요성



자료: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인용: 비즈니스 인사이더, 글로벌모니터(下)

■ 당장 할 게 없는 BOJ(日) vs 신경 쓰이는 게 많은 PBOC(中)

지난 12월 20일, 트럼프 당선 이후 처음 열린 일본은행(BOJ)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였다. 연초(1/29)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도 엔화 약세와 증시 상승은 하루에 그치고 이후 100엔 붕괴를 위협하는 달러/엔(USD/JPY) 환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증시의 급락을 경험한 뒤로 구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는 다소 의기소침해진 면도 없지 않다. 미국 주도 하에 재정정책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통화절하 경쟁을 피하자는 합의를 도출했던 2월 하순 상하이 G20 재무장관 회의가 더 힘이 있음을 확인했고, 9월 29일 JGB 10년물 수익률을 제로(0) 근방에 묶어두겠다고 나섰다가 트럼프 당선 이후 美 국채수익률이 급등하면서 美-日 간 금리격차 확대로 엔화가 초약세로 돌아서며 증시도 반등에 나섰으니 그저 표정관리나 해야 할 판이다([그림 8] 참조).

그림 8. ‘트럼프 당선’ 이후 일본 금융시장 동향



차트 인용: 인포맥스(12/28 현재)

용궁 다녀온 토끼처럼 한 숨 돌리며 미국의 새 대통령과 관계 개선에 힘쓰고 있는 일본과 달리 중국의 형편은 좀 더 긴박하다([그림 9] 참조). 국채수익률로 대변되는 시중 금리의 급등은 중국도 예외일 수가 없다. 거기에서 3조 달러 아래로 떨어

어지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이는 외환보유고 급감과 (다른 통화들과 비교할 경우 그리 심각하지는 않지만) 위안화의 달러 대비 지속적인 약세 흐름 등은 시황에서 ‘중국, 자본이탈 우려 심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자주 접하게 만드는 현상이다. 중국 증시도 펀더멘털을 떠나 기술적으로도 추가 반등보다는 하락세 재개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 인민은행이나 금융 당국의 고민은 깊어지는 중이다. G2 간의 ‘쇼’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 美-中 간 심화될 무역 마찰 및 환율 관련 갈등도 2017년 내내 유심히 살펴야 할 변수다.

그림 9. 금리 급등, 외환보유고 급감, 증시 불안 ... 곤혹스러운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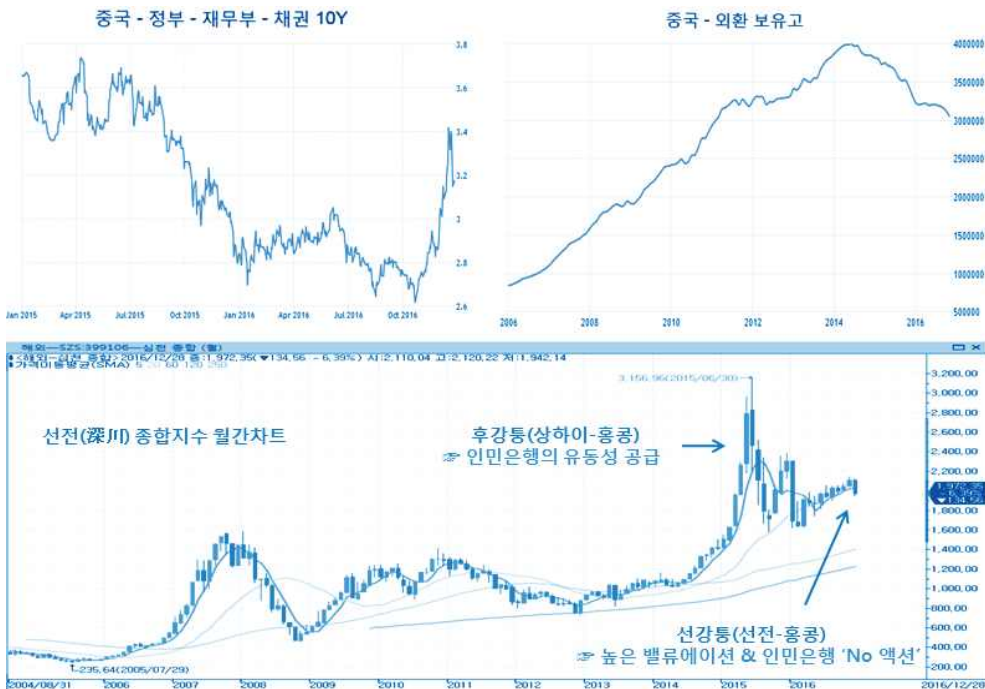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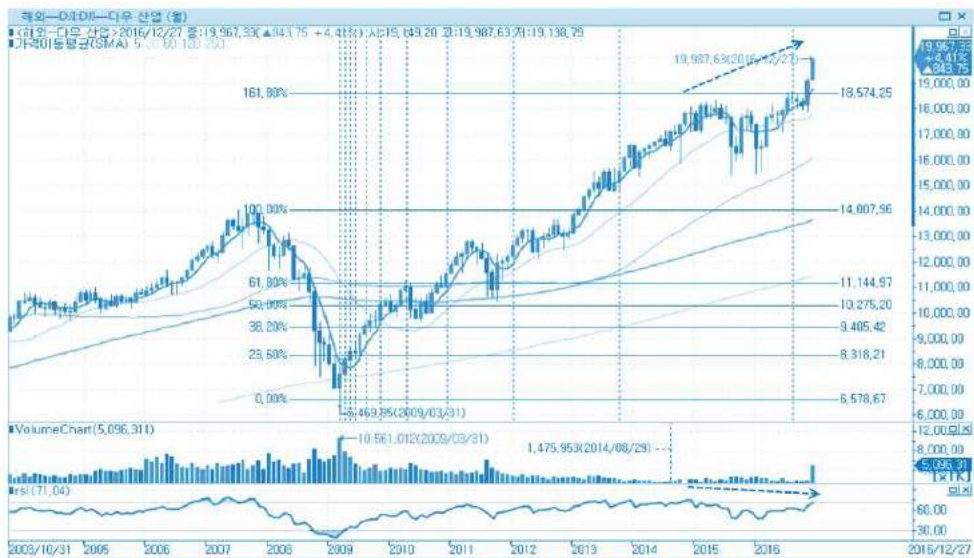
차트 인용: Trading Economics, 인포맥스

■ ‘매도 다이버전스(Bearish divergence)’를 염두에 두고.....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에 대한 기대감과 때맞춰 호조를 보이는 미국의 경제지표(12월 소비자신뢰지수의 경우 전월치 107.1과 시장 예상치 108.5를 훨씬 상회하는 113.7로 발표), 트럼프 진영에 서 있는 월가 출신의 거물들이 펼치는 ‘작전’ 등이 어우러져 美 대선(11/8) 이후 뉴욕증시는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펼

쳤고 금리는 크게 뛰었으며 달러강세도 도도한 추세를 이루면서 연말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인 1월 20일까지는 계속 간다, 그 이후에도 더 달린다, 그 때쯤이나 취임 초 허니문 기간(약 100일?) 이후에는 허무한 기대감 하나로 내달려온 시장이 급격한 추세전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등등 2017년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다양한 전망(?)과 희망(!)이 회자되고 있다. 그리고 차트에서는 뉴욕증시나 달러인덱스 등에서 공히 ‘매도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런 설왕설래가 다 나뉠 일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중이다([그림 10~11] 참조).

그림 10. 美 디우존스 지수 월간차트



시장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는 가운데 기술적 보조지표들의 고점은 낮아지는 현상은 조만간 상승 추세가 마무리되고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기술적 시그널이다. 문제는 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막바지 추세가 매우 강하고 매혹적인 시세 분출을 동반하는 데에다 추세전환이 어느 시점과 레벨에서 시작될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구경만 하기에는 아까운 큰 장, 그러나 자칫하다가 손실을 보면서라도 빠져나오기조차 어려울 수도 있는 상당한 리스크를 각오해야 하는 장..... 2017년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짜릿하면서도 살 떨리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증시나 달러인덱스 월간 차트에(국채수익률이나 유가차트 등에서도) 몇 개의 양봉(陽棒)이 추가될 것인가? 그 사이에 시장은 어디까지

내달릴 수 있을까? 돌아선 이후에는 어디까지 꺼질 것을 각오해야 하는가? 트럼프라는 사람은 끝없는 버블을 만들어 연준도 못해낸 ‘기술적 분석 쓰레기통에 버리기’에 성공할 것인가? 머리가 복잡해지는 연말이다.

그림 11. 달러인덱스(major) 월간차트



2. 환율 동향 및 전망

■ ‘强 → 弱 → 强’으로 1,200원 위에서 2017년 시작

2015년 8월 단행된 위안화 평가절하, 12월에 단행된 연준의 금융위기 이후 첫 금리인상 등으로 연초 2월 말에는 1,245원 30전까지 치솟기도 했던 달러/원 환율은 투기자본의 공격에 단호히 대처한 중국 당국의 의지, 상하이 G20 회의에서 드러난 더 이상의 달러강세를 원치 않는 미국의 의중 등이 확인되면서 1,090원도 살짝 내려서는 깊은 조정 국면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1,090 ~ 1,100원 구간에서 바닥을 다진 환율은 10월 이후 상승세를 재개했고, 트럼프 당선 이후 글로벌 달러강세기에 1,185원 공방을 거친 뒤 결국 1,200원 위에서 2017년을 맞을 태세다. 일간차트 상으로는 과매수 국면으로 판단되지만, 중장기 전망은 그리 간단치 않다. 함께 게재되는 ‘2017년 외환시장 전망’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

그림 12. 달러/원(USD/KRW) 일간차트



차트 인용: 인포맥스 (12/28 현재)

■ 엔/원(JPY/KRW) 환율을 통해 확인하는 기술적 분석의 유용성

[그림 13]에서는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달러/원 환율을 달러/엔 환율로 나누어 구하는 엔/원(JPY/RW) 환율을 통해 기술적 분석의 위력과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우하향 점선으로 표시된 하락추세선 저항에서 상승세가 막히는 모습,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뒤에도 앞선 상승 폭의 61.8% 피보나치 조정 레벨 및 120주 이동평균선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점 등에서 하물며 계산기 두드려 구하는 재정환율(裁定換率)에서도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 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강력한 추세반전 신호로 알려져 있는 ‘다이버전스’를 거래에 활용함에는 인내와 조심성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2015년 6월 진(眞) 바닥을 확인하기 전에 다이버전스 시그널에 기댄 엔/원 매수세는 번번이 손절로 내몰렸을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앞서 살핀 [그림 10~11]에서도 선부른 예단은 위험하다. 다 온 것 아닌가 싶은 주가나 환율, 금리가 훨씬 더 내달리는 2017년이 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그림 13. 엔/원(JPY/KRW) 재정환율 주간차트



원자재 및 에탄올시장 동향

박환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2월 국제 원자재시장은 11월의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12월 20일까지의 국제 원자재시장은 원유시장의 강세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동안 원유시장의 약세를 초래했던 초과공급 현상은 주요 산유국의 감산합의에 따라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산이 실제로 이행될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이지만 현재로서는 수급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원유시장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12월에는 원유뿐 아니라 곡물, 구리 등 원자재시장이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곡물은 남미 지역에서의 건조한 날씨로 인한 생산 차질우려로 강세를 보였고 구리는 미국의 새로운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반면 금은 달러화강세와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12월의 미국 에탄올시장은 지난 3개월간의 연속상승에서 벗어나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지난달의 호재였던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사용량 기준 상향조정과 트럼프 당선자의 바이오연료 산업 지원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에탄올생산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향후 안정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 원자재시장 동향

■ 원자재지수 월간 동향

2016년 12월 국제 원자재시장은 11월의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12월 평균 CRB지수(CRB Index)는 191.8을 기록하여 전월 184.4에 비해 4.0% 상승했으며 1년 전 176.3에 비해서는 8.8% 상승했다. S&P 골드만삭스 상품지수(S&P GSCI)는 390.1로서 전월 359.9보다 8.4%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 316.0보다는 23.5% 상승했다.

* hwaniipark@gmail.com

표 1. 원자재지수의 월간변화 비교

구분	2015.12	2016.11	2016.12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CRB Index	176.3	184.4	191.8	8.8	4.0
S&P GSCI	316.0	359.9	390.1	23.5	8.4

주: 변화율은 2016년 12월 평균지수(12월 20일까지의 평균)의 전년 동기(2015년 12월)와 전월(2016년 11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12월의 국제 원자재시장은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12월에 기록한 CRB Index 191.8은 지난 2015년 10월 평균인 196.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S&P GSCI 390.1은 2015년 7월 평균인 402.8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지수 수준에 해당한다. 그동안 국제 원자재지수는 좁은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었다. 우선 CRB Index는 160에서 190 사이에서 13개월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S&P GSCI 역시 290에서 370 범위에서 16개월 동안 등락을 거듭하였다.

이번 12월의 원자재지수 상승은 기술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년 이상의 긴 시기동안 머물렀던 박스권을 상향 탈피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둘째, 예전부터 제시했던 원자재시장의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 돌파해야 할 1차 저항선에 근접한 것이다. 1차 저항선은 CRB Index는 195, S&P GSCI는 360인데 12월의 상승으로 CRB Index는 저항선에 상당히 근접한 상태가 되었고, S&P GSCI는 저항선을 확실하게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CRB Index는 1차 저항선인 195를 2015년 11월에 하향 돌파한 이후 아직까지 회복하지는 못했다. 지난 6월 평균 191.2가 최근에 가장 저항선에 가깝게 상승한 수준이었고 12월의 191.8은 195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약 2%의 상승이 이루어지면 195를 돌파하게 될 것이다. 반면 S&P GSCI는 12월에 저항선인 360을 훌쩍 뛰어 넘어섰다. CRB Index와 달리 S&P GSCI는 그동안 360을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12월의 상승으로 저항선 돌파와 함께 추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2월의 국제 원자재시장은 원유시장의 강세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원유시장의 약세를 초래했던 초과공급 현상은 주요 산유국의 감산 합의에 따라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산이 실제로 이행될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이지만 현재로서는 수급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원유시장

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12월에는 원유뿐 아니라 곡물, 구리 등 원자재시장이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곡물은 남미 지역에서의 건조한 날씨로 인한 생산 차질우려로 강세를 보였고 구리는 미국의 새로운 정부의 경기부양정책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원자재시장의 약세를 초래할 수 있는 이슈인 미국 금리인상이 단행되었다. 12월 열린 FOMC 회의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추가로 2017년에도 3차례의 금리인상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금리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으나, 이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은 상당부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미국 달러화 가치는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12월 20일 기준 달러인덱스는 103.29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미국 대선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대선 직전인 11월 7일 달러인덱스는 97.78이었으나 12월 20일 103.29로 올라 5.6% 상승했다. 달러화 가치 상승은 원자재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록 12월에는 원자재시장의 펀더멘털 이슈로 인해 강세를 보였지만 추후 펀더멘털 측면의 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원자재시장은 하락세로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 2017년 트럼프 정부의 출범이 이루어지고 경제, 외교, 환경 등 분야에서의 정책이 구체화 되면 미국 달러화 가치와 그에 따른 원자재시장에 대한 영향도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원자재지수 월간추이



자료: KoreaPDS

■ 주요 품목별 동향: 에너지

2016년 12월의 원유시장은 지난달의 하락에서 벗어나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WTI원유의 12월 가격은 51.5달러/배럴로서 2016년 11월 가격 45.8달러/배럴에 비해 12.6% 상승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38.1%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12월 가격이 54.5달러/배럴로서 전월의 47.0달러/배럴에 비해 16.0% 상승, 전년보다는 40.1% 상승했다. 12월 천연가스 가격은 3.52달러/백만Btu로서 전월에 비해 18.9% 상승했으며, 1년 전보다는 71.7%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표 2. 에너지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5.12	2016.11	2016.12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WTI원유	37.3	45.8	51.5	38.1	12.6
브렌트유	38.9	47.0	54.5	40.1	16.0
천연가스	2.05	2.96	3.52	71.7	18.9

주: WTI원유(CME선물), 브렌트유(ICE선물)는 달러/배럴, 천연가스(CME선물)는 달러/백만BTU; 변화율은 2016년 12월 평균가격(12월 20일까지의 평균)과 전년 동기(2015년 12월)와 전월(2016년 11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국제 원유시장은 지난 11월에 배럴당 40달러대로 하락했지만 12월에는 다시 50달러 수준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WTI원유의 12월 평균가격인 51.5달러/배럴은 2015년 6월에 기록한 59.9달러/배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15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월 평균가격 기준으로 50달러대로 올라선 것이다. 12월 평균 브렌트유가격인 54.5달러/배럴 역시 2015년 7월의 56.6달러/배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6년 1월 평균가격은 WTI원유와 브렌트유가 각각 31.8달러/배럴, 32.0달러/배럴이었다. 2016년 1년 동안 원유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최종적으로 WTI원유는 연초 대비 62.2%, 브렌트유는 70.2% 상승했다.

12월의 유가 상승은 주요 산유국의 생산량 감축결정에 기인한다. OPEC은 2017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2016년 10월 생산량 대비 120만 배럴/일 감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OPEC의 생산 상한선은 3,250만 배럴/일이 되며 내년 5월에 회원국들의 이행여부에 따라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가별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OPEC 전체 감산량의 41%인 48.6만 배럴/일을 감축하고 이라크가 21만 배럴/일, UAE는 13.9만 배럴/일을 감산한다. 감산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했던

이란은 유일하게 9만 배럴/일 증산하게 되었고, 리비아, 나이지리아는 이번 결정에서 제외되었다.

OPEC 뿐만 아니라 비OPEC국가들도 감산에 동참한다. 러시아가 중심이 된 비OPEC국은 60만 배럴/일을 감산하기로 했다. 이중 러시아가 절반인 30만 배럴/일을 감축하지만 나머지는 아직 미결정이다. 종합적으로 OPEC과 비OPEC은 총 180만 배럴/일을 2017년 상반기 중 감산할 계획인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생산량의 약 2%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원유시장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이다.

표 3. OPEC 주요 국가별 감산 규모

(단위: 만 배럴/일)

국가	'16.10월 생산량	감산규모	'17.1월 생산량 전망
사우디아라비아	1,054.4	-48.6	1,005.8
이라크	456.1	-21.0	435.1
이란	397.5	+9.0	406.5
UAE	301.3	-13.9	287.4
쿠웨이트	283.8	-13.1	270.7
베네수엘라	206.7	-9.5	197.2
앙골라	175.1	-7.8	167.3

자료: 국제금융센터(2016.12.1.) OPEC 및 러시아 15년 만에 감산 합의, Market Brief

이번 감산 결정으로 전 세계 원유수급은 빠르게 균형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하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220만 배럴/일의 초과공급이 발생했으며 2016년 4분기는 EIA의 전망에 따르면 120만 배럴/일의 원유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산합의가 제대로 실행된다면 공급과잉 현상은 2017년 중반이후에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전 세계 원유재고량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므로 재고량 축소속도도 수급균형 달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원유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감산합의에는 성공했지만 각 국가별로 실제 감산을 이행할지는 여전히 의문시된다는 견해도 있다. 감산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감산이행이 제대로 지켜져서 유가가 강세를 유지한다면 미국 셰일업체들이 다시 생산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OPEC과 비OPEC의 감산효과는 사라지고 유가강세도 지속되기가 어렵다. 그

동안 미국 셰일업체들의 증산 결정은 유가가 50달러대를 유지하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었다. 즉 최근 유가가 50달러대를 상향 돌파하고 향후 60달러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면 미국의 원유생산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의 원유시추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12월 2주 기준으로 510개를 기록했다. 이는 2016년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OPEC 감산결정 이후 실제로 후속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 쿠웨이트, UAE 등의 석유회사들은 고객들에게 OPEC 결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원유공급량을 줄일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쿠웨이트 석유회사는 미국 및 유럽 고객들에게 공급하는 물량 감소폭이 클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웨이트 에너지장관은 감산이 이행된다면 유가는 6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며 공급과잉 상황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국제 원유시장은 공급과잉으로 인한 약세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감산 이행여부, 미국의 증산 가능성, 달러화 가치 상승 등 변수 등에 따라 원유시장의 상승세 지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에너지 품목별 가격 월간추이



자료: KoreaPDS

■ 주요 품목별 동향: 농축산물

2016년 12월 곡물시장은 지난달에 비해 상승했다. 12월의 옥수수가격은 355.2센트/부셸로 전월보다 3.0% 상승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3.8% 하락했다. 대두는 1,031.2센트/부셸을 기록하여 전월 1,007.1센트/부셸에 비해 2.4%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 17.2% 높은 수준이다. 12월의 생육우는 112.4센트/파운드로 전월에 비해 5.0% 상승했다.

옥수수과 대두 등 곡물시장은 2016년 하반기의 약세권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나타냈다. 옥수수 12월 평균가격인 355.2센트/부셀은 지난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6개월 만에 350센트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다. 대두 역시 12월 평균가격 1,031.2센트/부셀은 지난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2월에는 아르헨티나에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두와 옥수수 성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우호적인 날씨상태가 해소되면 현재의 안정적인 수급상태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농축산물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5.12	2016.11	2016.12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옥수수	369.3	345.0	355.2	-3.8	3.0
대두	879.9	1,007.1	1,031.2	17.2	2.4
생육우	129.9	107.0	112.4	-13.5	5.0

주: 옥수수(CME선물), 대두(CME선물)는 센트/부셀, 생육우(CME선물)는 센트/파운드: 변화율은 2016년 12월 평균가격(12월 20일까지의 평균)의 전년 동기(2015년 12월)와 전월(2016년 11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그림 3. 농축산물 품목별 가격 월간추이



자료: KoreaPDS

■ 주요 품목별 동향: 비철금속 및 귀금속

12월의 비철금속시장은 구리는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알루미늄은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12월 구리가격은 5,755달러/톤을 기록하여 11월 가격보다 5.1% 상승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24.2% 상승했다. 알루미늄은 1,744달러/톤을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0.9% 하락했으며,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3.8% 높은 상태이다. 12월 금 가격은 1,160달러/온스로써 11월보다 6.2% 하락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8.5% 상승했다.

구리가격은 미국과 중국에서의 공공인프라 투자 증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12월에 기록한 구리가격은 2015년 6월의 5,900달러/톤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15년 5월 이후 한 번도 올라서지 못했던 톤당 6,000달러와는 245달러 차이로써 상당히 근접한 상황이다. 중국의 11월 수출입은 각각 전년대비 13.0%, 5.9% 증가하여 시장전망치를 상회했다. 또한 11월 산업생산 역시 전년대비 6.2% 증가했고 11월까지 고정자산투자액도 전년대비 8.3% 늘어나면서 중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예상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의 구리수입은 지난달에 비해 31% 증가했으며 LME 구리 재고량이 15일 연속 감소하여 구리시장의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여 진다. 하지만 구리시장의 투기매수세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 달러화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구리가격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금 가격은 미국 달러화강세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12월의 금 가격은 2016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온스당 1,200달러 아래로 하락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금 ETF에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도정부가 추진 중인 화폐개혁도 인도의 금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써 향후 금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표 5. 비철금속 및 귀금속 품목별 가격 월간변화 비교

	2015.12	2016.11	2016.12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알루미늄	1,532	1,759	1,744	13.8	-0.9
구리	4,632	5,477	5,755	24.2	5.1
금	1,069	1,236	1,160	8.5	-6.2

주: 알루미늄(LME선물), 구리(LME선물)는 달러/톤, 금(CME선물)은 달러/온스: 변화율은 2016년 12월 평균가격(12월 20일까지의 평균)의 전년 동기(2015년 12월)와 전월(2016년 11월)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그림 4. 비철금속 및 귀금속 품목별 가격 월간추이



2. 에탄올시장 동향

■ 에탄올수요 확대 기대감으로 인한 사상 최대 생산량 기록

2016년 12월 미국 에탄올시장은 3개월간의 상승세를 마치고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12월 마지막 주 가격은 158.0센트/갤런으로 11월 마지막 주 가격인 158.7센트/갤런 대비 0.5% 하락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13.1% 상승했다. 12월 12일 기준 에탄올가격은 167.4센트/갤런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약세로 돌아섰다. 가장 최근에 기록한 에탄올가격 고점은 169.1센트/갤런(6월 13일 주 평균기록)으로써 현재 가격과는 약 11센트 차이에 있다. 에탄올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전고점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할 필요가 있다.

표 6. 에탄올 주간 평균가격변화 비교

	2015.12.28	2016.11.28	2016.12.19	변화율 (전년대비)	변화율 (전월대비)
에탄올	139.7	158.7	158.0	13.1	-0.5

주: 에탄올(CME선물)은 센트/갤런: 변화율은 2016년 12월 마지막 주(12월 20일 기준) 평균가격의 전년 동기(2015년 12월 마지막 주)와 전월(2016년 11월 마지막 주)대비 비율

자료: KoreaPDS

에탄올생산량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12월 9일 기준 생산량은 104.0만 배럴/일로써 11월 마지막 주에 기록한 101.2만 배럴/일보다 2.8% 증가했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0월말부터 에탄올생산량은 100만 배럴/일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정부의 바이오연료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과 2017년 바이오연료 의무사용량 상향조정에 기인한다.

에탄올생산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에탄올재고량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9일 기준 재고량은 19.1백만 배럴로써 11월 마지막 주에 비해 0.7백만 배럴 증가했다. 하지만 2016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재고량은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2016년에는 에탄올재고량이 지속적으로 20백만 배럴 이상을 유지했으나 10월 들어 20백만 배럴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재고량 감소 원인은 가솔린소비가 견조한 가운데 중국과 남미 지역으로의 에탄올 수출도 양호하게 나타난 점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중국은 2020년 에탄올 목표 생산량을 현 수준의 두 배인 400만 톤으로 상향 발표했다. 경우에 따라 미국산 에탄올의 대 중국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계절적으로 가솔린 소비 비수기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에탄올소비량이 감소하고 재고량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 견조한 에탄올 생산량의 추이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표 7. 미국 에탄올 생산 및 옥수수 소비량 추이

주간	에탄올 생산량 (천 배럴/일)	에탄올 재고량 (백만 배럴)	가솔린 소비량 (천 배럴/일)
2016/9/30	980	20.2	9,390
2016/10/28	1,022	19.7	9,183
2016/11/11	1,017	18.6	9,359
2016/11/18	1,014	19.0	9,024
2016/11/25	1,012	18.4	9,080
2016/12/2	1,023	18.5	8,757
2016/12/9	1,040	19.1	8,874

자료: Renewable Fuels Association

그림 5. 미국 CME 에탄올 주간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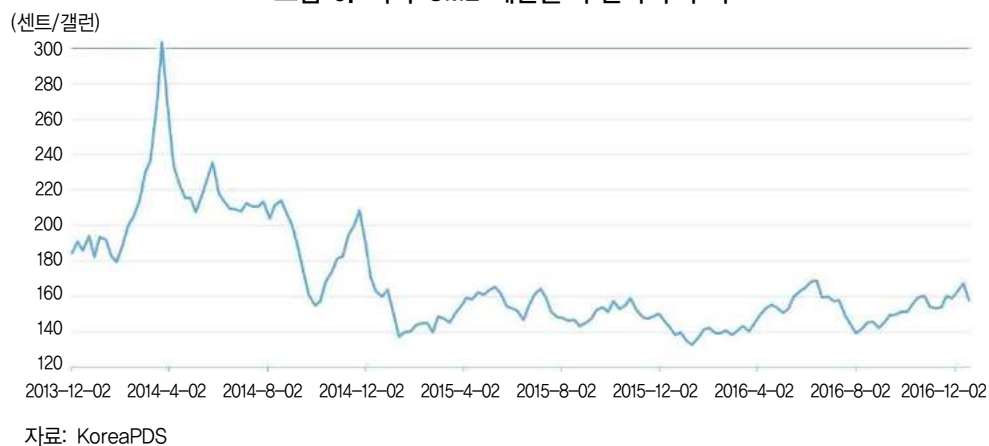


그림 6. 미국 주간 에탄올 생산 및 재고량 추이



곡물 해상운임 동향과 전망

정영두(캠코선박운용 차장)*

2016/17 시즌 소맥, 옥수수, 대두 물동량 합계치는 전 시즌 대비 1.6% 증가한 '4,56억 톤'으로 4년 연속 증가를 기록 중이나 증가폭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

소맥 물동량은 호주 지역의 수출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작황 개선과 인근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러시아의 소맥 수출은 예상과 달리 다소 지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옥수수 물동량의 최근 들어 멕시코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2016년 미국 대선에서 'NAFTA'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의 당선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두 물동량은 미국의 작황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재고 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브라질의 파종 시기가 앞당겨 지고 있어 내년 남미 곡물 시즌 또한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건화물선 시황은 연말에 접어들며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 건화물선 운임지수가 전년 대비 6% 하락한 '673 pt'를 기록,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였다. 극심한 시황 악세가 2년 연속 이어짐에 따라 선박 해체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2012년 이후 계속된 수급 불균형은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수요 부진이 지속되며 시황 상승이 제한된 것으로 분석되나, 2017년에는 철강경기 회복과 유가 상승이 맞물리며 전년 대비 시황이 상승할 전망이다.

곡물 운임의 경우 미국 동부 지역에서 선적하여 파나마 운하를 통해 중국에서 하역하는 운임이 톤 당 \$34.50 선을 기록, 전월 대비 약 \$3 가량 하락하였다. 통상적으로 1분기에 선박의 신조 인도가 집중되는 동시에 중국의 원자재 수입이 소강상태를 보이며 운임 하락 현상이 반복되나, 2017년에는 브라질의 철광석 수출이 연 초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동시에 연료 유가 또한 상승할 수 있어 작년과 같이 곡물 운임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ydjung@kamcosimc.com, 051-660-5521.

1.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 세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개관)

최근 美 농무성(U.S.D.A) 보고서에 따르면 2016/17 시즌 전 세계 소맥, 옥수수, 대두(이하 주요 곡물) 물동량 합계치는 약 ‘4.56억 톤’으로 전 시즌 대비 1.6%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전월 전망치 대비 ‘380만 톤’ 가량 크게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전 세계 주요 곡물 물동량은 2012/16 시즌에 물동량이 소폭 감소한 이후 4시즌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6/17 시즌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증가폭이 크게 완화되었으며 이는 옥수수 물동량 감소에 원인이 있다.

품목별로 보면 대두 물동량이 2008/9 시즌 이후 8시즌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옥수수 물동량은 2015/16 시즌에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뒤 현재 시즌 들어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소맥 물동량의 경우 2015/16 시즌 대비 증가 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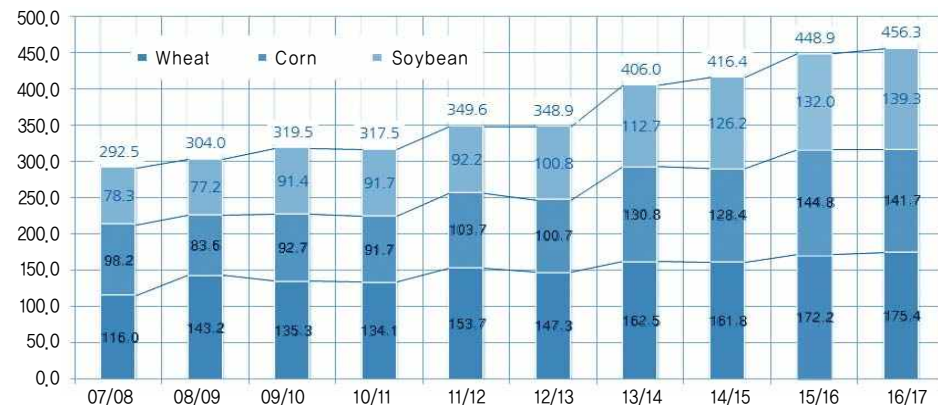
표 1. 전 세계 주요 곡물(소맥·옥수수·대두)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Wheat (a)	153.7	147.3	162.5	161.8	172.2	175.4
Corn (b)	103.7	100.7	130.8	128.4	144.8	141.7
Soybean (c)	92.2	100.8	112.7	126.2	132.0	139.3
Total (a+b+c)	349.6	348.9	406.0	416.4	448.9	456.3
전년 대비 증감률(%)	10.1	-0.2	16.4	2.6	7.8	1.6

자료: USDA

그림 1. 전 세계 주요 곡물(소맥·옥수수·대두) 물동량 추이와 전망



자료: USDA

■ 대륙별 곡물 수입량 추이와 전망

2016/17 시즌 전 세계 옥수수과 소맥 수입량 합계치는 전 시즌 대비 1.2% 증가한 '3.1억 톤'으로 예상되며 전월 전망치 대비 '120만 톤' 상향 조정되었는데, 아시아 지역이 수입량이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아프리카, 북·중·남미, 중동 지역의 수입 전망치 또한 소폭 상향 조정된 반면 유럽 지역의 곡물 수입은 미약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중국의 곡물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2013/14 시즌 곡물 수입량이 전 시즌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약 '2,370만 톤'을 기록했고 다음 2014/15 시즌에도 38% 증가한 '3,280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이후 2015/16 시즌에 수입량이 급감하였으며 현재 시즌에도 큰 폭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 특히 수수(Sorghum) 수입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옥수수(Corn)와 보리(Barley) 수입 또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지역별 곡물(소맥, 옥수수) 수입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증감률 (%)
세 계	243.9	287.1	284.7	307.3	311.1	1.2
아 시 아	76.8	89.5	92.1	100.2	99.8	-0.4
아프리카	53.9	65.7	66.1	74.2	75.2	1.3
북·중·남 미	50.7	58.2	57.6	61.5	63.2	2.8
중 동	35.2	42.2	42.2	39.3	41.8	6.3
유 럽	18.8	22.4	17.2	23.1	22.0	-4.8

자료: USDA

그림 2. 지역별 곡물(소맥, 옥수수) 수입 추이 및 전월 대비 금월 전망치 비교



주: 증감률은 2016/17 시즌 수입량에 대한 전월 대비 금월 전망치 차이

자료: USDA

■ 소맥(Wheat) 수출량 추이와 전망

2016/17 시즌 전 세계 소맥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1.9% 증가한 '1.75억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월 전망치 대비 '180만 톤'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이번 달 전망치에서 특히 호주 지역의 소맥 수출이 크게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소맥 생산이 크게 증가한 동시에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소맥 수요가 증가한 것이 지리적인 강점으로 작용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경우 2015/16 시즌 소맥 수출이 4% 감소했던 것이 현재 시즌 들어 12% 증가로 돌아서며 유럽을 제치고 러시아의 뒤를 이어 세계 2위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해 'Clarkson'은 기후 조건이 좋아지며 작황이 개선됨에 따라 수출 여력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 금월 소맥 수출량 전망치가 '100만 톤'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러시아 정부가 재고 비축을 위한 수매를 지속하는 동시에 농부들이 소맥 가격 인상을 위해 판매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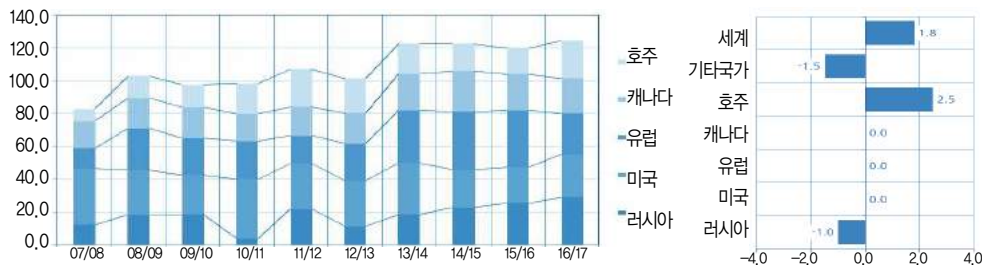
표 3. 주요 국가별 소맥 수출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증감률 (%)
세 계	147.3	162.5	161.8	172.2	175.4	1.9
러 시 아	11.3	18.6	22.8	25.5	29.0	13.5
미 국	27.7	31.5	23.0	21.9	26.0	19.0
유 럽	22.8	32.0	35.4	34.7	25.0	-27.9
호 주	21.3	18.3	16.6	15.8	23.0	45.7
캐 나 다	18.6	22.2	24.9	22.1	21.5	-2.9

자료: USDA

그림 3. 주요 국가별 소맥 수출 추이 및 전월 대비 금월 전망치 비교



주: 증감표는 2016/17 시즌 수출량에 대한 전월 대비 금월 전망치 차이

자료: USDA

■ 옥수수(Corn) 수출량 추이와 전망

2016/17 시즌 옥수수(Corn)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2.2% 감소한 '1,42억 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월 전망치 대비 '190만 톤' 상향 조정된 수치로 브라질의 수출량이 작황 개선으로 인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멕시코의 2015/16 시즌 옥수수 수입량이 '1,380만 톤'을 기록하며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수입국이 된 후 2016/17 시즌 수입량 또한 전 시즌 대비 3% 증가한 '1,42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극심한 건조 기후의 영향으로 자국 내 옥수수 생산이 크게 감소한 동시에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리적인 특성상 멕시코는 대부분 미국산 옥수수를 수입해 왔는데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트럼프가 'NA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기 어렵거나 수입선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최근 'Clarkson'이 전망하였다.

한편 브라질의 경우 현재 대두와 옥수수 파종이 진행 중인데 우호적인 기후의 영향으로 수확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옥수수 주요 산지인 파라나 지역의 경우 12월 중순 현재 이미 옥수수 파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전년 대비 8% 빠른 수준으로, 수확 시기가 빨라지며 내년 남미 곡물 수출 시즌 또한 앞당겨 질 수 있으나 수확기가 우기와 겹치며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번 달 옥수수 수입량 전망치가 소폭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에 대해 美 농무성(U.S.D.A)은 정부의 옥수수 자급 정책 추진과 이에 따른 수입 제한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와 달리 식용으로 사용되는 소맥 수입은 수요가 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4. 주요 국가별 옥수수(Corn) 수출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증감률 (%)
세 계	100.7	130.8	128.4	144.8	141.7	-2.2
미 국	18.3	50.7	46.8	51.2	56.5	10.4
아르헨티나	22.8	12.8	18.4	21.7	25.5	17.7
브 라 질	26.0	22.0	21.9	35.4	22.0	-37.8
우크라이나	12.7	20.0	19.7	16.6	18.0	8.5

자료: USDA

그림 4. 주요 국가별 옥수수 수출 추이 및 전월 대비 금월 전망치 비교



주: 증감표는 2016/17 시즌 수출량에 대한 전월 대비 금월 전망치 차이
자료: USDA

■ 대두(Soybean) 수출량 추이와 전망

2016/17 시즌 전 세계 대두(Soybean) 물동량은 전 시즌 대비 5.5% 증가한 '1.39억 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월 전망치와 거의 변동이 없는 수치로 브라질의 수출량이 변동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수출량이 '70만 톤' 상향 조정된 반면 아르헨티나의 수출량은 같은 만큼 하향 조정 되었다.

미국의 대두 작황이 3시즌 연속 사상 최대 수준을 경신하며 저장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수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장 창고들은 이미 공간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국 주요 축산 시설들의 고온 현상으로 가축의 방목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자국 내 사료용 곡물 또한 부진한 상황으로 결국 단기적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의 경우 2015/16 시즌 대두 수입이 전 시즌 대비 6.2% 증가한데 이어 2016/17 시즌에도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서 중국은 전 세계 대두 수입의 '62%'를 점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절적인 영향과 미국의 대두 수출 촉진 등의 요인으로 미국산 대두를 주로 수입하고 있으나 브라질의 작황이 개선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이 심화될 경우 연 초부터 수입선이 브라질로 변경될 가능성 또한 있어 보인다.

한편 유럽 지역의 대두 수입이 지역 내 크러싱 마진이 높아짐에 따라 빠른 증가

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국 대두박(Soybean Meal)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美 농무성(U.S.D.A)이 언급하였다.

표 5. 주요 국가별 대두 수출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증감률 (%)
세 계	100.8	112.7	126.2	132.0	139.3	5.5
브 라 질	41.9	46.8	50.6	54.4	58.4	7.4
미 국	36.1	44.6	50.6	54.4	55.8	5.9
아르헨티나	7.7	7.8	10.6	9.9	9.0	-9.3

자료: USDA

그림 5. 주요 국가별 대두 수출 추이 및 전월 대비 금월 전망치 비교



주: 증감표는 2016/17 시즌 수출량에 대한 전월 대비 금월 전망치 차이
자료: USDA

■ 분기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영국의 해운 시장 리서치 기관인 'SSY'가 집계한 분기별 주요 곡물(소맥, 잡곡, 대두, 대두박) 물동량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1분기 곡물 물동량은 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경우 소맥과 대두박을 포함한 대두 물동량이 각각 '8.0%'와 '1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잡곡(Coarse Grain) 물동량은 '18.8%'가량 크게 증가하며 전체 곡물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 추세를 살펴보면 곡물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1분기에 감소를 보인 뒤 2분기에는 남미 곡물 출하 시즌이 도래하며 대두들 중심으로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이후 3분기에는 잡곡 물동량이 계절적인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곡물 물동량이 4분기에 항상 최고점을 기록했던 현상이 금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잡곡(Coarse Grain) 물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옥수수 수입이 금년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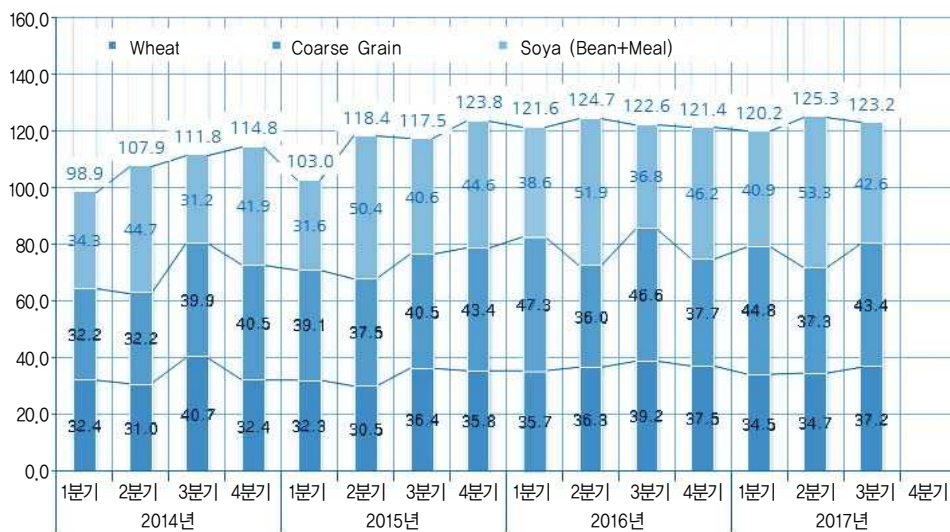
표 6. 분기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Wheat	35.8	35.7	36.8	39.2	37.5	34.6	34.7	37.2
Coarse Grain	43.4	47.3	36.0	46.6	37.7	44.8	37.3	43.4
Soy(bean+Meal)	44.6	38.6	51.9	36.8	46.2	40.9	53.3	42.6
Total	123.8	121.6	124.7	122.6	121.4	120.2	125.3	123.2

자료: SSY Dry Bulk Forecaster, NOV. 2016.

그림 6. 분기별 곡물 물동량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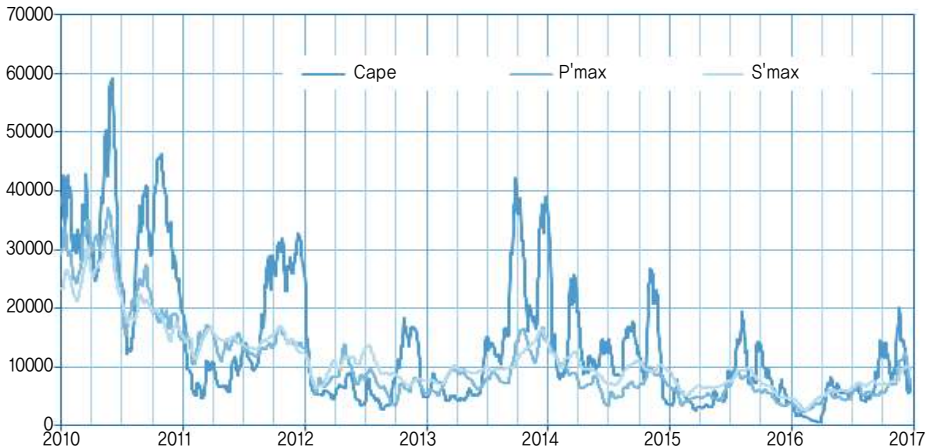


자료: SSY Dry Bulk Forecaster, NOV. 2016.

2.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 최근 건화물선 시황

그림 7. 건화물선 선형별 용선료 변동 추이



자료: Baltic Exchange

건화물선 시황은 2016년 4분기 들어 대형선을 중심으로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나며 11월 중순에 건화물선 운임 지수가 '1,257 pt'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연말에 접어들며 조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6년 평균값은 '673 pt'를 기록하였다.

결국 2016년 건화물선 운임지수는 연평균 기준으로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였으며, 계절적으로는 상반기에 시황이 극심한 약세를 보인 뒤 하반기 들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국의 석탄 수입 증가에 힘입어 점진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던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수급 상황을 보면 2015년 이후 계속된 극심한 시황 약세의 영향으로 선박 해체가 빠르게 진행되며 선박 증가율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수요 부진으로 인해 시황 상승이 제한된 것으로 분석되나 하반기 시황 상승 추세가 나타난 점은 선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7년에는 선박 증가율이 금년 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인 시황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곡물 해상운임 추이와 전망

그림 8. 노선별 곡물 현물 운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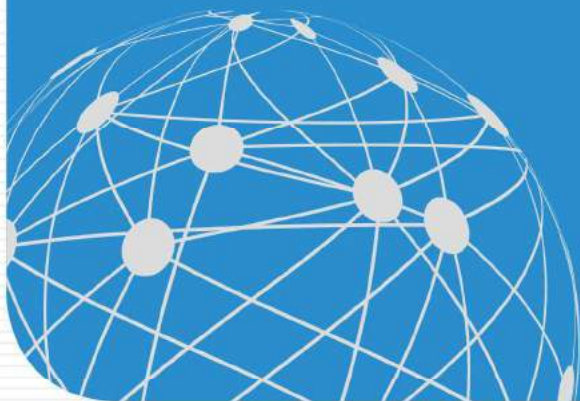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최근 'Clarkson'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2월 23일 기준 중국 향 US Gulf 곡물 운임은 톤 당 약 '\$34.50'선을 기록하고 있으며, Panamax 선형의 용선료 하락으로 인해 전월 대비 톤 당 '\$3.0' 가량 하락하였다. 美 서부 노선(타코마 항 선적, 중국 북부 지역 하역 기준) 운임의 경우 12월 말 현재 톤 당 '\$17.30'선으로 전월 대비 약 '\$1.0' 가량 하락하였으며 미국 동부 지역 대비 하락폭이 다소 적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1분기에는 선박의 신조 인도가 집중된다는 점과 중국의 춘절 연휴 전까지 원자재 수입이 소강상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운임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 초에 브라질의 철광석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완료됨에 따라 철광석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동시에 'OPEC'의 감산 합의로 인해 유가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곡물 운임 상승 요인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art 2. 특집 2017년 곡물시장 주요이슈 전망

2017년 세계경제 전망	85
2017년 외환시장 전망	97
2017년 국제유가 전망	109
2017년 곡물 해상운임 전망	119



2017년 세계경제 전망

최호상(국제금융센터 선임연구위원)*

2016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는 점차 성장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신흥국의 경기 회복,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 등에 따른 선진국 성장 개선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7년에는 선진국의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이 경기확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흥국은 인프라 수요 등을 통한 투자여력이 충분한 가운데 미국 경기의 호조는 신흥국에도 플러스 요인이다. 미국 행정부의 정책은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신흥국은 금융위기가 확산된 1990년대와 비교하여 풍부한 외환보유액으로 위기 도래 가능성이 낮아, 신흥국 자본유출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세계경제 흐름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 세계경제의 2016년 동향과 2017년 전망

■ 브렉시트와 트럼프로 상징되는 정치와 경제의 새로운 변화가 도래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결정과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승리는 사전 예상을 뒤엎는 결과로, 이들 주요 선진국의 정치적 현상은 성장률 저하와 격차 확대, 이민과 해외제품 유입, 해외로의 제조 거점 이전 등 자국 고용과 산업, 나아가 자국 가치관 위협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는 국가 간 투자와 무역으로 세계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2차 세계대전 이후 기존 구도를 뒤흔드는 위협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EU 통합과 북미자유협정(NAFTA)의 의의와 위상을 문제시하는 상황으로도 전개되고 있다.

정치적 리스크 속에서도 세계경제는 2016년 하반기 이후 회복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선진국은 2016년 상반기까지 감속하는 추세가 지속되었지만, 하반기 이후에

* hschoi@kcif.or.kr

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해 경기하강 압력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올랐으며, 미국과 일본도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의 성장률은 3/4분기에 전기비 연율로 1년 만에 2%를 넘어선 3.5%를 나타냈으며, 유로존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은 해외수요 개선을 통해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

중국은 3/4분기까지 전년 동기비 기준으로 3분기 연속 6.7%의 성장률을 나타냈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에 의한 인프라 투자 등이 경기안정에 기여하였다. 아시아 신흥국은 선진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로 성장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상승을 기초로 이전 침체에 빠져 있었던 러시아와 브라질 등이 경기저점에서 탈피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세계경제의 회복세는 다음의 3가지 요인이 견인하고 있다. 첫째,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을 들 수 있다. 선진국은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완화, 신흥국은 재정지출 확대가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신흥국의 자본유입은 전반적인 세계경제 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신흥국은 해외자금을 지렛대로 성장하는 경제모델을 구축했기 때문에 2015년 중반부터 미국의 금리인상 관측으로 자금제약에 직면했다. 하지만 미국경제가 예상보다 가속화되지 않고, 이에 빠른 속도의 금리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6년 1/4분기 이후에는 해외자본 유입이 다시 시작되었다. 2014년 이전의 자본유입 규모를 하회하고 있어도 자본유입 재개만으로 신흥국 경기는 호전될 수 있었다. 셋째, 원자재 가격 상승을 들 수 있다. 원자재 가격은 2011년 정점과 비교하여 2016년 초에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자원소비국에는 비용감소를 통해 경기상승으로 연결되지만, 자원생산국에는 심각한 경기하방 요인이 된다. 2016년 들어 자원가격이 저점을 탈피하고, 이후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셰일 오일 등의 공급 축소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OPEC의 감산합의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원자재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제어되었기 때문에 자원 수출국의 경제성장 여력도 확대되고 있다.

■ 선진국은 미국이 성장을 주도할 전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 미국과 영국의 정치적인 충격이 있었고, 2017년에도 프랑스의 대선, 독일의 총선 등은 여전히 결과에 따라 기존 경제구조를 뒤

흔들 수 있는 주요 정치 변수이다. 다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 기조는 상승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선진국의 경기상황은 미국, 유럽, 일본의 제조업 PMI(Purchasing Manager's Index: 구매담당자지수)의 상승세로 알 수 있는데, 세계경제의 회복세로 수출여건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은 양호한 소득여건을 배경으로 지금까지 상승세를 유지한 가계부문 외에 침체에 빠진 기업도 회복국면으로 접어들어 성장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 중 가장 경기가 양호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트럼프의 당선 이후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감세 효과가 실현되면, 2017년 하반기 이후에는 전기비연율 3%대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미국의 재정확대는 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대선 이전 10년 물 국채금리는 성장기대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채증발도 반영되어 있다. 이에 트럼프 차기 대통령 정부의 출범 이후 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각종 정책이 실시되면, 장기금리의 상승압력이 증대될 소지가 있다. 아울러 연준의 통화정책도 수급 갭이 제로로 근접하고, 물가상승률도 점차 오르면 금리인상을 빠른 속도로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럽과 일본은 경기회복세가 유지되겠지만, 성장률은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이들 지역 모두 미래 불확실성이 불식되지 않고, 내수경기가 고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다만 유럽과 일본의 향후 불안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유럽은 EU 통합의 지속성이 기업의 심리 호전을 기대할 수 없어 투자가 신중하게 전개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가계의 불안이 높아 소비성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유럽과 일본은 대규모 재정지출에 의한 성장여력 확대가 용이하지 않다. 유럽은 역내 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유지라는 공통의 규정 외에 재정수지 흑자국인 독일의 재정지출이 소극적인 편이다. 일본은 정기적으로 경제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방의 재정지출 억제와 건설업계의 일손 부족 등으로 경기부양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과 일본 모두 내수경기의 취약함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 통화정책 완화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일본의 성장 격차는 외환시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일본의 금리 차 확대로 당분간 달러화 강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물론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에는 과도한 강

달러 기조가 용인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완만한 속도의 달러화 강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럽과 일본에서는 저성장과 저물가가 지속되고, 통화정책의 커다란 변경 여지가 낮다. 이로 인해 유로화와 엔화 환율은 현 수준에서 횡보할 것을 보인다.

■ 신흥국 경기는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신흥국은 수요측면에서 3가지 요인이 성장 견인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첫째, 물가하락에 따른 개인소비 확대로, 각국이 채택하는 인플레이션 억제 대책이 비교적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규모 인프라 투자수요가 잠재되어 있는데, 세계은행의 보고서(2015) 추계에 의하면, 2014~20년 동아시아-태평양(중국 제외)의 인프라 투자 필요액은 870억 달러인 반면 실제 투자액은 350억 달러에 지나지 않고 있다. 셋째, 미국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경기의 호전을 들 수 있다.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를 지닌 미국의 성장세 가속은 신흥국 경제에도 플러스 요인이다. 중국의 성장여력이 저하되는 가운데 신흥국 전체적으로 미국 의존도가 다시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2015~16년 성장세가 정체된 자원수출국도 유가 등의 상승이 경기에 호재이다. 유가상승으로 미국의 셰일오일 증산이 시작되어 공급확대에 우려가 있지만, 세계경기 회복으로 수요증가가 이를 상회할 경우에 유가는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여타 원자재 가격에도 같은 추세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자원수출국의 재정수입은 점차 개선되고, 성장률도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흥국의 향후 가장 우려할만한 요소는 자본유출 재연이다. 2016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 미국 금리상승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통화가치 하락과 자본유출의 리스크가 대두되었다. 지금까지 신흥국에서도 통화정책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이 모색되었지만, 앞으로는 자본유출에 대한 경계로 통화정책의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 통화가치 하락폭이 큰 터키와 멕시코 등에서는 자국통화 방어를 위해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하였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지금까지 금리 인하 기조에서 관망세로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되었다. 당분간 신흥국 통화정책은 중립기조에서 긴축 기조로 변경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신흥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은 미국이 급속하게 금리인

상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할 것이다. 신흥국에 금융위기가 확산된 1990년대와 비교하면, 각국의 외환보유액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단기대외부채를 외환보유액으로 보완할 수 없었던 신흥국이 다수 존재했지만, 현재는 단기대외부채보다 훨씬 많은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통화가치 하락폭이 10% 이내로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외화문제로 인한 위기 도래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표 1. IMF의 2017년 세계경제 전망

(단위: 전년대비, %, %p)

	2015년	2016년	2017년
세계	3.2	3.1(0.0)	3.4(0.0)
선진국	2.1	1.6(-0.2)	1.8(0.0)
미국	2.6	1.6(-0.6)	2.2(-0.3)
유로존	2.0	1.7(0.1)	1.5(0.1)
일본	0.5	0.5(0.2)	0.6(0.5)
신흥국	4.0	4.2(0.1)	4.6(0.0)
중국	6.9	6.6(0.0)	6.2(0.0)
인도	7.6	7.6(0.2)	7.6(0.2)
브라질	-3.8	-3.3(0.0)	0.5(0.0)
러시아	-3.7	-0.8(0.4)	1.1(0.1)

주: 2016년과 2017년은 전망치. ()는 이전 전망치와 비교치
 자료: IMF(2016.10)

2. 주요 이슈 점검

■ 중국의 성장 여력 저하

2016년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완화된 이유로는 소형차 감세 조치 종료 전 관련 제품의 수요, 2014년 하반기 금리인하를 통한 주택판매 확대, 경기부양책의 하나인 인프라 투자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정부대책으로 성장세가 감속이 억제되었지만, 경기하방 요인이 높다는 견해는 유효한 편이다. 2017년에는 다음과 원인으로 다시 성장세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기업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서 민간 수요 감속에 제동이 멈추지 않을 우려가 크다. 특히 제조업의 과잉생산 능력으로, 민간 고정자산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실적 악화로 소득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어, 이는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업의 설비투자, 개인소비 모두 경기를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2017년에는 전년의 성장률을 뒷받침한 자동차와 주택의 판매가 정점에 달할 수 있고, 인프라 투자와 소비 지원책이라는 정부 지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부문의 저조가 이를 상회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저하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추세적인 성장둔화 외에 경기가 급속도로 하강할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 가장 큰 우려 요인은 기업의 과잉부채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문제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민간 기업 부채 잔액은 버블기의 일본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과잉부채와 불가분의 관계인 부실채권 잔액도 정부 발표보다 심각한 수준에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위협요인을 빠른 속도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기업부도와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되어 경기하강이 더 가파르게 전개될 우려가 있다. 반면 경기부양을 위해 관련 문제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사례와 같이, 과잉부채와 부실채권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잠재될 소지가 있다. 결국 당국은 성장유지와 구조조정의 균형을 모색하는 정책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중장기 관점에서도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에 의해 세계경제를 견인하는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은 원재료와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이를 가공·조립하여 수출하는 가공무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소재와 부품 등을 중국 내에서 조달 가능한 제품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수입 대체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경제의 서비스화로 제조업의 위상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 2010년 이후 3차 산업의 비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2차 산업 비율은 크게 하락하였다. 이를 통해 상품의 수입의존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상품수입의 소득탄력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실질 GDP 성장률이 6%를 넘고 있어도 해외제품 수요가 예전과 같이 늘지 않게 된 것이다. 중국의 인접국은 2000년 이후 중국의 고성장으로 중국의 의존도가 커졌다. 예를 들어,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서 유발된 부가가치액 중 중국을 통한 수요유발액은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 아시아 국가에서 중국은 생산거점 외에도 수요자로서

위상이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상품 수요 저하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 성장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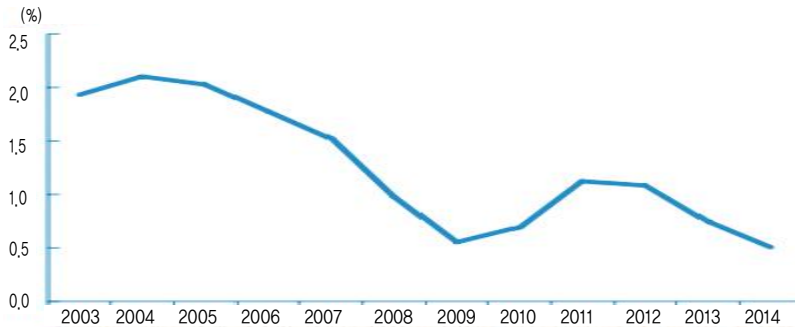
■ 선진국의 노동생산성 하락

선진국의 노동생산성 하락세는 현저하다. 이는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지므로, 성장속도가 가속화되지 않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생산성 하락은 단편적인 요소가 아닌 복합적인 요인으로 초래된 것이다. 우선 산업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의 침체이다. 이로 인한 고용구조 변화가 노동생산성 하락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조업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므로, 노동생산성이 여타 산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생산활동의 부진으로 제조업의 고용이 늘어나지 않았다. 2010년대 고용증가를 주도한 업종은 도소매, 의료보건, 서비스 등이었다. 이들 업종은 노동집약형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으며, 저생산성의 근로자는 임금도 낮은 수준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증가는 각국의 소득격차 문제를 유발하였고, 국민의 불만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다.

다음으로 자본의 질적 저하가 노동생산성 하락의 원인이다. 미국, 유럽, 일본 모두 설비투자에 신중한 편으로, 이는 비금융법인기업의 통계에서도 이들 선진국 모두 저축초과 상태에 있다. 기업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설비투자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금부족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저축초과 상태는 설비투자 억제를 반영한다. 설비투자 정체는 장기화되면, 1인당 자본장비율이 하락하는 동시에 설비도 노후화된다.

여기서 부각되는 문제가 부가가치의 분배 방식이다. 노동생산성이 저하되었으므로, 노동투입량이 확대가 불가피하다. 즉, 기업은 적은 부가가치를 근로자에게 어떻게 분배하느냐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수요가 늘어나면, 임금 상승 압력이 커지므로 당연히 노동분배율도 높아진다. 하지만 노동공급이 줄어들면, 임금을 억제할 수 있어 기업의 몫이 증가하게 된다. 미국, 유럽, 일본의 취업률을 보면, 유럽과 일본은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반면 미국은 고용증가에 따라 취업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2000년 정점 수준을 밑돌고 있어 노동시장의 유향노동력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유럽과 일본은 노동분배율이 상승하기 용이하지만, 미국은 기업수익 확보가 쉬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1. OECD 국가의 노동생산성 상승률 추이(과거 3년 평균)



자료: OECD, Productivity statistics

■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 대중영합주의와 고립주의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저임금 고용과 이민 근로자 증가 등으로, 이로 인해 박탈당한 자국민의 소득 및 고용여건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제품과 노동력 유입이 저소득의 원인이라는 단순한 도식에 호소하는 정치세력이 커지고, 국민의 불만 해소 대상으로서 자유무역과 노동이동의 비난이 거세지게 되었다. 이러한 반세계화 움직임은 영국의 EU 이탈과 미국의 트럼프 당선으로 가시화되었다. 이는 2017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3월 네덜란드 총선과 뒤이은 프랑스 대선, 가을 독일의 총선 등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소지가 높다. 결과에 따라 EU 경제통합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될 수 있으며,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 고조는 미국과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영국의 EU 이탈 협상은 2년이라는 장기전이므로, 당분간 반세계화 관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개별국의 수입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관세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보호무역주의를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역대 미국 정부는 다양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구사했다. 예를 들어, 레이건 정부에서는 일본 등을 대상으로 슈퍼 301조를 발동했고, 2000년대 중반에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對美 수출이 급증한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격화되었다. 당시에는 미국이 중국 제품에 수입관세를 인상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대응조치를 설정했다.

보호무역주의 고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복조치 등을 통해 각국의 무역 마찰 확산이 문제이다. 관세인상은 물론 수입수량 할당 등이 실시되면, 물가상승을 통해 국내 구매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무역규모도 축소된다. 글로벌 공급망이 심화된 상황 속에 보호무역주의 확대는 2개국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중국으로 부품을 수출하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최종제품을 수출하는 거래가 늘어난 상황에서, 미·중간 무역마찰이 격화되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수출경계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등은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절반 이상이 해외수요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에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어도 다수 국가에 마이너스 영향이 전이되고, 나아가 전 세계 성장률이 하락하는 리스크가 될 것이다.

더 우려되는 요인은 무역마찰 외에 미국의 달러화 가치 하락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레이건 전 대통령과 공통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지만, 외환시세에서 두 가지가 주목받고 있다. 첫째, 쌍둥이 적자로, 레이건 정부에서는 국방지출 확대와 대규모 감세에 의해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저축과 투자 균형 관점에서 재정수지 적자 확대는 국내 저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따른 달러화 강세를 통해 쌍둥이 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정수지 적자와 함께 유럽, 일본과 달리 기업부문의 저축 초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금리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는 높은 수준의 달러화 가치 상승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둘째, 구매력 평가로 인한 달러화 가치 상승에 좌우되기 쉬운 구조를 들 수 있다. 외환시세는 단기적으로 금리 차이와 경상수지 등에 좌우되지만, 장기적으로 물가차이를 반영한 구매력 평가가 더 큰 영향력을 지닌다. 향후 국가 간 금리 차이로 인한 여타국 통화 가치 하락이 전개되면, 구매력 평가와의 괴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들은 미국 정부와 산업계의 달러화 강세 불만을 고조시키는 한편 강달러의 시정 요구로 연결될 수 있다. 레이건 정부 당시의 귀결은 플라자 합의였다. 향후에도 미국 정부의 각국에 대한 달러화 가치 수정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 트럼프 미국 신정부의 game changer 여부가 세계경제의 변수

현 시점에서 2017년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이로 인한 미국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정치 상황과 정책변화를 통해 단기적인 변동에 좌우되지 않고, 세계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을 탈피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국에 공통되는 저출산·고령화와 투자 정체, 기술혁신 부족 그리고 그에 따른 생산성 정체 등이 미국 대통령 교체만으로 기본 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적다.

최근 선진국은 투자부진과 신흥국 경제의 경기하락 등을 배경으로 전 세계적인 저성장과 저물가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화정책이 주요 경기부양책이었다. 하지만 대규모 완화 기조를 지속한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자산매입 지속성의 의구심과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폐해에 대한 우려 등으로 통화정책 한계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제기구 등에서는 재정정책 중시 제언을 내세우는 가운데 대규모 재정지출 확장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감세규모는 레이건노믹스에서 실시된 수준을 상회하는 것이며, 해당 규모가 실시되면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통화 및 재정정책의 조류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기적으로 저성장 탈피에도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제정확장정책은 부작용도 수반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레이건노믹스는 재정과 무역이라는 쌍둥이 적자를 확대시켰지만, 트럼프의 정책도 재정수지 적자 확대에 따른 금리상승이 중장기 경기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도한 달러화 가치 상승은 미국 경제는 물론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와 부채문제, 자본유출 등을 통해 신흥국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가 불가피하다.

레이건노믹스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1990년대 이후 미국의 혁신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제고했다는 평가가 있다. 장기성장 정체론이 부각되는 가운데 트럼프 신정부의 제정확장정책과 규제완화가 미국의 생산성 증가를 끌어 올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이를 신정부가 모색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와 같이 트럼프 미국 신정부의 재정확장 노선이 전 세계 통화와 재정정책 흐름을 변화시키면, 세계경제의 성장 촉진제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여 세계무역을 축소시킬 수 있어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 정책이 세계경제에 긍정과 부정적 영향을 내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향후 세계경제의 game changer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7년 외환시장 전망

이진우(GFM(Global Financial Markets) 투자연구소)*

여느 때 같으면 11월 중순 이후는 ‘연말 장세’라 하여 좀 느긋하게 보내기도 합니다만 2016년 연말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모든 시장이 숨 가쁘게 돌아갔 습니다. 최근 경험한 장세를 과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장 자체적인 기대감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측하는 사람도, 직접 거래하는 사람도 모든 것을 안다고 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달라는 좀 더 강해지겠지만 머지않아 급격한 약세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언급되지 않는 원가 치명적 인 이유로 달러가 크게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음을 밝혀둡니다.

1. 외환시장(FX markets) 동향 ...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 달러인덱스 vs CRB 지수

2016년은 이번(異變)의 연속, 상식과 고정관념이 무참히 깨지는 것을 경험한 해 로 기억될 듯하다. 연초부터 불확실성을 지닌 변수로 회자되던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은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는 ‘브렉시트(Brexit)’ 찬성으로 결과가 나왔다. 필리핀에서는 두테르테,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가 하면 브라질, 한국 관련 외신에서는 ‘impeachment(탄핵)’라는 단어를 자주 접해야 했다. “세상 참 많이 달라졌다”라는 탄식 혹은 환호가 끊이지 않는 해였다. 정치적 이번 못지않게 금융시장에서도 이번은 속출하였다. 브렉시트나 트럼프 당선은 예상과 달리 세계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고만고만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 나 싶었던 11월 중순 이후 이른바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기대감 반영 과정에서 미국의 금리가 급등하면서 달러화가 초강세로 도는가 하면 대부분 국가들의 주식시 장도(이머징 제외) 예상외의 강한 상승 랠리를 펼쳤다.

* jopok5298@nate.com

그림 1. 달러인덱스 & CRB 지수 추이



[그림 1]에서 글로벌 달러약세가 시작되었던 2002년 이후를 복기해보자면,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9년에 통과시킨 ‘그램-리치-블라일리 法’으로 인해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들이 마음껏 준동할 수 있었던 7~8년의 세월 만에 온갖 부실과 버블이 터지는 금융위기를 맞았다. 미국발 금융위기임에도 모두가 달러를 못 구해 찢절매는 와중에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 냉엄한 현실을 경험했고, 이후 美 연준(Fed),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인민은행(PBOC) 등 중앙은행들이 펼치는 통화정책에 시장이 먹살 잡혀 끌려간[15] 반대로 시장이 중앙은행들을 압박해 마음껏 즐겼다고 볼 수도 있다] 세월이 이어졌다. 2014년 하반기에 접어들며 주요국 간의 ‘통화정책 다이버전스’[16] 미국은 긴축, 유로존 및 일본은 완화)가 부각되면서 달러는 금융위기 당시를 능가하는 초강세로 돌아서고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폭락세를 거듭한 이후 달러의 고점, 원자재 가격의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인가 싶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달러가치와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중이다.

■ 주요 통화들의 환율 추이 및 실질실효환율 점검

주요 선진국 6개국 통화로 지수화한 달러인덱스는 금융위기 당시의 낙폭에 대한 61.8% 피보나치 조정 레벨을 올라섬으로써 기술적으로는 2002년 이후 달러약

세에 대한 조정(correction) 차원을 넘어 추세(trend)로서의 상승세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하고 있다(‘국제금융시장 동향 및 환율전망’ [그림 11] 참조). 그러나 지금부터의 달러 추가상승은 기술적으로 ‘매도 다이버전스’ 완성 단계라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환율 전망이다. 즉, 2017년에 접어들어서도 달러의 추가 강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으나 결국 깊은 조정 내지 하락추세로의 반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베노믹스와 마찬가지로 트럼프노믹스 또한 본질적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정치적 표퐁리즘 내지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그 과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질지, 그리고 달러강세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뤄질 것인지의 여부는 실제로 확인하는 길 밖에 없어 시장참여자들의 고민이 크다.

그림 2. 유로/달러(EUR/USD) 월간차트



차트 인용: 인포맥스 (12월 30일 현재), 이하 같음

그림 3. 달러/엔(USD/JPY) 월간차트



그림 4. 달러/위안(USD/CNY) 월간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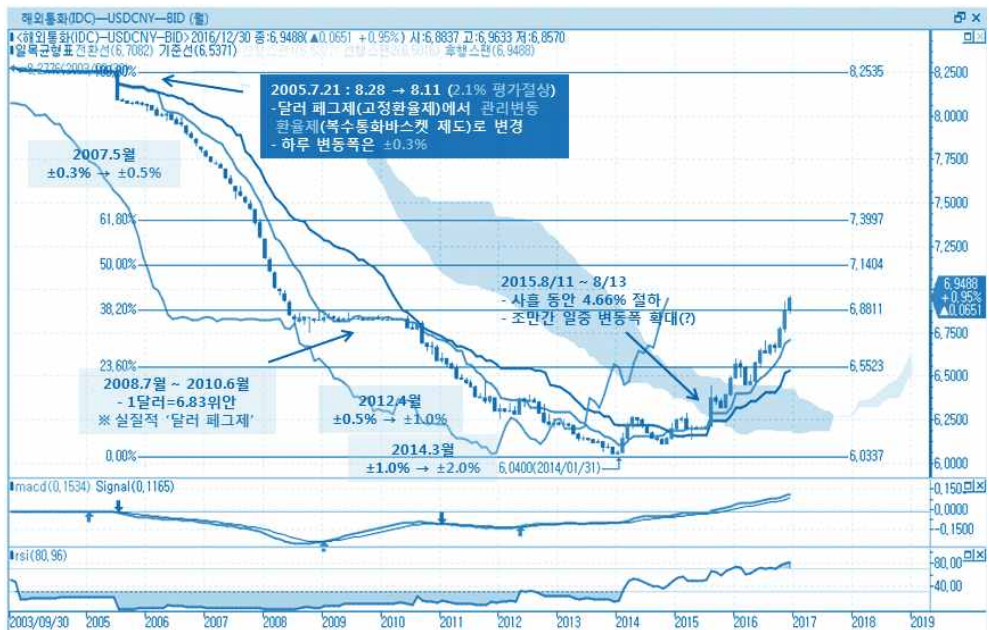


그림 5. 주요 통화 실질실효환율(REER) 추이



유로/달러 환율은 새해 들어 유로:달러가 1:1을 이루는 등가(等價; parity)로 가는지가 관건이다. 4~5월의 프랑스 대선, 그리고 10월에 있을 독일 총선 등을 주목해야 하며, 이탈리아를 비롯한 재정 취약국들이 ECB와 더불어 은행 부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도 주요 변수다. 달러/엔 환율은 ‘트럼프 랠리’에서 막혔던 118.50엔 저항 돌파 여부가 주목된다. 그렇게 해서 2~3개월 양봉이 추가되면 MACD 오실레이터가 음(-)에서 양(+)의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125엔 전고점도 노릴 수 있는 장세가 전개될 수 있다. 물론 새해 들어 바로 꺾이면(그럴 개연성도 충분하다) 올라올 때와 다름없이 매우 급하고 황망한 달러/엔 하락세가 금세 100엔 공방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

위안화의 경우 트럼프 취임(1/20) 이후 과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중국 내 복잡다단한 상황 때문에 최근의 위안화 약세를 자본이탈 심화로 설명하는 시황이 많은데, 어쨌든 중국 당국도 내심 각오하고 있다는 7.35위안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림 5]에서 도출되는 확실한 결론은 위안화는 좀 더 약세로 갈 여지가 충분하고 엔화는 아직도 여전히 싸다는 것이다.

2. 답(答) 없는 시장... 환율 예측의 어려움

■ 엔화에 대한 전망의 경우... 90엔 vs 130엔

“예측은 틀리기 위해서 한다!”..... 생산관리 시간에 ‘예측(forecasting)’이라는 챕터에 들어가면서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필자가 대학 시절 수업시간에 들었던 내용 중 가장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구절이다. 그리고 답(答)이 있을 수 없는 시장에서 예측은 틀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림 6]에는 도쿄 외환시장에서 최고로 꼽히는 두 명의 외환 애널리스트가 달러/엔 전망을 두고 극명한 대립을 이루고 있음을 보도한 블룸버그 기사를 요약하고 있다. JP모건의 사사키 토루는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에 근거한다. 반면에 노무라 홀딩스의 이케다 유노스케는 통화정책 괴리에 따른 국가 간 금리격차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또한 미국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양털 깎기’를 의식하고 있는 듯하다.

그림 6. 엔화를 두고 극단적으로 갈리는 전망



■ 원화에 대한 전망의 경우 ... 1,300원 vs 1,100원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국가다. 2016년 들어 10월까지 819.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2012년 3월 이후 56개월째 연속 흑자다(☞ 2014년 894.2억 달러, 2015년 1,059.6억 달러). 이것은 참 좋은 현상이고 한국 경제의 분명한 강점이다. 환율이 오로지 외환 수급(需給)만을 반영한다면 이런 상황 하에서는 원화는 강세가 불가피하다. 경제학 교과서에서 무위험 자산(risk-free asset)이라고 가르치는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10년물의 경우 2.48%에 달하는 와중에 한국의 국고채 10년물 수익률이 美 국채보다 낮은 2.074%에 그치고 있다. 환율이 오로지 국가 간 금리격차만 반영한다고 하면 달러는 원화에 대해 초강세를 보이면서 한국에서는 외국자금의 이탈을 우려해야 한다. 그러나 주가나 금리, 환율 같은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치가 않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이탈리아 정부가 발행한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미국보다 낮은 1.811%이고 JGB(일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중앙은행이 적극 통제(☞ 라고 쓰고 조작이라 읽는다.)에 나서 0% 부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환율 예측은, 아니 모든 금융시장 가격에 대한 전망은 이처럼 어렵다. [그림 7]은 해외 IB들이 최근 내놓은 달러/원 전망치를 정리한 것이다. 대체로 2017년에는 1,200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3분기 전망치의 경우 상단과 하단이 각각 1,300원과 1,1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여 달러/엔 전망과 다를 바 없다. 다만 2018년 중간 값이 1,170원대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필자의 경우 정말 환율 급등을 경계해야 할 때는 오히려 2018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7. 해외 IB들의 달러/원 전망치

	Q4 16	Q1 17	Q2 17	Q3 17	2018
중간값	1,200	1,204	1,210	1,208	1,170
평균	1,197	1,207	1,204	1,204	1,183
고	1,260	1,280	1,275	1,300	1,350
저	1,150	1,135	1,118	1,100	1,098
☞ “예측은 틀리기 위해서 한다!”					

3. 시나리오 별 대응이 불가피한 2017년

■ '트럼프노믹스'의 실체와 효과는?

환율 예측은 항상 어렵다지만 유난히 2017년 전망이 험겨운 것은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더욱 불확실성을 드리우기 때문이다. [그림 8]에서는 앞으로 적어도 4년은 갈 트럼프 행정부의 각료와 백악관의 주요 참모진들의 면면을 볼 수 있다. 국무장관에는 엑슨 모빌 CEO를[렉스 텔러슨], 재무장관[스티브 므누신]과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에[게리 콘] 골드만 삭스 출신을, 상무장관[윌버 로스]에 로스차일드 출신을 임명하면서 기존의 정치판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신선하면서도 걱정스러운 충격을 몰고 온 트럼프는 국가무역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대중(對中) 강경론자로 유명한 피터 나바로 교수를 지명하고 보수 없이 일하는(☞ 그러나 알량한 공직자 보수 이상으로 폐돈을 벌 수 있는) 규제 완화 특별 보좌관에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진 억만장자 칼 아이칸을 앉히면서 바람 잘 날 없는 향후 4년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림 8. 트럼프 행정부를 이끌어 갈 사람들



경제적으로는 크게 성공했지만 정치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로 가득 찬 워싱턴에 로비나 해야 했던 억만장자 뉴요커들을 대거 입성시키는 트럼프..... 그를 비롯해 그의 참모진들이 남은 여생을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특히 어렵게 사는 국가나 그 나라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열심히 뛰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천진무구한 생각일지 모른다. 저들은 좁게는 자신들의 이해(利害)를 위해, 조금 크게 봐준다면 오로지 미국을 위해 어떤 정책이라도 펼치고 어떤 법안이라도 통과시킬지 모를 사람이다. 트럼프는 진정 취임 이후 멕시코 국경 지역에 장벽을 세울까? 1조 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 인프라 투자는 착착 추진될 것인가? 그 돈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정말 중국산 제품에 30%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시장은 당장 위안화를 달러 대비 30% 절하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미국인들은 중국산이 아닌 미국 제품을 값싸게 쓸 수 있을까? 아니, 중국산이 아닌 미국산(☞그들에게는 국산이다.) 제품을 구하기는 구할 수 있을까? 시장을 아예 만들어간다는 평을 듣는 골드만 삭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 이후 얼마나 마음대로 시장 가격을 주물럭거릴까?

■ 환율 전망을 위해 살펴야 할 변수들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의 실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평생을 정치로 산 사람들로 가득 찬 의사당이나 석학(碩學)들로 채워진 연준에 맡겼더니 안 되던 일도 부동산 개발업자로 성공하여 미국 대통령에 오른 사람에게 맡겨 기대치 않았던 큰 성과를 거둘지도 모를 일이지만, 필자는 대중의 감성을 파고드는 재주 하나는 기막힌 그의 유세 과정에 열광했던 미국인들이 얼마 못 가 실망하고 자신들의 선택을 저주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2016년에도 선부른 예측이나 전망은 다 헛발질에 그쳤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림 9]에는 국내외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을 정리했다. 각각 어떻게 움직이면 환율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식적 차원에서 적어 보았으나, 이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음도 밝히고 간다.

그림 9. 환율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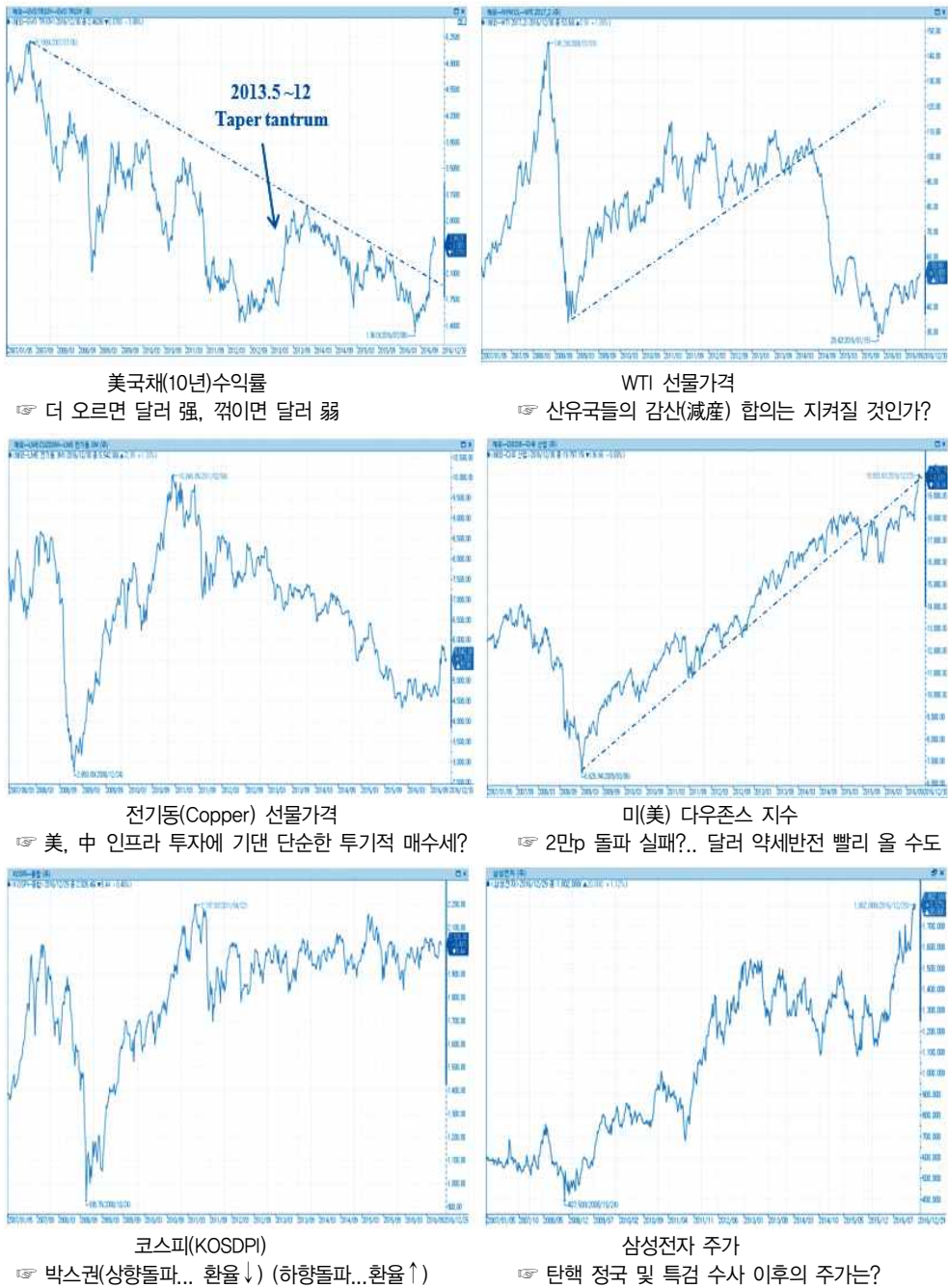


차트 인용: 인포맥스 (12월 30일 현재), 최근 10년 간 흐름

4. 달러/원(USD/KRW) 환율 전망

■ 상대적으로 강한 원화 & 혼란이 가중될 국내 정국

8~9월만 하더라도 1,100원을 하회하던 달러/원 환율이 3개월 만에 1,200원을 돌파하며 2016년을 마감하였다. 환율이 크게 올랐다, 즉 원화가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할 만하다. 그러나 환율은 항상 상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그림 10]은 주요 통화들의 달러 대비 절하율이다. 5년의 세월이면 수급, 통화정책, 지정학적 위험 등 어지간한 환율 변동 요인들은 다 어우러져 녹아들어 있다고 볼 만하다. 그런데 우리 원화가 이 표에서는 달러 대비 절하율이 가장 낮다. 즉, 원화는 다른 주요 통화들에 비해 강한 편이고, 이는 곧 원화의 추가 절하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국격(國格)을 추락시키고 국민들의 멘탈을 붕괴시키고 있는 작금의 국내 정치 상황도 상식적으로는 원화에 약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1,245원을 찍었던 2월 29일 달러/위안 환율이 6.55 정도였는데 1,207.70원 연말 종가를 기록할 당시 달러/위안은 6.95를 가리키고 있다. 이래저래 1,200원대 초반 환율은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운 셈이다.

그림 10. 주요 통화들의 5년간 달러 대비 절하율 비교

상대 통화	USD	사용자	2011/12/27	2016/12/27	Real	1x10	종목차트	?
기준 통화	동락률	사용자	기준가	현재가	대비			
USD								
EUR	-20.07		1.306700	1.044500 ▼	-0.262200			
JPY	-33.63		0.012844	0.008524 ▼	-0.004320			
KRW	-4.04		0.00086296	0.00082809 ▼	-0.00003487			
GBP	-21.68		1.557020	1.227220 ▼	-0.339800			
CHF	-9.11		1.070549	0.973047 ▼	-0.097502			
AUD	-29.27		1.015600	0.718300 ▼	-0.297300			
CAD	-24.68		0.981547	0.739317 ▼	-0.242230			
CNH	-9.01		0.157953	0.143728 ▼	-0.014225			

인용: 인포맥스

■ 월간 적삼병(赤三兵)...‘强-弱-强’ 흐름 재현될 듯

술한 불확실성과 경우의 수가 기다리고 있는 2017년의 환율 전망도 2016년과 같은 ‘연초 상승 - 연중 하락 조정 - 연말 추가 상승’으로 가닥이 잡힌다. 기술적

으로도 [그림 11]에서 보듯이 1,100원이 일시적으로 깨지는 과정에서 결집된 이동 평균선들의 지지력을 확인하였고, 특히 10 ~ 12월 3개월 동안의 상승으로 월간 차트에서 적삼병이 출현한 것이 눈길을 끈다. 1차적으로 1,245원 전고점 저항에서 막히면서 단기 급등에 이은 하락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나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고점과 2009년 금융위기 당시의 고점을 연결한 장기 하락 추세선을 테스트하는 장세가 연말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1,300원 돌파 이후 1,200원대로의 회귀가 빨리 이뤄지지 않거나 그 시점에 이르러 환율이 수직상승의 양상을 띠게 된다면, 그 배경은 무엇이건 간에 중앙은행들의 지원 하에 태평성대를 누렸던 이머징 국가들이 크게 털리는 시기로 접어들게 됨을 각오해야 할 듯하다.

그림 11. 달러/원(USD/KRW) 월간차트



2017년 국제유가 전망

- 리밸런싱(Rebalancing)에 따른 저유가 기조 종료 가능성 -

오정석(국제금융센터 팀장)*

‘16년 국제유가는 3년 만에 상승했다. 연초에는 13년래 최저치인 26달러까지 하락했으나 예상치 못한 생산차질로 6월초 50달러를 회복했고 하반기에는 OPEC과 러시아 등의 전격적인 감산합의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7년 국제유가는 리밸런싱, 즉 수급이 균형에 근접하면서 상승세가 예상된다. 공급이 작년보다 회복세를 나타내겠지만 수요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공급과잉의 해소가 기대된다. 다만 세일밴드효과로 유가 상승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한편 내년에도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에서의 상방과 하방 리스크가 적지 않아 전반적인 유가의 상승흐름 속에서 단기적으로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빈발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국제원유시장 구조상 유가가 2000년대 중반과 같은 빠른 상승세를 나타내지는 않겠지만 약세기조의 종료는 인플레이션 압력의 증대 및 또 다른 패러다임 형성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제적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2016년 동향

■ 상저하고 패턴을 나타내며 3년 만에 상승 전환

2014~2015년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던 국제유가는 2016년 마침내 반등에 성공했다. 연초인 2월 26달러(WTI 기준)까지 떨어지며 13년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이후 캐나다 오일샌드지역의 대규모 산불과, 반군의 석유시설 공격에 따른 나이지리아 생산차질 등으로 수급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며 6월초 50달러로 반등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40~50달러 박스권을 유지하였으나 9월 중 OPEC과 러시아 등이 예상과 달리 전격적인 감산을 발표하고 11월말 회원국별 감산 규모를 확정하면서 50달러를 넘어섰다. OPEC은 금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일일 120만 배럴

* jsoh@kcif.co.kr

을 줄일 예정인데 사우디(48.6만 배럴), 이라크(21만 배럴), UAE(13.9만 배럴), 쿠웨이트(13.1만 배럴) 등 4개국의 감산량이 전체의 81%에 달한다. 정정불안이 심한 나이지리아와 리비아는 감산에서 제외되었고, 지난해 초 서방의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은 증산이 허용되었다. 러시아 등 비OPEC은 55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는데 러시아(30만 배럴), 멕시코(10만 배럴), 오만(4만 배럴) 등의 순으로 감산규모가 크다.

대표적 기준유종인 WTI는 12/16일 기준 배럴당 51.04달러로 전년말보다 40.1% 상승했으며 아시아 및 유럽 대표유종인 두바이유와 브렌트유는 각각 50.73달러, 55.21달러로 57.9%와 48.1% 상승했다.

그림 1. 국제유가(WTI) 추이



2. 2017년 국제원유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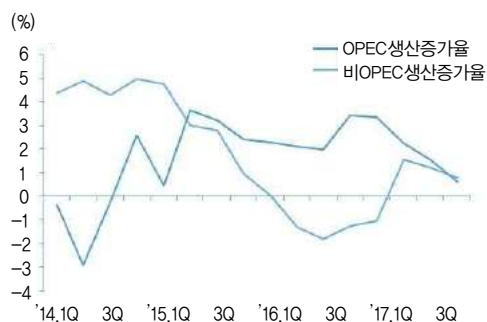
■ 기본시나리오: 수급균형(리밸런싱)으로 유가는 완만한 상승

美 에너지정보청(EIA)은 2017년 세계 원유수급이 하반기 중 균형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한다. 공급이 작년보다 회복세를 나타내겠으나 수요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해 2014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공급과잉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먼저 공급측면을 살펴보면, 비OPEC 생산의 증가세 전환과 OPEC 증산기조의 지속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비OPEC 생산은 작년에 일일 63만 배럴(-1.1%) 감소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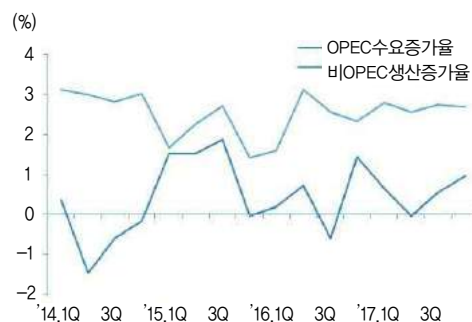
으나 금년에는 미국 생산회복에 힘입어 일일 35만 배럴(+0.6%)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원유생산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9.6% 증가하며 세계 1위 생산국으로 올라섰으나 지난해에는 저유가의 여파로 8년 만에 감소한 바 있다. OPEC 생산은 지난해에 일일 78만 배럴(+2.5%)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금년에도 감소가 상반기에만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일일 38만 배럴(+1.2%)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OPEC의 비원유(non-crude) 생산 역시 2015년 일일 10만 배럴, 2016년 20만 배럴, 2017년 31만 배럴 등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 원유생산은 지난해보다 일일 104만 배럴(+1.1%) 늘어난 9,718만 배럴로 예상된다.

그림 2. OPEC 및 비OPEC 생산 증가율



자료: EIA

그림 3. 선진국 및 신흥국 수요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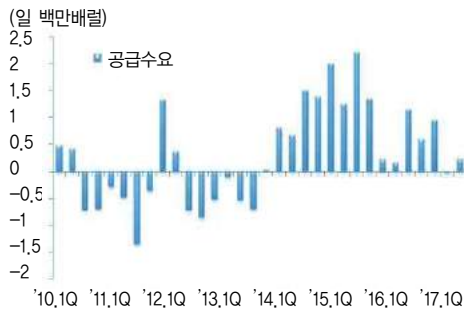
자료: EIA

세계 수요는 신흥국과 미국의 주도로 견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신흥국 수요가 일일 115만 배럴(+2.4%) 늘어난 가운데 OECD는 21만 배럴(+0.5%)로 부진해 전체적으로 136만 배럴(+1.4%) 증가했는데, 금년에는 156만 배럴(+1.6%) 늘어나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OECD는 25만 배럴 늘어나겠으나 이 중 미국(+24만 배럴, +1.2%)의 기여도가 절대적이며, 신흥국은 132만 배럴(+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금년 세계 공급초과 규모는 상반기 중 일일 78만 배럴을 기록한 후 하반기에는 9만 배럴로 축소돼 수급이 균형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분기에는 '14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공급부족(일일 3만 배럴)이 예상된다. 수급균형을 배경으로 유가는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가가 상승하면 미국 셰일업체들의 생산이 늘어나 궁극적으로 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셰일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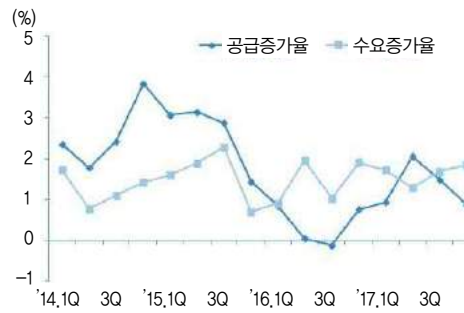
드효과(Shale-Band Theory)와 달러강세 등으로 60달러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림 4. 세계 원유수급 차이



자료: EIA

그림 5. 세계 공급 vs. 수요 증가율



자료: EIA

표 1. 주요 기관 유가 전망(WTI 기간평균, \$/배럴)

	'16. 1H	3Q	4Q	'17. 1Q	2Q	3Q	4Q	'16	'17
EIA	39.8	44.9	48.2	49	49	51	53.7	43.1	50.7
Citi			49	49	52	58	62	43	55
Barclays			51	55	60	56	52	44	56
BoA			54	55	69	59	64	44	59
SC			55	59	65	68	70	46	66
SG			48.3	51	53.5	56	58.5	43.1	54.8
GS					55		50		52.5

주: 각 기관의 12월초 전망치

■ 약세시나리오: 리밸런싱 무산, 공급과잉 지속 및 유가 약세 재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말 OPEC과 러시아 등은 일일 175만 배럴의 감산에 전격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세계 생산량의 1.8%에 해당하는 규모로 글로벌 공급과잉을 해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OPEC 회원국 간 신뢰가 부족해 감산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Goldman Sachs에 따르면 1982~2009년 17차례 감산에서 OPEC의 감산 이행률은 60%에 불과했으며,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증산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지난 11월말 합의에서 이란에 실질적인 증산 허용 ▲나이지

리아 및 리비아 감산 면제 ▲탈퇴한 인도네시아 생산량 미반영 등으로 감산 실효성도 떨어질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러시아도 과거 감산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 1월 생산량 데이터에서 감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산유국들은 증산 및 시장점유율 경쟁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림 6. OPEC 생산목표 및 실제생산



자료: Bloomberg

그림 7. 미국 시추기 및 미완결유정



자료: EIA

시추기 증가와 미완결유정 감소 등 미국의 원유생산 회복세가 가속화될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원유생산에 통상적으로 4~6개월 선행하는 시추기(oil rig)는 지난해 5/27일 316기를 저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어 12/16일에는 510기로 11개월 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추는 완료했지만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은 미완결유정(drilled but uncompleted wells, DUCs)은 작년 1월 5,553개에서 11월 5,219개로 감소했고,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정책도 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는 선거과정에서 국내 원유 시추 및 생산 활동 강화, 북극해와 걸프 만 등에서의 시추활동 허용, 환경 관련 논란 대상인 수압파쇄법의 지지 등을 약속한 바 있어 미국 원유생산 촉진의 계기가 될 것이다.

반면 세계 수요는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 Fed는 1년 만에 금리인상을 재개했고 금년에 3~4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했으며, 이에 따라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이탈리아 등 유럽계 은행불안,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 가능성 등도 불안을 초래할 요인들로 지목된다. 3%대 세계경제 성장률을 가정한 원유수요 전망이 빛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

는 대목이다. 1998~1999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및 러시아 모라토리움, 2001년 IT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 또는 위기가 확산되던 당시 EIA 등 주요 기관들은 수요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바 있다.

그림 8. WTI vs. 달러인덱스 상관관계



자료: Bloomberg, KCIF

그림 9. WTI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자료: CFTC

리밸런싱이 실패하여 글로벌 공급과잉이 지속된다면 유가는 약세 재개가 불가 피할 것이다. 금융자금의 매도공세가 강화된다면 단기적으로 급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 WTI 선물옵션의 비상업거래자 매수포지션은 12/13일 현재 60.8만 계약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공급과잉 해소가 무산되어 비상업거래자들이 매수포지션을 대거 청산하고 신규 매도포지션 구축에 나설 경우 유가는 셰일밴드 하단을 일시적으로 하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 강세시나리오: 공급부족 전환, 유가 강세국면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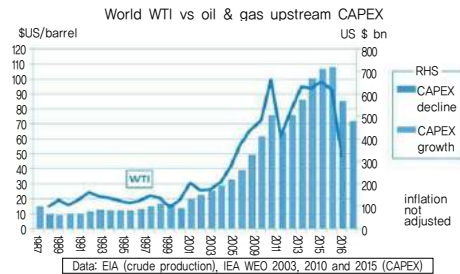
강세시나리오는, 주요 산유국들의 생산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둔화되는 반면 수요는 회복세가 가속화되어 세계수급이 공급부족으로 전환되는 경우이다. 공급측면에서, OPEC과 러시아 등 국가경제에서 석유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유가 상승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감산을 성실히 이행하고 감산기간도 금년 하반기로 연장할 유인이 충분한 상황이다. 지난 11월말 감산합의가 없었다 해도 증산여력이 거의 없어 생산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

그림 10. OPEC 증산여력



자료: IEA

그림 11. 글로벌 상류부문 자본지출 추이



자료: Rsilience.org 인용

OPEC을 예로 들면, 지난 2년간에 걸친 생산경쟁으로 생산은 2015년 1월 일일 3,031만 배럴에서 2016년 10월 3,289만 배럴로 8.5% 증가했으나 생산능력은 3,381만 배럴에서 3,521만 배럴로 4.1% 늘어나는데 그쳐 증산여력이 350만 배럴(세계수요 대비 3.7%)에서 232만 배럴(세계수요 대비 2.4%)로 축소되었다. 일정 수준 여유생산능력을 보유하려는 정책적 특성을 감안하면 OPEC에는 추가로 생산을 늘릴만한 여력이 없으며,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나 설비 유지보수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생산 감소가 불가피함을 보여준다. 비OPEC도 사정이 비슷하다. 2015년과 2016년 상류부문(upstream)에 대한 투자가 각각 26%와 22% 급감해 생산회복 속도가 제한되고 유가 상승 시 탄력적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수요는 운송용 연료부문을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가 기대된다. 지난해 1~10월 중국과 인도의 자동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5%와 13.1% 증가하며 전년도 증가율(中 +7.2%, 印 +3.6%)을 크게 상회했는데, 차량판매 증가는 휘발유 및 경유 등 운송연료 수요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전기자동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운송연료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전체 차량에서 전기차의 비중이 미미해 아직은 그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 하겠다.

중국의 전략비축유(SPR) 확대정책도 수요회복에 긍정적 요인이다. 중국의 지난해 1~11월 중 원유수입은 전년보다 14% 증가했는데, 상당 부분이 전략비축유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장시설의 완공과 더불어 SPR 확대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과 관계없이 중국의 원유수입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대로 감세 및 대규모 재정지출을 시행하면 미국도 전반적인 소비부름 속에서 원유수요가 동반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2. 중국 및 인도 자동차판매 증가율



자료: Bloomberg

그림 13. 미국 연간 원유수요



주: '16년은 12월초까지 수요.

자료: EIA

이런 상황에서는 세계 원유수급은 공급부족으로의 전환이 확실시 되며, 그 시기 도 하반기가 아닌 상반기 중이라도 가능해 보인다. 원유생산이 유가에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전제 하에 수요회복 속도 및 폭이 공급부족 규모를 좌우할 것으로 보 여 글로벌 원유시장의 핵심 이슈가 공급에서 수요로 옮겨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강세시나리오에서는 금융자금의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 가 상승과 금융자금 유입 증가가 순환적으로 반복되면 유가가 셰일밴드 상단을 돌 파하는 오버슈팅이 초래될 것이다.

3. 종합평가

■ 글로벌 저유가 기조의 종료 가능성. 인플레이 압력 증대 우려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공급 증가세 둔화 및 수요회복 등으로 금년에는 글로벌 공급과잉이 축소 또는 해소되고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장기 유가 약세 국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제원유시장 구조상 유가 가 2000년대 중반과 같은 빠른 상승세를 나타내지는 않겠지만 약세기조의 종료는 또 다른 패러다임의 형성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우리 산업계와 정부는 선 제적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OPEC의 위상 강화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유가 및 생산경쟁 등으로 그동안 OPEC은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영향력이 쇠퇴하였으나, 감산합의가 제

대로 이행되고 유가가 강세로 돌아서면 영향력도 회복될 것이다. 다만 이번에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OPEC은 급속히 쇠락하고 사우디와 이란을 중심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편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는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유가 상승이 수요견인(demand-driven)이 아닌 공급견인(supply-driven)에 의한 경우 경기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오름세만 확대될 수 있어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강세 및 약세 요인의 혼재로 유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시나리오 외에 강세 및 약세시나리오도 존재하며, 전반적인 유가 상승흐름 속에 두 시나리오가 반복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 단기적으로 유가의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빈발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변동성 확대는 원유선물시장에서 금융투자자 등 투기세력들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표적 선물시장인 뉴욕상업거래소(NYMEX)와 대륙 간 거래소(Intercontinental Exchange, ICE)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7년 곡물 해상운임 전망

정영두(캠코선박운용 차장)*

금년 US Gulf 곡물 운임은 용선료와 연료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작년 대비 소폭 하락한 톤 당 '\$28.2'선을 기록하였으며, 연 초에 '\$20'선에 근접한 뒤 하반기 들어 상승세가 나타나며 12월 현재 '\$38.5'선을 기록하고 있다.

금년 건화물선 시황은 지난 2월에 건화물선 운임 지수가 '290 pt'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뒤 점차 상승세가 나타나며 11월 들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다. 금년 초 건화물선 시황이 극심한 약세를 보였던 원인은 작년 말 브라질의 철광석 광산의 댐 붕괴사고로 인해 철광석 물동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상태에서 1분기에 선박의 신조 인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후 극심한 시황 약세에 따른 여파로 선박 해체량이 빠르게 증가한 동시에 3분기 이후 석탄을 중심으로 원자재 가격이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중국의 철광석과 석탄 수입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점진적인 회복세가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건화물선 선박의 신조 인도량이 감소하며 선박 증가율인 금년 대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물동량 증가율은 금년 보다 높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금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본격적인 시황 회복이 나타나기에는 수요 증가세가 다소 미약해 보인다. 한편 최근 들어 강화 되고 있는 선박관련 환경규제들은 선박 해체를 촉발하는 요인이 되며 해운산업 구조를 재편할 큰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내년 곡물 운임은 US Gulf 기준으로 금년 대비 소폭 상승한 톤 당 '\$30'로 전망된다. 2015년 이후 공급 증가율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부진이 곡물 운임 상승을 제한하고 있으나 내년 원자재 가격의 강세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중국의 철광석과 석탄 수입이 빠르게 증가할 경우 곡물 운임 상승 폭이 커지며 변동성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시황 변동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 ydjung@kamcosimc.com, 051-660-5521.

1. 곡물 해상운임 추이

금년 미국 동부 지역에서 선적하여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여 일본에서 양하하는 약 50,000톤 곡물운임(이하 USG 곡물운임)의 평균값은 톤 당 '\$28.2'으로 예년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서부 타코마 항에서 선적하여 중국에서 양하하는 60,000톤 곡물 운임은 전년 대비 톤 당 '\$1.2' 하락한 '\$14.9'선을 기록하는 한편 남미지역 브라질의 산토스 항에서 선적한 뒤 남아프리카와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중국에서 양하하는 60,000톤 곡물 운임은 작년에 비해 톤 당 '\$4.3' 하락한 '\$17.8'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Clarkson'은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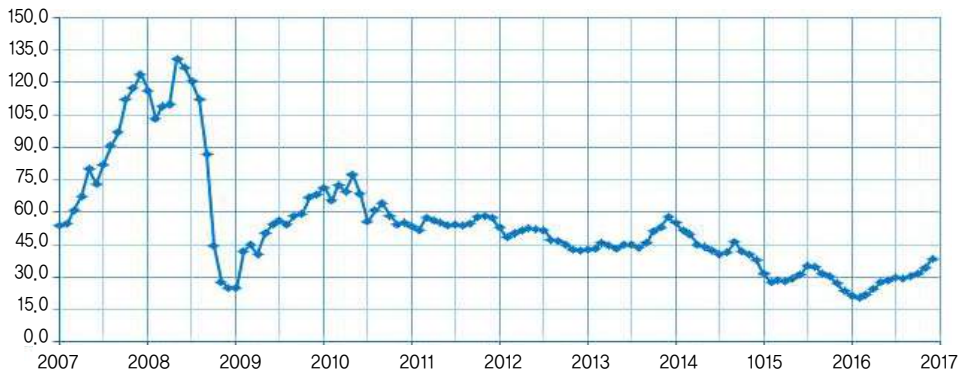
표 1. 월별 곡물 해상운임(USG/Japan) 추이

(단위: US\$/Ton)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7	54.0	54.8	61.0	67.0	80.0	73.0	82.0	90.7	96.9	112.0	117.4	123.9
2008	116.3	103.0	109.1	109.8	130.9	127.0	120.5	112.0	86.8	44.5	27.8	24.9
2009	24.8	42.0	44.8	40.6	50.3	64.3	56.2	54.5	58.3	59.3	66.8	68.3
2010	71.4	65.4	72.6	69.5	77.4	68.5	55.6	60.9	64.0	58.5	54.5	55.0
2011	53.3	51.6	57.6	55.9	55.3	53.8	54.4	53.8	54.6	57.9	58.1	57.2
2012	52.9	48.5	50.5	51.5	52.6	51.9	51.8	47.4	46.9	45.2	42.6	42.1
2013	42.8	43.3	46.0	44.5	43.3	44.9	44.8	43.8	45.8	51.3	53.1	57.8
2014	55.1	51.5	49.8	45.1	44.0	42.3	40.4	41.5	46.5	41.9	40.6	38.0
2015	31.5	27.6	28.6	28.1	29.6	31.0	35.3	34.9	31.7	30.5	27.0	23.5
2016	21.4	20.4	21.6	24.4	27.8	28.6	29.7	29.6	30.3	31.6	34.1	38.5

자료: Clarkson

그림 1. 월별 곡물 해상운임(USG/Japan) 추이



자료: Clarkson

금년 월별 곡물 운임을 살펴보면 USG 곡물 운임을 기준으로 2월에 가장 낮은 톤 당 '\$20.4'선을 기록한 뒤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났고 9월 들어 미국의 신곡 수출 효과로 '\$30'선을 넘어선 이후 12월 현재 연중 최고치인 '\$38.5'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년 곡물 운임이 약세를 보였던 원인은 올 해 건화물선 운임 지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용선료 약세와 더불어 원자재 시장에서 원유 공급 증가 및 이에 따른 연료유가 약세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며 철광석과 석탄 운임 또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 건화물선 시황 변동 추이

금년 현재까지 건화물선 운임 지수의 평균값은 전년 대비 7% 가량 낮은 '665 pt'를 기록하고 있다. 용선료 기준으로 보면 약 17만 톤급의 Cape 선형의 금년 용선료 평균값은 전년 대비 9% 하락한 일일 '\$6,365'를 기록 중이며 7만 톤급 Panamax 선형의 경우 작년과 거의 비슷한 '\$5,494', 5만 톤급 Supramax 선형은 12% 하락한 '\$6,133'선을 기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철광석과 석탄을 주로 운송하는 Cape 용선료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곡물과 철강 제품을 운송하는 Supramax 선형 또한 금년에 신조 인도가 크게 증가하며 용선료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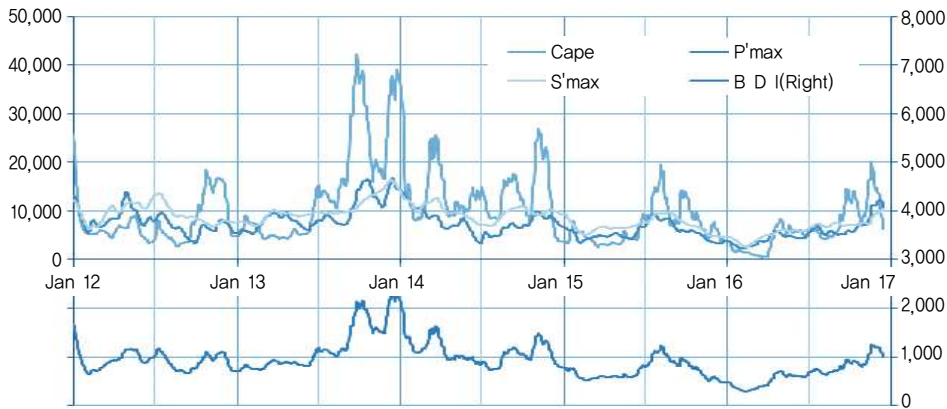
표 2. 건화물선 시황 변동 추이

(단위: US\$/Day)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Cape 용선료	7,680	14,580	13,800	6,997	6,365
P' max 용선료	7,684	9,472	7,718	5,561	5,494
S' max 용선료	9,453	10,275	9,818	6,966	6,133
건화물선 운임지수	920	1,206	1,105	718	665

자료: Baltic Exchange

그림 2. 건화물선 시황 변동 추이



자료: Baltic Exchange

한편 금년 2월에는 건화물선 운임 지수가 사상 최저치인 '290 pt'까지 하락한 뒤 11월 들어 '1,000pt'선을 회복하는 등 금년 건화물선 시황은 상고하저(上高下低)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반기까지 누적된 과잉 공급의 영향으로 시황 하락 압력이 높았으나 하반기 들어 해체 증가 및 중국의 원자재 수입 증가세 등이 나타나며 극심한 수급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작년에 중국의 석탄 수입이 크게 감소한 이후 금년에도 감소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연 초에 전망하였으나 금년 들어 중국 정부가 강력한 석탄 산업 구조 조정에 들어가면서 채굴량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한 것이 하반기 들어 시황 상승 압력을 높였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3. 2017년 건화물선 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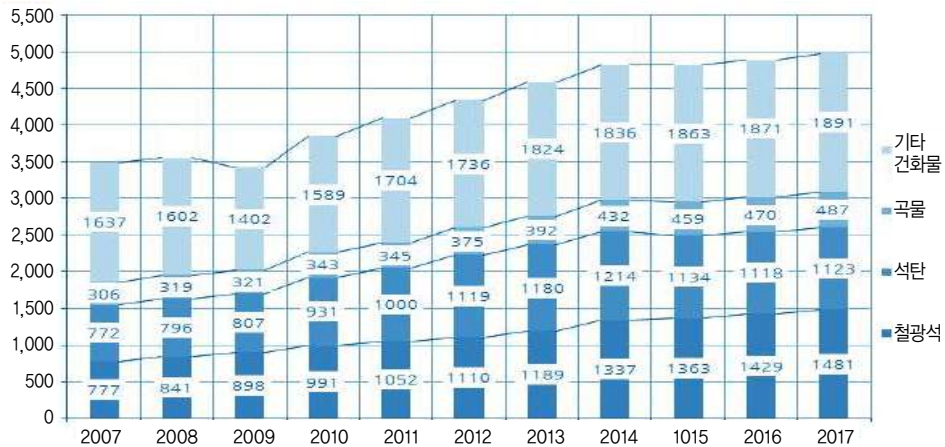
2016년 건화물 물동량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약 '48.9억 톤'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작년 물동량 증가율이 '0%'를 기록했음을 감안하면 증가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다.

주요 화물별로 보면 건화물 물동량 중 단일 화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광석 물동량이 금년에 '4.8%' 증가한 '14.3억 톤'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도 증가율인 '1.9%' 대비 증가 폭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하반기 들어 중

국의 국내 철광석 생산이 감소하면서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에도 이러한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Clarkson’은 내년 철광석 물동량이 금년 대비 ‘3.6%’ 증가한 ‘14.8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연간 건화물선 물동량 추이와 전망

(단위: 백만 톤)



자료: Clarkson

석탄의 경우 금년 물동량이 작년 대비 ‘1.4%’ 감소한 ‘11.1억 톤’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물동량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으나 작년 물동량 감소율이 ‘6.6%’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감소폭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동량 감소의 주요 원인은 유럽 지역에서 대기 오염 규제가 강화되며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이 급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유럽 지역의 수입량 감소분을 중국의 석탄 수입 증가세가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 내년 석탄 물동량은 금년 대비 ‘0.4%’ 증가한 ‘11.2억 톤’으로 전망되며 여전히 중국의 수입 증가세가 계속되는 반면 유럽 지역은 감소세가 예상되고 있으며 또 다른 주요 석탄 수입국인 인디아 또한 국내 채굴량 증가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대두를 포함한 곡물 물동량은 ‘4.7억 톤’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에도 물동량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며 ‘4.9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곡종 별로 보면 대두 물동량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맥과 잡곡 물동량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곡물 수입량이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중남미를 포함한 미주 지역은 수입

증가세가 예상된다.

상기 3대 주요 건화물(철광석, 석탄, 곡물)을 제외한 기타 화물의 경우 금년 물동량이 전년 대비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물동량은 금년 대비 '1.1%' 증가할 전망이다. 원당, 대두박, 황(Sulphur), 시멘트 등의 물동량이 증가하는 반면 비료, 공업용 소금, 니켈 등은 감소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철광석과 곡물 물동량이 전체 물동량 증가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석탄 물동량이 운임 변동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금년 말 들어 나타나고 있는 석탄 가격 상승세와 이로 인한 중국의 재고 비축 현상이 다시 나타날 경우 수요 증가율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2017년 건화물선 공급 전망

금년 건화물선 선복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7.9억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새로 인도되는 선복량은 총 '4,800만 톤'이며 수명이 다해 고철로 매각하기 위해 해체되는 선복량은 총 '2,940만 톤'으로 이에 따른 선복의 순증가량은 '1,860만 톤'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1~12년에 선복 증가율이 10%를 상회했음을 감안하면 2015년 이후 선복 증가율은 크게 둔화되고 있는데 특히 건화물선 시황의 극심한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2015년 이후 선복 해체량이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선복 증가율 또한 비교적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7만 톤급 파나막스 선형의 경우 금년 12월 1일까지 신조 인도된 선복 수와 해체 매각된 선복수가 동일한 109척을 기록함에 따라 시황 상승 탄력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하반기 동 선형의 시황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4. 연간 건화물선 선복량 추이와 전망

(단위: Million DWT)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신조 인도량	100.3	100.4	62.9	48.2	49.3	48.0	35.6
해체량	23.3	33.4	23.2	16.3	30.5	29.4	27.3
선복량 (연말)	621.8	687.6	726.8	758.5	776.6	794.2	802.4
증감률 (%)	14.9	10.6	5.7	4.4	2.4	2.3	1.0

자료: Clarkson

그림 4. 연간 건화물선 선복량 추이와 전망



자료: Clarkson

금년 11월까지 건화물선의 신조 발주량은 총 46척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작년 357척 대비 매우 크게 감소한 수준이며 이는 결국 약 2년 후 신조 인도량의 감소로 이어지며 시황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조 발주량의 감소는 수주 잔량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건화물선은 총 999척으로 작년 말 1,654척 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선종별 선복량 증가율을 살펴보면 철광석과 석탄을 주로 운송하는 18만 톤급 Cape 선형이 금년에는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증가세가 크게 완화되며 '0.2%'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석탄과 곡물을 주로 운송하는 Panamax 선형의 경우 금년에는 '0.6%' 그리고 내년에는 '0.3%'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과 철강제품 등의 운송에 주로 투입되는 Supramax 선형의 경우 금년도 선복 증가율이 다른 선형에 비해 비교적 높은 '5.2%'로 예상되는 한편 내년 증가율 또한 '3.1%'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4~15년에 이른바 6~7만 톤급 Ultramax 라는 새로운 선형이 나오며 신조 발주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며 동 선형의 빠른 선복량 증가세는 곡물 운임 하락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 보면 내년 선복 증가율이 16년래 가장 낮은 수준인 '1.0%'로 예상되는 동시에 특히 Cape 와 Panamax 선형의 선복이 금년 대비 거의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장기적으로 시황 개선의 여지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일부 선주들은 본격적인 운임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5. 2017년 건화물선 수요·공급 및 곡물 운임 전망

2017년 건화물선 수요와 공급 증가율은 각각 ‘1.9%’와 ‘1.0%’로 전망되며, 선복량으로 표현되는 공급 대비 물동량인 수요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대다수 전망 기관들은 내년 건화물선 시황이 금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시황 회복의 시점에 대해서는 기관들 간에 다소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Clarkson’은 “내년 시황 회복이 예상되나 물동량 증가폭이 크지 않아 소폭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같은 런던에 위치한 다른 전망 기관인 ‘SSY’는 “중국의 원자재 수입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며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본격적인 시황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Drewry’는 내년 건화물선 운임지수를 금년 대비 ‘50%’ 가량 상승한 ‘990 pt’로 전망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Clarkson Platou’는 ‘891 pt’로 전망 하였다. 또한 현재 선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2017년 용선료 평균값을 건화물선 운임 지수로 환산할 경우 ‘786 pt’가 산출된다.

전반적으로 내년 건화물선 시황이 금년보다 나아질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며 주요한 변수는 중국의 석탄 수입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에 달려 있는데 이는 중국의 석탄산업 규제 정책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계속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년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건설 경기 활황으로 이어지며 철강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철강 제품 원료인 철광석과 원료탄 수입이 급증했는데 내년에 도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강세가 계속 이어질지 내지는 버블 붕괴로 인해 경착륙 양상이 나타나며 건설 경기의 불황이 나타날지 여부 또한 내년 시황 변동의 주요 변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향후 건화물선 시장의 새로운 견인차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의 원자재 수입 또한 내년 시황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4분기 이후 건화물선 시황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건화물선 운임 지수가 11월 중순에 ‘1,257 pt’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뒤 연말에 접어들며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 1분에는 해마다 반복되던 신조 인도 집중현상이 다시 나타나며 시황 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나 2분기 이후부터 점차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브라질의 거대 광산 기업인 발레의 철광석 광산 개발(S11D 프로젝트)이 내년 초에 완료되면 대 중국 수출 또한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 이는 내년 Cape 선형의 낮은 선복 증가율과 맞물리며 철광석 운임의 빠른 상승세로 나타날 가능성 또한 있어 보인다.

한편 금년에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국제해사기구(I.M.O)가 2020년부터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을 크게 강화하는 동시에 선박 평형수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제 또한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주들은 그 동안 선박 연료로 주로 사용해 온 저렴한 벙커C유를 사실상 쓰지 못하게 되거나 앞으로 3년 이내에 고가의 오염물질 제거 장치를 장착 또는 LN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엔진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비용은 결국 운임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까지 매우 많은 비용이 드는 선박 평형수 관리 장치까지 추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후 선박을 가진 선주들이 선박 해체시기를 앞당길 경우 선박 공급이 급감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본격적인 시황 상승 시점이 앞당겨지는 동시에 시황 상승 폭 또한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상황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5. 연간 건화물선 수요·공급 및 곡물 운임 추이와 전망

(단위: Million Ton, US\$/MT)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화물선 물동량	4,101	4,340	4,585	4,819	4,819	4,888	4,982
건화물선 선박량	622	688	727	759	777	794	802
US Gulf 곡물 운임	\$55.3	\$48.7	\$46.8	\$44.7	\$29.9	\$28.2	\$30.0

자료: Clarkson, 캄코선박운용

그림 5. 연간 건화물선 수요·공급 및 곡물 운임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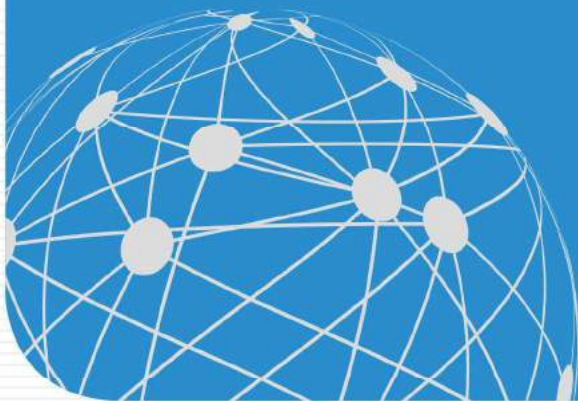
수급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내년에는 2014년 이후 3년 만에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시황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측면에서 2015년 이후 비교적 낮은 선복 증가율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금년에 선복 발주량이 급감하며 향후 선복 증가율 또한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년 하반기 이후 극심한 과잉 공급은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 증가율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시황 회복이 계속 지연된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내년 건화물 물동량 증가율 또한 금년 대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본격적인 운임 강세가 나타날 만큼 상승 동력이 강해 보이지는 않는다.

곡물 운임에 한정해 봤을 때 곡물 운송에 투입되는 Panamax 선형의 내년 선복 증가율이 '0.3%'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나 대체 선형인 Supramax 선형의 선복 증가율이 '3.1%'로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 운임 상승 압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도 곡물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석탄 물동량 증가율이 금년 대비 거의 정체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석탄과 곡물 운임 상승 여력은 철광석에 비해 낮아 보인다. 이를 종합한 전반적인 수급 여건을 감안하면 내년 곡물 운임은 금년 대비 제한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US Gulf 곡물 운임은 톤 당 약 '\$30.0'선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분기 이후 브라질의 철광석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며 Cape 선형을 중심으로 시황 상승이 본격화 될 경우 선물 시장과 기간 용선 시장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발생하며 시황 상승폭이 커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도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선박 환경규제 등을 감안했을 때 본격적인 운임 회복의 시점 또한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art 3. 해외곡물시장 브리핑

FAO 곡물시장 뉴스 131



FAO 곡물시장 뉴스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Egypt's traders suffer losses after currency float 이집트 상인들 환율 변동으로 손실 입어

지난주 카이로 근교 호텔에는 이집트의 밀 무역업자들이 수습책을 강구하기 위해 모였다.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이집트 정부가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면서 밀 무역업자들은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고 정부에게 구제 금융 투입을 요청하였다. 이집트는 해외의 자금 유입을 끌어들이고, 외환시장의 암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3일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제를 도입한다고 발표 하였다.

지난 2011년 ‘아랍의 봄’으로 호스니 무바라크의 30년 독재가 끝난 이후 지속된 정치적 혼란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이집트 정부는 지난 8월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12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던 시기에 신용 한도(credit line)을 오픈한 밀 및 의약품 원료 수입업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11월 3일 이후 달러 대비 이집트 파운드화의 가치는 절반으로 하락하면서 목요일 달러당 17.60 파운드로 거래되었다.

이집트는 세계 1위 밀 수입국으로 밀과 의약품 원료 수입업자들은 고정환율제 시기에 공식 환율로 달러를 사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 목록에 있었다. 이집트 상공회의소 연합(Federation of Egyptian Chambers of Commerce) 사무총장인 Alaa Ezz는 환차손(foreign exchange loss) 발생으로 주요 사업들은 6~70억 달러 정도 채무가 발생했다고 예측하였다. 사무총장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은행들은 전략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 상품들이 외화 부족에 시달리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집트 파운드화의 가치가 갑작스럽게 떨어지면서 가격 통제를 받는 의약품이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제약회사들은 손실 및 신용 한도 동결로 의약품 부족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리고 회의에 참가한 한 회사의 소식통은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

로 식품 제품만 관련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주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 모인 약 50개 곡물 회사의 대표자들은 세리프 이스마일 이집트 총리에게 환율 변동으로 입은 손실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편지 초안을 작성하였다고 말했다.

환율 변동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이집트 Med Star사의 회장 Hesham Soliman은 “우리는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Soliman 회장은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이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은행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기 이전인 12월 31일 전에는 대차대조표에 어떻게 기록할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외화 보유고가 줄어들고 무역 적자가 크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집트 정부는 지난 몇 년 간 달러 공급을 제한해왔다. 은행들이 필수품을 우선순위로 정하면서, 비필수품 품목 수입업자들은 암시장에서 훨씬 더 높은 금리로 달러화를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

공식 환율로 은행에서 달러를 거래하던 시기에 필수품 품목 수입업체들은 수개월 전에 신용 거래를 해왔었다. 결국 이들은 통화 평가 절하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난 3월에도 중앙은행이 통화 가치를 절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환율을 조정하면 수입 잔고를 충당할 수 있는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위험을 감수하고자 했었다. 하지만 기대되는 수십억 달러의 투입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중앙은행은 이에 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수입업자들은 심각한 외환 손실을 입었지만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수입업자들은 일부 은행들은 잔고가 회복되고 현금 유동이 가능해지기 전까지 신용 한도를 동결시켰다고 밝혔다. 일부 무역업자들은 중앙은행이 달러당 공식 환율을 8.8 파운드로 고정하여 손실을 회복하길 희망하고 있다. 사무총장은 그의 무역 그룹이 신용 한도 동결을 해제할 것을 은행에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인상과 보조금 삭감을 포함하는 정부의 긴축 정책 시행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2016.11.29).

■ Indonesia planning to stop maize imports by 2018 or sooner 인도네시아 옥수수 수입 중단 예정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늦어도 2018년까지는 옥수수 수입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한다. Pro Farmer's First Thing Today 보고서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량 자급자족(Food self-sufficiency)이라는 광범위한 목표

의 일환으로 국내 옥수수 생산량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부 장관은 옥수수 자급 자족을 위해서는 최대 700만 헥타르 (1,730만 에이커)까지 재배면적을 늘려야 하며, 현재 곡물 재배면적은 약 440만 헥타르 정도라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몇 년 간 옥수수 수입을 제한하면서 사료 대체품으로 밀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제한 조치가 발효되기 전인 2013-14년에는 약 35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하였다. 올해에는 80만 톤의 소량의 옥수수만 수입되었다(2016.11.29).

■ **Zambian maize export ban to stay in place until stocks climb** **잠비아 재고 증가할 때까지 옥수수 수출 금지 유지**

에드가 룡구(Edgar Lungu) 잠비아 대통령 대변인은 정부가 주요 식량의 전략적 비축량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옥수수 수출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5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든 지난 시즌에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 중 풍작을 맞은 곳은 잠비아와 탄자니아로,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2,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긴급한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예측하였다. 대변인 Amos Chanda는 “FRA가 50만 톤의 옥수수를 보유하고 있는 한 옥수수 수출은 없을 것이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농업부에 따르면, 634,681톤의 옥수수를 생산하였지만 정부는 이달 초까지 단지 28만 톤만 구매하였다고 한다. 농민들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개인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동안, 정부는 말라위와 콩고민주공화국 등 인근 국가로부터 밀수입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잠비아 통계청에 따르면, 잠비아의 옥수수 가격은 전년 동기간 대비 16.7% 상승하였다고 한다. 대변인은 잠비아 국영방송 ZNBC에 출연해 정부의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정부를 비꼬아 협박하는 곡물 무역업자들을 비난했다.

재무부 장관 Felix Mutati는 11월 11일 시정연설에서 수출 금지 조치로 생산이 타격을 입으면서, 정부는 정책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잠비아 곡물거래협회(Grain Traders Association of Zambia) 회장 Chambuleni Simwinga는 이에 관련한 답변을 거부했다(2016.11.29).

■ Russia's slow grain exports raise doubts over 2016-17 forecast 러시아의 2016-17 곡물 수출 증가율 둔화 전망

러시아 농산물시장민간연구소 소브에콘(SovEcon)에 따르면, 러시아의 곡물 수출은 7월 1일 시작된 마케팅 연도 이후 지금까지 느린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소브에콘이 예측한 2016-17년이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세계 최고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소브에콘이 예상한 3,900만 톤을 달성하고 2016년 기록적인 곡물 수확량으로 내수 가격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16-17년에는 곡물 수출을 지난 시즌보다 약 500만 톤 이상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브에콘 대표인 Andrey Sizov는 이러한 목표치는 도달할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11월 곡물 수출량은 밀 260-270만 톤을 포함한 350만 톤으로 예측했다. 이는 전년 동기간 곡물 수출량보다 낮은 수치이다. 러시아의 10월 곡물 수출량은 9월 450만 톤에서 감소한 290만 톤으로, 항구 지역 폭풍우로 인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현저히 낮았다. 그 결과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Volgograd) 지역 농민들은 11월 1일 곡물 재고량을 28%까지 늘렸다. 스타브로폴(Stavropol)과 로스토프(Rostov) 지역은 재고량을 각각 19%, 17% 증가시킨 반면에 크라스노다르(Krasnodar) 지역은 전년 대비 재고량이 1% 줄어들었다.

대표는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 수출 가능한 재고량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항구에서 멀리 있는 지역에서 곡물 수출업자의 수요가 제한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농민들이 고품질 밀 판매를 보류하고, 정부는 국내 구매로 국가 재고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어 러시아 국내 곡물 시장 가격은 수출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띠고 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2016.11.28).

■ Crisis of surplus wheat getting worse - Pakistan 파키스탄 밀 재고량 증가에 따른 문제 심화

Pakistan Economy Watch(PEW)는 파키스탄은 심각한 밀 위기를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정책적 문제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여러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밀 재고는 수출 보조금을 여러 번 인상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패로 인해 5백만 톤이 넘었다고 PEW회장 Murtaza

Mughal이 밝혔다.

또한, 회장은 지난 정부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밀 지원 가격을 두 배로 올리면서 밀 재배농가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정부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원으로 인해 재배농가들의 우선순위가 다른 작물로 전환되면서 곡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밀 재고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회장은 밀 재배 지역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재고율이 최고 수준에 달하면서 초과분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연방 및 주정부는 120만 톤의 수출용 밀에 대해 톤 당 9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할 것을 발표하였지만 이는 국제 밀 시장 가격이 파키스탄 밀 가격의 거의 절반으로 내려가면서 실패하였다.

올해 국제 시장의 밀 가격이 하락하면서 정부는 추가적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국제 재고율은 이미 기록적인 수준이며, 농작물의 개선으로 인해 정부는 늘어나는 재고를 처분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 회장은 일부 지역에서 이미 파종이 시작했기 때문에 중개인들은 할인된 가격의 밀 구매를 선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11.27).

■ Improve policy response in wheat - India

인도, 밀 정책 대응 개선

재고율이 모든 수준에서 타이트한 상황으로 다음 수확은 2017년 4월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인도는 ‘밀 충격’에 빠져있다. 밀 가격은 지난 두 달 동안 쿼터 당 1,750루피에서 최근에는 2,000루피까지 올랐다. 그리고 다음 수확은 앞으로 4개월 뒤에 있다. 가격이 오르면서 정책 입안자 및 규제 기관, 소비자 모두 우려하고 있다. 농업부가 2016년 4-5월(2016-17년 마케팅 연도)에 수확된 2015-16년 9,380만 톤 예측치에서 문제가 시작했다. 생육기간 동안 토양 수분 조건 및 재배 면적, 기상 조건을 고려하면, 정부 추정치는 5~7% 정도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 수확량은 지난해 8,650만 톤과 비슷한 8,600~8,700만 톤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생산량은 지난 시즌 2,800만 톤에서 감소해 이번 시즌에는 2,300만 톤의 중부 지역 밀 공급량을 반영한다. 공공 재고율은 수년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11월 초, 중부 지역의 밀 재고율은 전년 동기 3,000만 톤에서 감소한 1,900만 톤으로 추정되었다. 예측치로 재고율이 타이트하다는 것을 알렸다. 실제로, 밀 수출은 현

회계 연도 상반기에 다시 회복할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 채 17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확실한 것은 2015-16년 인도는 67만 톤의 곡물을 선적하였다.

인도는 올해 순수입국으로 전환하고 있다. 남부 지역의 밀 제분소들은 기록적인 세계 수확량(약 7억 4,000만 톤 이상)과 소비자 친화적인 가격에 맞추기 위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민간 예측에 따르면 인도는 2016-17년 회계 연도에 재고율을 늘리기 위하여 최대 200만 톤을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흥미롭게도 인도 펀자브(Punjab)에서 타밀나두(Tamil Nadu)까지의 내륙 운송 비용보다 호주에서 인도 남부 지역 항구까지의 선박 운임이 더 저렴하다.

갑자기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지난 몇 주, 그리고 몇 달 간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상황 및 정책적 대응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 상업 정보 및 미래 전망, 정책결정 내의 선제적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다시 한번 드러났다. Rabi(겨울 작물) 파종이 시작되면 파종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보통 2,900~3,000만 헥타르 정도에 밀을 재배한다. 주요 재배 지역(펀자브, 하리아나, 우타르 프라데시 서부 지역)들의 토양 수분 조건은 차선책이다. 그런 이유로 겨울에 내리는 비는 곡물 생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 밀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배농가들은 긍정적인 조짐을 받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도산 밀은 내열성에 한계가 있다. 생육 기간 동안, 특히 1월과 2월 주간 온도는 시원하고 곡물 친화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이 감소할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 다른 요인은 수확 시즌에 악천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3년 동안, 인도 북부는 3월과 4월에 비와 우박이 내리면서 곡물 크기와 품질에 영향을 미쳤다.

다음 밀 수확은 2017년 4월로 예정되어 있다. 그전까지 인도는 이용 가능한 재고를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가격은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도 루피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수입하는 밀의 양륙비 포함 원가 비용(landed cost)가 증가하고 있다. 루피화는 계속 약세를 띠 것으로 보인다. 수입품에서 10% 관세를 철회하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고평가된 화폐의 악용은 현금 위기(cash crunch)를 발생시켰다. 현금 유동성 문제는 잠재적으로 밀 파종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재배업자와 정식 등록한 만디 거래 상인에 대해 철수 한도를 자유화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은 환영할 만한 단계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콩 값으로 ‘달 쇼크’를 겪은 이후 발생한 밀 충격은 정책 대응이 시장 발전에 얼마나 뒤처지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2016.11.27).

■ South Africa maize farmers expected to plant 35 pct more than last season

남아공 옥수수 파종 면적 지난 시즌 대비 35% 증가 할 것으로 전망

로이터 폴(Reuters Poll)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농민들은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지난 시즌보다 옥수수 파종 면적을 35%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남아공의 곡물 예측위원회(Crop Estimates Committee, CEC)는 파종 면적이 262만 톤으로 지난해 194만 7천 톤보다 35%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범위는 242~274만 헥타르이다.

11월부터 1월까지 습한 기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CEC가 예측한 244만 헥타르보다 7% 높다. CEC는 동부 옥수수 재배 지역에서 이미 시작한 2016-17년 옥수수 재배 시즌을 위해 지난 목요일 파종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시즌 라니냐로 악화된 기상 조건이 양호해지면서 농민들은 경작지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 상인은 “최근에 내린 비가 파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아공 곡물 협회(Grain SA)는 내년에 옥수수가 풍작을 맞을 것으로 보이면서 식량 가격 인상과 인플레이션을 촉진시킨 엘니뇨로 심각한 가뭄을 겪으면서 올라간 주요 곡물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였다. 지난 시즌에 CEC는 옥수수 수확량이 재작년도 수확량인 995만 톤보다 25% 감소한 750만 톤이었다고 전했다. 남아공 흰 옥수수 선물 가격은 화요일 1.3% 오르면서 2개월 최고치인 톤 당 3,960 랜드를 기록하였다. 부분적으로 남아공 랜드화 약세에 기인한 이러한 반등이 있었으나, 지난 1월 최고치를 기록했던 톤 당 5,300랜드보다 25% 감소한 수준에 불과하다 (2016.11.22).

■ Latin America turns to cheap, good quality Russian grain as US prices rise

미국 곡물 가격 상승으로 남미 국가들 러시아산 곡물 수입으로 선회

미국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남미 국가들은 러시아에서 곡물 수입을 하고자 한다. 올해 러시아의 총 곡물 수확량은 6,400만 톤의 밀을 포함하여 약 1억 1,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5-16년 러시아는 24,604톤의 밀을 포함해 338억 9천3백만 톤의 곡물을 수출하면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량이 미국을 넘어섰다.

러시아 농업부에 따르면, 2016-17년 곡물 수출량은 4천만 톤 늘어날 전망이다.

러시아가 유럽연합 농산물 및 식료품 수입을 금지하면서 러시아는 풍작을 맞아 미국 곡물 가격 상승에 직면한 중남미 국가들에게는 이점이 되었다. 2015-16년에 멕시코는 1,790만 톤의 곡물을 수입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많은 1,900만 톤의 곡물을 수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농산품 수출 시장은 멕시코로 지난 2014년 회계 연도에 195억 달러 상당의 식품 및 농산물을 멕시코에 수출하였다. 그러나 11월 8일 미국 대선 이후 멕시코 페소는 달러 대비 12% 하락하면서 이로 인해 멕시코 수입업자들은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계획하고 있다.

목요일 미 농무부(USDA)는 11월 10일 주간에 멕시코에 164,468톤의 옥수수를 판매하였다고 보고했다. 이는 일 개월 안에 가장 최저치를 판매한 주로 기록되었다. 이 수치는 2일간의 선거 후 거래를 포함한다. 올해 초 미 농무부 산하 해외 농업국(Foreign Agricultural Service)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멕시코 수입업자들은 이미 러시아 곡물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한다.

보고서는 “2015-16년에 많은 멕시코 제분 업자들은 가격과 품질 간의 올바른 균형을 찾고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프랑스와 같은 비전통적 공급 업체에서 밀을 공급받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농업부의 Vladimir Volik는 RNS 뉴스 서비스에 멕시코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러시아 곡물을 구매한다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는 거대 곡물 수출국인 미국과 지리상으로 가장 인접한 곳이다. 지난 무역 시즌 동안 러시아는 398,000톤의 밀을 공급하였고, 브라질 시장 또한 러시아 곡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웃국인 아르헨티나는 예전부터 브라질로 밀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는 수입품의 80%를 공급했고, 미국은 8%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브라질 레알화 역시 11월 8일 이후 달러 대비 7% 하락하면서 미국산 곡물도 이점이 사라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2015-16년 러시아는 6만 6천 톤의 밀을 니카라과에, 12만 톤을 페루에 수출하였다. 올해 7~10월에 페루는 러시아산 밀 9만 9천 톤을 구입하였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수치이다.

이달 초 러시아 연방 수의식물위생감시국(Rosselkhoznadzor)는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양국이 식품 안전 및 식물 위생 문서 초안에 합의한다면 러시아는 올해 말까지 베네수엘라에 밀 수출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베네수엘라는 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데, 매달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12만 톤의 밀을 수입하고 있다. Rosselkhoznadzor의 부국장인 Igor Pavensky는 저렴한

가격과 운임비, 그리고 좋은 품질로 러시아산 곡물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러시아 일간지 Gazeta.ru에 전했다. 부국장은 러시아 남부 항구의 4등급 밀 수출 가격은 톤당 181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013년 가격은 톤당 230~260달러였고, 2012년에는 톤당 355달러에 판매되었다. 그리고 “러시아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며, 많은 양의 곡물을 수출하지 않았던 일본, 베트남에 처음으로 대량 판매를 시작하고 있다. 작년과 비교하여 이번 시즌에는 방글라데시로 수출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2016.11.19).

■ Deputy PM says agriculture is engine of Russian economic growth

러시아 부총리, 러시아 경제 성장의 동력을 농업이라고 밝혀

아르카디 드보르비치(Arkady Dvorkovich) 러시아 부총리는 농업이 러시아 경제 성장을 주도한다고 금요일 국제곡물포럼(World Grain Forum)에서 밝혔다. “농업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유일한 경제 분야이다. 농업은 성장의 원동력으로 이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단지 성장의 동력뿐만이 아니라 분위기를 조성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소비자들은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저렴한 식품을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생산량은 연간 1억 2천만 톤 정도이다. 향후 10년 뒤에는 1억 5천만 톤 정도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농업부는 농산물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2016년에 3%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가축 사육 생산량은 돈육 생산량 10% 증가를 포함하여 5%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러시아는 7,200만 톤의 밀을 포함해 약 1억 1,700만 톤의 곡물을 수확할 것이라고 농업부는 발표했다. 부총리는 러시아는 세계의 주요 농업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가 세계 주요 농업 국가에 합류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다른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는 세계 식량 및 곡물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러시아 부총리는 세계 시장의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제 곡물 시장에서 주요 곡물 생산국들은 안정적인 정책 및 투명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알렉산더 트카체프 러시아 농업부 장관은 2016년에 러시아는 1억 1,700만 톤의 생산량으로 3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곡물 수출은 이번 농

업 연도(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에는 3,500~4,0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2015년에 러시아는 1억 480만 톤의 곡물을 생산하였고, 3,390만 톤을 수출하였다. 지난 2008년에는 1억 810만 톤의 기록적인 수확량을 보였다. 부총리는 러시아의 농업 관련 산업 지원 규모가 항상 서방 국가들보다 뒤쳐져 있을지는 몰라도 지원은 안정적이며 향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의 농산물 기업들은 막대한 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의 지원은 안정적이며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곡물 및 기타 농산물 재배농가들은 아마도 달러 대비 가치 하락으로 국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2017-2019년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주정부의 농업 자금 프로그램에 약 2,045억 루블(32억 달러)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시장에서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곡물 개입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라고 부총리는 밝혔다. “확실한 것은 러시아 국영 곡물 업체인 유나이티드 그레인 컴퍼니는 충분한 융통성을 갖춰야 한다. 시장 참여자 및 기타 규제 기관과 논의할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더 큰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농업부는 개입의 의사 결정자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개입 가능성을 결정할 때는 국내 곡물 시장과 관련된 시장 요인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의 국제적 측면과 운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예측과 함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정치적 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농업부나 정부의 결정이 나면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밀 수출 관세를 폐지하였다고 부총리는 전했다. 그리고 정부는 다시는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총리는 수출 관세 도입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거시경제 상황에서 정부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고 전했다(2016.11.18.).

■ JBS hopes lower Brazilian maize prices will support margins

JBS, 브라질 옥수수 가격 하락으로 수익 기대

세계 최대 육류가공업체인 브라질 JBS 회장 Wesley Batista은 가축 사육 가능성이 증가하고 사료 가격은 떨어지면서 내년에는 가격이 내려가고 정육업자들의

수익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옥수수 부족이 완화되어가면서, 가축 공급이 늘어나 판매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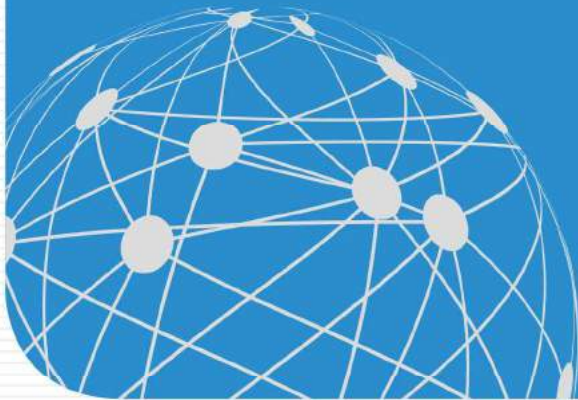
브라질의 대형 육가공업체 JBS 회장은 현금 창출(cash generation)이 증가하면서 내년에는 회계장부에 기재된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화회의에서 밝혔다. 회사는 수년간 빠른 확장으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대차대조표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2017년에는 현금 창출에 집중할 것이라고 한다.

곡물, 특히 옥수수가 부족해지면서 브라질의 가축 사육 농가들은 압박을 받고 있다. 브라질 시장은 지금 중대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회사의 가금류 및 소고기 사업은 비싼 옥수수 가격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통화(레알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수출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회장은 가축 공급이 증가하면서 브라질의 정육업자들에게 가축 생산 주기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이 아직 남아있다고 한다.

JBS 투자 관계 담당 이사는 “전망에 따르면, 올해 중반에는 옥수수 생산량이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풍작을 거둬야 하며, 지금까지는 양호한 기상 여건이 유지되고 있다. 덕분에 2017년에는 수수료 및 사료 비용이 완전히 다른 동력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주 JBS는 남미 판매가 8억 8,710만 레알로 내려가면서 수익이 74% 줄어들었으나, 북미 지역에서는 판매가 증가하였다. JBS 주식은 3.4% 오른 9.61레알로 장을 마감했다(2016.11.16).

Part 4. 세계 농업기상 정보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145



주요 곡물생산국의 농업기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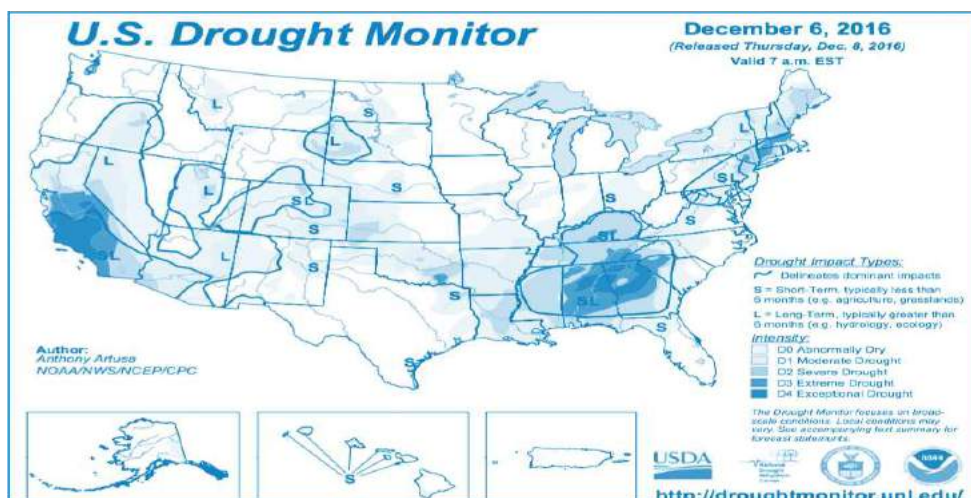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1. 미국

12월

12월 초순, 중부와 남부 및 남서부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는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였다. 북부 일대에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눈이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교통 불편을 겪기도 했다. 남부에서는 가뭄이 심화되었다.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밀 재배지역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낮은 날이 이어지면서 겨울밀이 휴면기에 접어들었다. 북부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서 10~20°F 이상 낮은 날씨를 보였고, 밤 동안에는 기온이 20°F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12월 8일 중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0°F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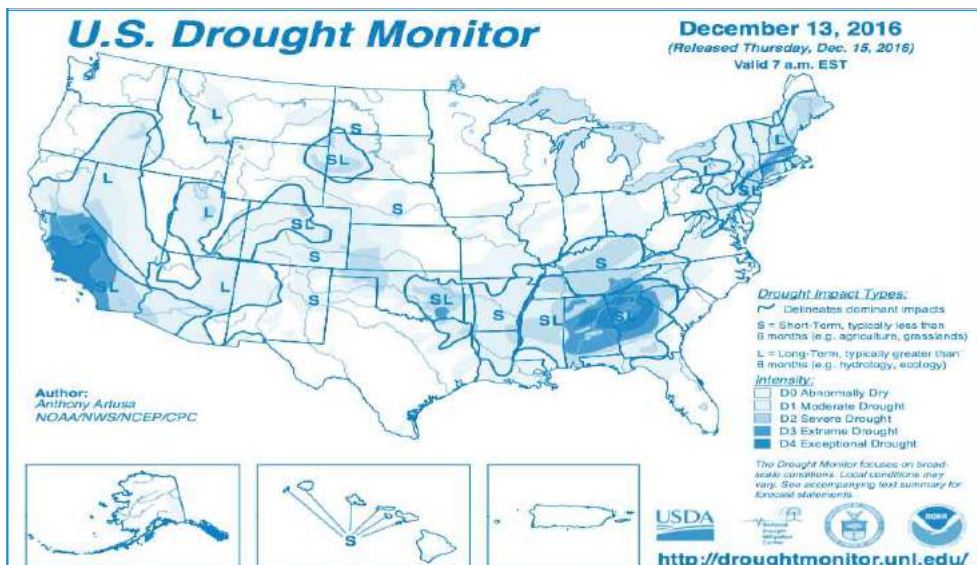
그림 1. 가뭄 모니터



자료 :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3(No. 50), Dec 8, 2016.

12월 중순, 동부, 서부 및 북부에서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몇 차례 비가 내렸다. 북부와 캘리포니아 중부에서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오래 지속되어 오던 가뭄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로키산맥에도 꽤 많은 양의 눈이 쌓였다. 중부의 겨울 밀 재배지 일대에도 눈이 조금 쌓여 동해피해를 막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오하이오 남부에서부터 걸프 만 일대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비가 내렸다. 하지만 대서양 연안 남부 일대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가뭄도 계속 이어졌다.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에 비해 20~30°F 이상 낮은 날씨를 보였고, 로키산맥 북부에서부터 오대호 일대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평년에 비해 10°F 정도 기온이 낮은 날이 이어졌다.

그림 2. 가뭄 모니터



자료 : USDA, 「WEEKLY WEATHER AND CROP BULLETIN」, Volume 103(No. 51), Dec 15, 2016.

12월 하순, 주 초반에 텍사스 일부 및 오클라호마 등에서는 기온이 0°F까지 내려가고, 사우스 다코타 동부에서는 기온이 영하 30°F까지 내려가는 등 매우 추운 날씨를 보였다. 주 후반에는 빠르게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동부와 서부 곳곳에서 비가 내렸다. 캘리포니아와 남서부 일대에서는 주 후반에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북중부 일대에서는 많은 눈이 내리기도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눈이 내린 덕분에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남동부에서 기승을 부리던 가뭄은 조

금씩 누그러지고 있는 추세를 보였지만, 알라바마 북부와 중부, 조지아 북부 등에 서는 여전히 가뭄이 이어졌다. 플로리다 일대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가뭄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주 초반에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낮은 날씨를 보였지만 주 후반으로 가면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했다.

2. 유럽

■ 12월

12월 초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다. 프랑스에서부터 영국 남동부 및 폴란드 남서부,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와 함께 평년 또는 평년보다 3°C 정도 기온이 높은 날이 이어졌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2~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12월 중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다. 프랑스에서부터 영국 남동부 및 이탈리아 등에서는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온도 평년 수준을 유지했고, 남동부에서는 평년에 비해 2°C 정도 기온이 낮은 곳도 있었다. 독일 북동부, 폴란드, 발칸반도 일대에서는 10~22mm 내외의 비가 내리기도 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도 10~4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12월 하순, 발칸반도 북부 일대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와 동부 등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독일에서부터 폴란드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기온도 평년 수준을 유지해 겨울밀과 유채 등의 생육상황은 좋은 편이었다. 남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4°C 정도 낮은 날씨를 보이는 등 기온 편차가 심했다. 동부 일대에서는 이례적으로 눈이 내리지 않는 겨울날씨가 이어졌다. 프랑스에서는 5~2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영국 남동부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렸다. 영국 북부에서는 15~100mm 내외의 제법 많은 양의 비 또는 눈이 내렸다. 이베리아 반도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 스페인 남부와 중부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내린 비의 양이 평년에 비해 많았지만 북부에서는 평년에 비해 비가 내리지 않는 날씨가 이어졌다.

3. 구소련(서부)

■ 12월

12월 초순, 남부와 북부 전역에 걸쳐 비 또는 눈이 내렸다. 우크라이나 남부에 서부터 러시아 남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6°C 정도 낮았고, 우크라이나 북부와 러시아 중부 및 Volga 지역에서는 2~20cm 내외의 눈이 내렸다. 남서부 주요 겨울밀 재배지역에서는 눈이 적게 내려 동해 피해가 우려되었다.

12월 중순,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 러시아 남부 등에서는 눈이 내렸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적설량은 2~15cm 내외였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10cm 이상의 눈이 내리고 기온이 영하 22°C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러시아 중부와 남부에서도 5~20cm 내외의 눈이 내렸고 기온이 영하 27°C까지 내려갔다. 눈이 쌓이면서 추위를 막아준 덕분에 겨울밀의 동해는 거의 없었다.

12월 하순, 추운 날씨가 이어졌지만, 눈이 내려 농지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겨울밀 등의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 중부와 러시아 남부 및 중부 일대에서는 5~20cm 내외의 눈이 겨울밀 재배지 일대를 덮고 있었는데, 이 눈 덕분에 기온이 영하 18°C에서 28°C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주었다.

4. 동아시아

■ 12월

12월 초순, 중국 동부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다. 양쯔강 일대에서는 이례적으로 기온이 평년에 비해 5°C 정도 높은 날이 이어지면서 유채 등의 생장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12월 중순, 중국 동부의 겨울작물 재배지역에서는 1~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양쯔강 일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2°C 정도 높았고, 북부 평원에서는 겨울밀이 휴면기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날씨가 이어졌다.

5. 호주

■ 12월

12월 초순, 서호주에서는 이례적으로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밀, 보리, 캐놀라 등의 수확작업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남부와 동부에서는 5~15mm 내외의 비가 내려 수확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 등에서는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4°C 정도 높았고, 주 초반에는 낮 최고기온은 30°C 후반에서 40°C 초반까지 올랐다.

12월 중순,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에서는 2~1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일부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에서는 농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겨울밀 수확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뉴 사우스 웨일즈 남부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번 비로 인해 밀, 보리, 캐놀라 등의 수확작업이 지연되었다. 호주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15일 기준 뉴 사우스 웨일즈와 서호주의 겨울밀 수확률은 각각 65%, 75%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남부와 빅토리아 등에서도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빅토리아의 겨울밀 수확률은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와 남부의 밀 재배지 일대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였고, 동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2°C 정도 높았다.

12월 하순, 서부와 남동부 일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밀과 보리, 캐놀라 등의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호주 농림부에 따르면, 서호주의 밀 수확률은 80%, 남호주의 밀 수확률은 70%, 빅토리아의 밀 수확률은 45%, 뉴 사우스 웨일즈의 밀 수확률은 85%를 기록하였다. 그 밖의 밀 재배지역인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가 내렸고(지역에 따라서 40mm 이상), 면화 등의 생육 상황은 좋은 편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밀 수확 작업이 종료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 재배지 전역에서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거나 평년에 비해 기온이 1°C 정도 높은 날씨가 이어졌다.

6. 아르헨티나

■ 12월

12월 초순, 중부의 가뭄은 악화되었다. La Pampa, Buenos Aires 대부분의 지역 및 Cordoba 남부, Santa Fe, Entre Rio 등에서는 10mm가 조금 넘는 비가 내렸다. La Pampa, Buenos Aires 및 Cordoba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올랐다. 북부에서는 2주 연속으로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북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약간 낮은 날씨를 보였으며, 서부의 Santiago del Estero, Salta 동부, Chaco 및 Formosa 서부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40°C 가까이 올랐다. 아르헨티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7일 기준 해바라기와 옥수수의 파종률은 각각 94%,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의 파종률은 61%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p 낮은 수치이다. 밀의 수확률은 39%이며, 지난 해 같은 기간의 43%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12월 중순, 중부 일대의 La Pampa, Cordoba 남부, Buenos Aires 서부 등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Buenos Aires 서부, Santa Fe, Entre Rio 남부 등에서는 1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30°C 중후반까지 올랐다. Salta 동부와 Formosa 등 북부 농경지역에서도 맑은 날씨를 보였고, 낮 최고기온은 30°C 중후반까지 올랐지만 평균기온은 평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아르헨티나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15일 기준 해바라기와 옥수수의 파종률은 각각 99%,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의 파종률은 70%로 나타났다. 밀 수확률은 58%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54%에 비해 다소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12월 하순, 중부 일대의 Entre Rio 서부, Buenos Aires 중부와 북부 등에서는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지역에 따라서 100mm 이상). 이들 지역은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였으며,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오르기도 했다. Buenos Aires 남서부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다. 북부 일대의 Cordoba, Chaco 남부 등에서는 25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북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2°C 정도 높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40°C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옥수수와 대두의 수확률은 12월 22일 기준 각각 67%, 75%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0%p씩 낮은 수준이다. 밀의 수확률은 73%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해 같은 기간의 59%에 비해서는 빠른 속도를 보였다.

7. 브라질

■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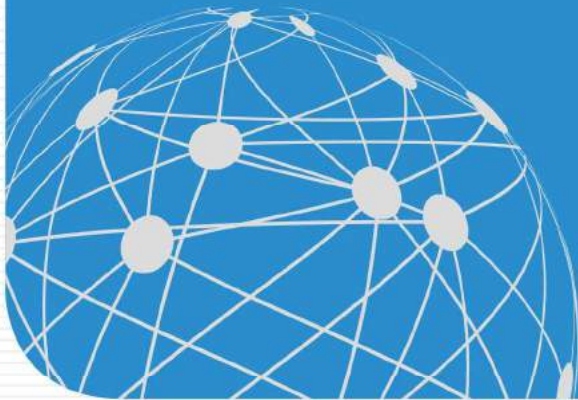
12월 초순, 남부와 중부 일대에서는 비가 내렸다. Mato Grosso 북부와 동부에서는 25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Goias 남부, Minas Gerais, Santa Catarina 등에서도 5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Rio Grande do Sul, Mato Grosso 남서부 등에서는 강수량이 25mm 미만에 그치는 등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12월 8일 발간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Rio Grande do Sul의 옥수수 재배지역은 토양상태가 불량해서 생육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생육상황이 좋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Parana에서는 옥수수 재배지 가운데 개화기에 이른 재배지 면적이 5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두의 경우 40% 정도가 개화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 전역에서는 지난 한 주간 기온이 평년 수준을 유지했고, 많은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올랐다.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40°C까지 오르기도 했다.

12월 중순, 중서부의 Mato Grosso, Goias, Mato Grosso do Sul와 북동부 내륙의 Tocantins, Bahia 서부, Piaui, Maranhao 등에서는 50~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남동부의 커피, 사탕수수 재배지역에서도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평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5°C까지 오르기도 했다. 반면 남부의 Rio Grande do Sul, Parana 남부 등에서는 5~25mm 내외의 비교적 적은 양의 비가 내렸다. 이들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초반까지 올랐다. Parana 주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1기 옥수수와 대두의 경우 12월 12일 기준 개화율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하순, 중부와 서부의 Mato Grosso, Goias, Mato Grosso do Sul 남부 및 Sao Paulo, Rio Grande do Sul 등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낮 최고기온은 30°C 초반까지 오르는 날씨를 보였다. 이번 비는 Rio Grande do Sul 일대의 가뭄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다. Minas Gerais 북서부, Bahia 서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Tocantins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후반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를 보인 가운데 대두와 면화 등의 생육 상황은 좋은 편이다.

Part 5. 부 록

세계 곡물 통계	155
국가별 쌀 통계	159



세계 곡물 통계

□ 쌀(정곡)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144,736	318,034	10,311	11,485	306,817	97,702	3.23
1986/1987	144,797	316,033	10,686	13,063	308,053	103,305	3.21
1987/1988	141,442	315,135	10,452	11,572	312,060	105,260	3.29
1988/1989	146,584	332,083	11,701	14,015	323,383	111,646	3.35
1989/1990	147,811	345,264	10,589	11,484	335,411	120,604	3.45
1990/1991	146,981	351,376	10,593	12,115	343,817	126,641	3.53
1991/1992	147,550	353,253	12,028	14,453	350,797	126,672	3.54
1992/1993	146,441	353,878	12,954	14,876	355,479	123,149	3.58
1993/1994	145,327	354,685	16,138	15,837	359,214	118,921	3.62
1994/1995	147,335	364,108	19,380	21,058	363,790	117,561	3.66
1995/1996	148,352	368,791	18,127	19,820	366,582	118,077	3.69
1996/1997	150,200	380,390	16,666	19,110	375,773	120,250	3.75
1997/1998	151,743	387,440	24,232	26,646	377,546	127,730	3.79
1998/1999	153,313	394,919	25,219	25,633	388,227	134,008	3.83
1999/2000	155,860	409,305	20,263	22,831	397,681	143,064	3.91
2000/2001	152,780	399,244	22,073	23,988	393,708	146,685	3.89
2001/2002	151,645	399,456	25,969	26,982	412,194	132,934	3.92
2002/2003	147,663	378,182	26,297	28,659	405,744	103,010	3.81
2003/2004	149,521	392,483	25,012	27,436	411,412	81,657	3.92
2004/2005	151,442	400,799	25,973	28,252	406,186	73,991	3.94
2005/2006	154,214	417,865	26,537	29,646	412,259	76,488	4.04
2006/2007	154,284	420,090	28,585	31,326	418,460	75,377	4.05
2007/2008	154,976	433,631	30,027	31,442	426,711	80,882	4.15
2008/2009	158,488	449,937	27,415	28,962	436,354	92,918	4.23
2009/2010	155,764	440,676	28,263	31,344	435,402	95,111	4.21
2010/2011	158,229	450,397	33,068	35,080	443,405	100,091	4.25
2011/2012	160,432	467,613	35,515	39,945	456,492	106,782	4.35
2012/2013	158,834	472,530	36,758	39,361	462,825	113,884	4.44
2013/2014	161,605	478,335	38,587	43,017	473,918	113,871	4.41
2014/2015	160,931	478,562	41,135	43,582	475,465	114,521	4.43
2015/2016 (추정치)	159,232	472,266	37,912	39,623	468,606	116,470	4.42
2016/2017 (전망치)	162,090	481,505	38,750	40,711	475,807	120,207	4.43

□ 밀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229,825	494,837	80,505	82,452	482,770	178,639	2.15
1986/1987	227,895	524,082	86,488	89,274	508,745	191,190	2.30
1987/1988	220,087	498,710	112,247	111,565	531,449	159,133	2.27
1988/1989	217,878	495,282	102,384	105,151	516,536	135,112	2.27
1989/1990	226,333	533,133	98,797	103,419	526,734	136,889	2.36
1990/1991	231,004	588,781	99,003	103,843	549,658	171,172	2.55
1991/1992	222,791	543,434	108,361	109,948	551,375	161,644	2.44
1992/1993	222,175	562,620	108,810	110,039	545,542	177,193	2.53
1993/1994	221,055	558,570	98,561	103,717	547,337	183,270	2.53
1994/1995	213,352	523,137	99,877	98,215	543,365	164,704	2.45
1995/1996	216,739	537,523	97,188	99,197	543,624	156,594	2.48
1996/1997	227,101	581,316	98,254	106,943	563,944	165,277	2.56
1997/1998	226,396	610,192	103,533	104,400	575,633	198,969	2.70
1998/1999	219,192	590,497	99,635	101,319	577,307	210,475	2.69
1999/2000	212,673	587,474	106,726	113,449	580,915	210,311	2.76
2000/2001	215,367	582,806	99,331	101,257	585,182	206,009	2.71
2001/2002	214,254	583,894	106,233	105,793	587,089	203,254	2.73
2002/2003	213,417	569,690	103,712	105,442	602,216	168,998	2.67
2003/2004	207,954	555,712	100,959	108,522	581,359	135,788	2.67
2004/2005	215,791	626,766	110,423	111,189	605,571	156,217	2.91
2005/2006	217,526	618,825	111,572	117,202	616,138	153,274	2.85
2006/2007	212,316	596,664	113,933	111,598	618,839	133,434	2.81
2007/2008	216,876	611,914	113,509	116,485	614,297	128,075	2.82
2008/2009	224,075	683,953	137,699	144,137	636,490	169,100	3.05
2009/2010	225,598	687,236	133,577	136,994	649,633	203,286	3.05
2010/2011	216,850	649,460	131,990	132,723	653,264	198,749	3.00
2011/2012	220,973	697,327	150,188	158,178	689,820	198,266	3.16
2012/2013	215,801	658,630	145,419	137,560	687,161	177,594	3.05
2013/2014	219,623	715,052	158,452	165,980	690,433	194,685	3.26
2014/2015	221,682	728,256	159,111	164,421	700,429	217,202	3.29
2015/2016 (추정치)	224,976	735,494	169,935	172,491	709,494	240,646	3.27
2016/2017 (전망치)	221,372	751,263	171,538	176,832	734,477	252,138	3.39

☐ 옥수수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130,997	479,086	53,470	55,302	417,728	177,672	3.66
1986/1987	131,861	475,451	52,484	55,077	445,668	204,862	3.61
1987/1988	126,862	450,997	57,323	59,128	456,354	197,675	3.56
1988/1989	126,109	400,439	66,465	68,461	450,862	145,256	3.18
1989/1990	127,346	461,717	73,603	72,176	475,535	132,865	3.63
1990/1991	129,066	481,854	58,547	58,389	473,475	141,402	3.73
1991/1992	132,519	492,834	63,107	62,053	494,237	141,053	3.72
1992/1993	133,156	535,695	60,289	63,263	509,172	162,740	4.02
1993/1994	130,744	475,923	56,973	58,861	507,337	129,438	3.64
1994/1995	135,199	559,615	68,911	66,126	538,490	153,348	4.14
1995/1996	135,057	516,714	65,702	70,422	532,059	133,283	3.83
1996/1997	141,490	592,887	64,846	65,572	559,129	166,315	4.19
1997/1998	136,252	574,146	63,206	63,347	573,125	167,195	4.21
1998/1999	138,951	605,811	66,531	66,938	581,228	191,371	4.36
1999/2000	138,836	608,089	70,864	75,541	600,379	194,404	4.38
2000/2001	137,118	591,657	74,899	76,722	608,999	175,239	4.32
2001/2002	137,093	601,783	71,482	74,579	622,443	151,482	4.39
2002/2003	137,731	603,882	75,720	76,746	627,485	126,853	4.39
2003/2004	141,630	627,652	76,889	77,135	649,642	104,617	4.43
2004/2005	145,391	717,141	76,047	77,659	689,038	131,108	4.93
2005/2006	145,448	701,015	80,204	80,904	707,781	123,642	4.82
2006/2007	150,506	716,462	90,217	93,905	727,533	108,883	4.76
2007/2008	160,278	795,528	98,290	98,554	776,286	127,861	4.96
2008/2009	158,749	800,056	82,519	84,174	782,782	143,480	5.04
2009/2010	158,402	825,234	89,958	96,644	821,124	140,904	5.21
2010/2011	164,642	835,750	92,665	91,290	854,590	123,439	5.08
2011/2012	172,067	889,701	100,286	116,923	868,424	128,079	5.17
2012/2013	177,547	869,637	99,655	95,334	868,891	133,146	4.90
2013/2014	180,317	990,379	125,112	131,579	942,288	174,770	5.49
2014/2015	179,689	1,014,009	125,168	142,198	963,490	208,259	5.64
2015/2016 (추정치)	177,755	961,083	138,848	121,224	978,020	208,946	5.41
2016/2017 (전망치)	181,176	1,039,727	135,990	147,678	1,014,739	222,246	5.74

□ 대두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51,991	97,006	27,325	26,061	92,635	23,575	1.87
1986/1987	51,577	98,049	29,071	28,552	102,119	20,024	1.90
1987/1988	54,062	103,654	28,143	30,114	101,095	20,612	1.92
1988/1989	55,659	95,857	23,901	23,558	97,620	19,192	1.72
1989/1990	58,355	107,192	26,562	27,275	104,154	21,517	1.84
1990/1991	54,419	104,290	25,546	25,392	104,625	21,347	1.92
1991/1992	54,944	107,297	28,220	28,098	109,293	19,391	1.95
1992/1993	56,595	117,206	30,047	29,296	115,900	21,448	2.07
1993/1994	60,258	117,582	28,178	27,729	120,823	18,656	1.95
1994/1995	62,150	137,646	32,762	31,982	132,407	24,675	2.22
1995/1996	61,063	124,699	32,462	31,643	131,699	18,494	2.04
1996/1997	62,431	131,943	35,631	36,764	134,013	15,291	2.11
1997/1998	68,528	157,950	38,164	39,314	145,100	26,991	2.31
1998/1999	71,299	159,827	38,550	37,928	158,702	28,738	2.24
1999/2000	71,876	160,307	45,522	45,634	159,309	29,624	2.23
2000/2001	75,590	175,819	53,089	53,817	171,552	33,163	2.33
2001/2002	79,605	184,896	54,357	53,012	184,252	35,152	2.32
2002/2003	81,618	196,918	62,885	61,321	191,071	42,563	2.41
2003/2004	88,583	186,758	54,037	56,046	188,899	38,413	2.11
2004/2005	93,350	215,862	63,561	64,754	204,404	48,678	2.31
2005/2006	93,019	221,197	64,100	63,851	215,950	54,174	2.38
2006/2007	94,773	235,703	69,046	71,137	224,634	63,152	2.49
2007/2008	90,930	218,966	78,682	78,320	229,861	52,619	2.41
2008/2009	96,440	212,036	77,903	77,212	222,331	43,015	2.20
2009/2010	102,562	260,484	87,502	91,440	239,237	60,324	2.54
2010/2011	103,365	264,289	89,786	91,705	252,638	70,056	2.56
2011/2012	102,969	240,559	94,552	92,186	260,102	52,879	2.34
2012/2013	109,908	268,532	97,192	100,802	262,616	55,185	2.44
2013/2014	112,387	282,463	113,069	112,677	276,139	61,901	2.51
2014/2015	118,311	319,780	124,364	126,218	301,213	78,614	2.70
2015/2016 (추정치)	120,044	313,313	132,988	131,953	315,738	77,224	2.61
2016/2017 (전망치)	121,826	338,004	136,964	139,252	330,091	82,849	2.77

국가별 쌀 통계

□ 한국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1,237	5,626	0	0	5,807	1,251	4.55
1986/1987	1,236	5,607	0	0	5,700	1,158	4.54
1987/1988	1,262	5,493	1	0	5,506	1,146	4.35
1988/1989	1,260	6,053	2	0	5,591	1,610	4.80
1989/1990	1,257	5,898	11	1	5,468	2,050	4.69
1990/1991	1,244	5,606	2	17	5,490	2,151	4.51
1991/1992	1,209	5,385	1	2	5,526	2,009	4.45
1992/1993	1,157	5,331	1	2	5,500	1,839	4.61
1993/1994	1,136	4,750	0	0	5,424	1,165	4.18
1994/1995	1,102	5,060	1	151	5,406	669	4.59
1995/1996	1,056	4,694	115	0	5,230	248	4.45
1996/1997	1,050	5,323	0	0	5,070	501	5.07
1997/1998	1,052	5,450	77	0	5,216	812	5.18
1998/1999	1,059	5,100	99	0	5,280	731	4.82
1999/2000	1,066	5,263	101	0	5,114	981	4.94
2000/2001	1,072	5,291	95	0	5,152	1,215	4.94
2001/2002	1,083	5,515	117	126	5,155	1,566	5.09
2002/2003	1,053	4,927	133	568	5,134	924	4.68
2003/2004	1,016	4,451	193	211	4,512	845	4.38
2004/2005	1,001	5,000	192	269	4,951	817	5.00
2005/2006	980	4,768	217	221	4,766	815	4.87
2006/2007	955	4,680	255	161	4,887	702	4.90
2007/2008	950	4,408	254	0	4,670	694	4.64
2008/2009	936	4,843	256	3	4,789	1,001	5.17
2009/2010	924	4,916	306	9	4,701	1,513	5.32
2010/2011	892	4,295	405	4	5,175	1,034	4.82
2011/2012	854	4,224	380	3	4,880	755	4.95
2012/2013	849	4,006	510	2	4,489	780	4.72
2013/2014	833	4,230	313	2	4,422	899	5.08
2014/2015	816	4,241	465	2	4,197	1,406	5.20
2015/2016 (추정치)	799	4,327	340	2	4,374	1,697	5.42
2016/2017 (전망치)	779	4,200	410	2	4,484	1,821	5.39

□ 일본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2,342	10,612	20	0	10,150	1,110	4.53
1986/1987	2,303	10,599	18	0	9,707	2,020	4.60
1987/1988	2,146	9,671	16	0	9,805	1,902	4.51
1988/1989	2,100	9,041	16	0	9,619	1,340	4.31
1989/1990	2,097	9,416	18	0	9,782	992	4.49
1990/1991	2,074	9,554	17	0	9,580	983	4.61
1991/1992	2,049	8,740	18	0	9,504	237	4.27
1992/1993	2,106	9,621	18	0	9,667	209	4.57
1993/1994	2,139	7,129	2,623	0	9,943	18	3.33
1994/1995	2,212	10,903	9	410	9,109	1,411	4.93
1995/1996	2,118	9,781	451	0	8,968	2,675	4.62
1996/1997	1,977	9,413	500	30	9,000	3,558	4.76
1997/1998	1,953	9,123	499	574	9,093	3,513	4.67
1998/1999	1,801	8,154	554	210	9,290	2,721	4.53
1999/2000	1,788	8,350	639	200	9,426	2,084	4.67
2000/2001	1,770	8,636	679	481	8,297	2,621	4.88
2001/2002	1,706	8,242	655	245	8,551	2,722	4.83
2002/2003	1,688	8,089	625	200	8,718	2,518	4.79
2003/2004	1,665	7,091	700	230	8,301	1,778	4.26
2004/2005	1,701	7,944	775	177	8,302	2,018	4.67
2005/2006	1,706	8,257	669	138	8,298	2,508	4.84
2006/2007	1,688	7,786	647	89	8,323	2,529	4.61
2007/2008	1,673	7,930	582	146	8,250	2,645	4.74
2008/2009	1,629	8,036	656	189	8,287	2,861	4.93
2009/2010	1,628	7,733	667	163	8,282	2,816	4.75
2010/2011	1,643	7,781	699	88	8,311	2,897	4.74
2011/2012	1,610	7,792	639	217	8,376	2,735	4.84
2012/2013	1,616	7,907	689	123	8,351	2,857	4.89
2013/2014	1,621	7,931	656	57	8,380	3,007	4.89
2014/2015	1,608	7,849	635	70	8,600	2,821	4.88
2015/2016 (추정치)	1,586	7,670	700	80	8,500	2,611	4.84
2016/2017 (전망치)	1,570	7,790	700	85	8,500	2,516	4.96

□ 중국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32,070	117,999	352	957	111,894	68,000	5.26
1986/1987	32,266	120,557	429	1,301	112,685	75,000	5.34
1987/1988	32,139	121,716	421	698	115,939	80,500	5.41
1988/1989	31,914	118,377	1,043	315	118,605	81,000	5.30
1989/1990	32,700	126,091	57	326	120,822	86,000	5.51
1990/1991	33,064	132,532	68	689	123,911	94,000	5.73
1991/1992	32,590	128,667	93	933	126,827	95,000	5.64
1992/1993	32,090	130,354	212	1,431	128,135	96,000	5.80
1993/1994	30,360	124,390	968	1,518	129,340	90,500	5.85
1994/1995	30,171	123,151	1,998	32	130,117	85,500	5.83
1995/1996	30,745	129,650	852	265	131,237	84,500	6.02
1996/1997	31,406	136,570	322	938	131,954	88,500	6.21
1997/1998	31,765	140,490	261	3,734	132,700	92,817	6.32
1998/1999	31,214	139,100	178	2,708	134,100	95,287	6.37
1999/2000	31,284	138,936	278	2,951	134,200	97,350	6.34
2000/2001	29,962	131,536	270	1,847	134,300	93,009	6.27
2001/2002	28,812	124,306	304	1,963	136,500	79,156	6.16
2002/2003	28,200	122,180	258	2,583	135,700	63,311	6.19
2003/2004	26,508	112,462	1,122	880	132,100	43,915	6.06
2004/2005	28,379	125,363	609	656	130,300	38,931	6.31
2005/2006	28,847	126,414	654	1,216	128,000	36,783	6.26
2006/2007	28,938	127,200	472	1,340	127,200	35,915	6.28
2007/2008	28,919	130,224	445	1,372	127,450	37,762	6.43
2008/2009	29,240	134,330	201	747	133,000	38,546	6.56
2009/2010	29,627	136,570	388	650	134,320	40,534	6.59
2010/2011	29,873	137,000	540	500	135,000	42,574	6.55
2011/2012	30,057	140,700	1,790	441	139,600	45,023	6.69
2012/2013	30,137	143,000	3,150	341	141,000	49,832	6.78
2013/2014	30,312	142,530	4,000	260	143,000	53,102	6.72
2014/2015	30,310	144,560	4,700	426	144,500	57,436	6.81
2015/2016 (추정치)	30,210	145,770	4,800	271	144,000	63,735	6.89
2016/2017 (전망치)	30,160	144,850	5,000	275	144,000	69,310	6.86

□ 미국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1,008	4,332	70	1,885	2,078	2,482	4.30
1986/1987	955	4,307	83	2,719	2,493	1,660	4.51
1987/1988	944	4,109	95	2,289	2,580	995	4.35
1988/1989	1,174	5,186	121	2,786	2,649	867	4.42
1989/1990	1,087	5,087	139	2,537	2,690	866	4.68
1990/1991	1,142	5,098	151	2,331	2,981	803	4.46
1991/1992	1,125	5,096	169	2,128	3,064	876	4.53
1992/1993	1,267	5,704	195	2,515	3,008	1,252	4.50
1993/1994	1,146	5,053	220	2,544	3,141	840	4.41
1994/1995	1,342	6,384	256	3,286	3,173	1,021	4.76
1995/1996	1,252	5,628	245	2,694	3,390	810	4.50
1996/1997	1,135	5,453	334	2,488	3,243	866	4.80
1997/1998	1,256	5,750	294	2,755	3,278	877	4.58
1998/1999	1,318	5,798	336	2,730	3,587	694	4.40
1999/2000	1,421	6,502	321	2,804	3,846	867	4.58
2000/2001	1,230	5,941	345	2,590	3,676	887	4.83
2001/2002	1,341	6,714	419	2,954	3,850	1,216	5.01
2002/2003	1,298	6,536	471	3,860	3,534	829	5.04
2003/2004	1,213	6,420	478	3,310	3,656	761	5.29
2004/2005	1,346	7,462	419	3,496	3,935	1,211	5.54
2005/2006	1,361	7,101	544	3,660	3,826	1,370	5.22
2006/2007	1,142	6,267	653	2,923	4,101	1,266	5.49
2007/2008	1,112	6,288	759	3,336	4,042	935	5.65
2008/2009	1,204	6,546	610	3,032	4,082	977	5.44
2009/2010	1,256	7,133	604	3,516	4,014	1,184	5.68
2010/2011	1,463	7,593	582	3,516	4,329	1,514	5.19
2011/2012	1,059	5,866	615	3,200	3,492	1,303	5.54
2012/2013	1,084	6,348	669	3,385	3,779	1,156	5.86
2013/2014	999	6,117	734	3,005	3,977	1,025	6.12
2014/2015	1,187	7,106	783	3,061	4,301	1,552	5.99
2015/2016 (추정치)	1,042	6,107	766	3,421	3,529	1,475	5.86
2016/2017 (전망치)	1,268	7,454	746	3,556	4,222	1,897	5.88

□ 인도네시아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9,896	27,014	24	212	26,738	4,563	4.01
1986/1987	9,800	26,051	131	150	27,392	3,203	3.91
1987/1988	9,800	27,089	50	0	28,053	2,289	4.25
1988/1989	10,530	29,072	384	104	28,723	2,918	4.25
1989/1990	10,502	29,366	77	0	29,410	2,951	4.30
1990/1991	10,282	29,042	192	0	30,121	2,064	4.35
1991/1992	11,103	31,350	539	0	30,838	3,115	4.34
1992/1993	11,012	31,318	22	472	31,375	2,608	4.38
1993/1994	10,735	30,315	1,120	222	32,097	1,724	4.34
1994/1995	11,439	32,333	3,081	0	32,922	4,216	4.35
1995/1996	11,570	33,215	1,081	0	33,461	5,051	4.42
1996/1997	11,137	32,084	839	0	33,911	4,063	4.43
1997/1998	11,730	31,118	5,765	0	34,667	6,279	4.20
1998/1999	11,963	32,147	3,729	0	35,033	7,122	4.25
1999/2000	11,790	32,800	1,500	0	35,400	6,022	4.40
2000/2001	11,600	32,960	1,500	0	35,877	4,605	4.44
2001/2002	11,600	32,960	3,500	0	36,382	4,683	4.41
2002/2003	11,500	33,411	2,750	0	36,500	4,344	4.50
2003/2004	11,900	35,024	650	0	36,000	4,018	4.56
2004/2005	11,650	34,830	500	50	35,850	3,448	4.64
2005/2006	11,800	34,959	539	0	35,739	3,207	4.59
2006/2007	11,900	35,300	2,000	0	35,900	4,607	4.60
2007/2008	11,900	37,000	350	0	36,350	5,607	4.82
2008/2009	12,170	38,310	250	10	37,100	7,057	4.88
2009/2010	12,100	36,370	1,150	0	38,000	6,577	4.73
2010/2011	12,075	35,500	3,098	0	38,044	7,131	4.67
2011/2012	12,160	36,500	1,960	0	38,188	7,403	4.73
2012/2013	12,190	36,550	650	0	38,127	6,476	4.72
2013/2014	12,100	36,300	1,225	0	38,500	5,501	4.72
2014/2015	11,830	35,560	1,350	0	38,300	4,111	4.73
2015/2016 (추정치)	12,100	36,200	1,100	0	37,900	3,511	4.71
2016/2017 (전망치)	12,160	36,600	1,250	0	37,700	3,661	4.74

□ 태국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564	2,000	5	81	1,915	1,031	3.55
1986/1987	532	1,815	5	178	1,769	904	3.41
1987/1988	501	1,748	4	189	1,710	757	3.49
1988/1989	471	1,697	4	104	1,619	735	3.60
1989/1990	475	1,716	2	68	1,585	800	3.61
1990/1991	454	1,662	4	79	1,600	787	3.66
1991/1992	429	1,673	4	229	1,645	590	3.90
1992/1993	397	1,498	3	188	1,500	403	3.77
1993/1994	403	1,636	4	102	1,475	466	4.06
1994/1995	366	1,511	3	185	1,450	345	4.13
1995/1996	363	1,517	5	279	1,375	213	4.18
1996/1997	348	1,420	5	117	1,325	196	4.08
1997/1998	364	1,463	4	74	1,325	264	4.02
1998/1999	358	1,311	3	55	1,325	198	3.66
1999/2000	353	1,349	5	113	1,315	124	3.82
2000/2001	340	1,342	3	120	1,199	150	3.95
2001/2002	338	1,245	23	156	1,150	112	3.68
2002/2003	307	1,271	106	94	1,150	245	4.14
2003/2004	272	1,164	135	90	1,150	304	4.28
2004/2005	237	1,011	158	99	1,125	249	4.27
2005/2006	269	1,033	65	26	985	336	3.84
2006/2007	263	1,100	101	20	1,223	294	4.18
2007/2008	260	955	100	34	1,043	272	3.67
2008/2009	252	1,025	86	1	1,151	231	4.07
2009/2010	255	1,111	146	1	1,129	358	4.36
2010/2011	244	1,021	106	11	1,104	370	4.18
2011/2012	254	1,172	125	13	1,280	374	4.61
2012/2013	261	1,190	110	11	1,300	363	4.56
2013/2014	270	1,110	104	19	1,270	288	4.11
2014/2015	251	1,136	122	75	1,215	256	4.53
2015/2016 (추정치)	260	1,144	126	90	1,200	236	4.40
2016/2017 (전망치)	260	1,144	126	20	1,230	256	4.40

□ 베트남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5,825	10,371	482	125	10,728	0	1.78
1986/1987	5,679	9,688	150	153	9,685	0	1.71
1987/1988	5,732	11,502	11	97	11,416	0	2.01
1988/1989	5,982	12,044	2	1,383	10,663	0	2.01
1989/1990	6,053	12,771	0	1,670	11,101	0	2.11
1990/1991	6,278	12,393	0	1,048	11,345	0	1.97
1991/1992	6,490	14,638	0	1,914	12,724	0	2.26
1992/1993	6,623	14,641	0	1,592	13,049	0	2.21
1993/1994	6,643	16,049	0	2,264	13,785	0	2.42
1994/1995	6,803	16,246	10	2,314	13,942	0	2.39
1995/1996	7,124	17,683	1	3,040	14,394	250	2.48
1996/1997	7,040	18,003	1	3,327	14,477	450	2.56
1997/1998	7,377	19,094	0	3,776	15,000	768	2.59
1998/1999	7,575	20,108	60	4,555	15,500	881	2.65
1999/2000	7,660	20,926	40	3,370	17,552	925	2.73
2000/2001	7,493	20,473	40	3,528	16,932	978	2.73
2001/2002	7,471	21,036	40	3,245	17,966	843	2.82
2002/2003	7,463	21,527	40	3,795	17,447	1,168	2.88
2003/2004	7,468	22,082	300	4,295	18,230	1,025	2.96
2004/2005	7,450	22,716	320	5,174	17,595	1,292	3.05
2005/2006	7,314	22,772	350	4,705	18,392	1,317	3.11
2006/2007	7,203	22,922	450	4,522	18,775	1,392	3.18
2007/2008	7,412	24,375	300	4,649	19,400	2,018	3.29
2008/2009	7,334	24,393	500	5,950	19,000	1,961	3.33
2009/2010	7,415	24,993	400	6,734	19,150	1,470	3.37
2010/2011	7,607	26,371	500	7,000	19,400	1,941	3.47
2011/2012	7,740	27,152	100	7,717	19,650	1,826	3.51
2012/2013	7,864	27,537	100	6,700	21,600	1,163	3.50
2013/2014	7,788	28,161	300	6,325	22,000	1,299	3.62
2014/2015	7,823	28,166	400	6,606	22,000	1,259	3.60
2015/2016 (추정치)	7,674	27,458	300	5,400	22,000	1,617	3.58
2016/2017 (전망치)	7,690	27,800	300	5,800	22,200	1,717	3.62

□ 필리핀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3,403	5,913	329	0	5,844	1,352	1.74
1986/1987	3,402	5,831	0	110	5,745	1,328	1.71
1987/1988	3,280	5,642	25	0	5,765	1,230	1.72
1988/1989	3,485	5,996	195	16	6,305	1,100	1.72
1989/1990	3,445	5,785	575	0	6,260	1,200	1.68
1990/1991	3,433	6,425	350	0	6,154	1,821	1.87
1991/1992	3,288	5,936	0	0	6,263	1,494	1.81
1992/1993	3,237	6,190	0	0	6,350	1,334	1.91
1993/1994	3,445	6,450	215	0	6,725	1,274	1.87
1994/1995	3,668	6,809	0	0	7,142	941	1.86
1995/1996	3,924	7,263	975	0	7,509	1,670	1.85
1996/1997	3,909	7,265	682	0	8,027	1,590	1.86
1997/1998	3,501	6,488	1,288	0	7,800	1,566	1.85
1998/1999	3,630	6,674	1,725	0	8,000	1,965	1.84
1999/2000	3,995	7,772	665	0	8,400	2,002	1.95
2000/2001	4,030	8,135	1,410	0	8,750	2,797	2.02
2001/2002	4,080	8,450	1,200	0	9,040	3,407	2.07
2002/2003	4,100	8,450	1,500	0	9,550	3,807	2.06
2003/2004	4,094	9,200	1,290	0	10,250	4,047	2.25
2004/2005	4,100	9,425	1,500	0	10,400	4,572	2.30
2005/2006	4,163	9,821	1,622	0	10,722	5,293	2.36
2006/2007	4,194	9,775	1,800	0	12,000	4,868	2.33
2007/2008	4,346	10,479	2,570	0	13,499	4,418	2.41
2008/2009	4,528	10,755	2,600	0	13,100	4,673	2.38
2009/2010	4,405	9,772	2,200	0	13,125	3,520	2.22
2010/2011	4,528	10,539	1,300	0	12,900	2,459	2.33
2011/2012	4,579	10,710	1,200	0	12,860	1,509	2.34
2012/2013	4,698	11,428	1,400	0	12,850	1,487	2.43
2013/2014	4,800	11,858	1,200	0	12,850	1,695	2.47
2014/2015	4,705	11,915	1,800	0	13,200	2,210	2.53
2015/2016 (추정치)	4,615	11,350	1,600	0	13,100	2,060	2.46
2016/2017 (전망치)	4,750	11,500	1,300	0	13,100	1,760	2.42

□ 파키스탄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1,863	2,919	0	1,297	1,857	580	1.57
1986/1987	2,066	3,486	0	1,300	2,050	716	1.69
1987/1988	1,963	3,241	0	999	2,139	819	1.65
1988/1989	2,042	3,200	0	792	2,100	1,127	1.57
1989/1990	2,107	3,220	0	749	2,250	1,348	1.53
1990/1991	2,114	3,265	0	1,274	2,100	1,239	1.54
1991/1992	2,097	3,243	0	1,419	2,150	913	1.55
1992/1993	1,974	3,116	0	918	2,250	861	1.58
1993/1994	2,188	3,995	0	1,232	2,300	1,324	1.83
1994/1995	2,125	3,447	0	1,660	2,400	711	1.62
1995/1996	2,162	3,967	0	1,632	2,531	515	1.83
1996/1997	2,252	4,307	0	1,834	2,550	438	1.91
1997/1998	2,316	4,333	0	2,099	2,550	122	1.87
1998/1999	2,424	4,674	0	1,837	2,575	384	1.93
1999/2000	2,515	5,156	0	2,104	2,600	836	2.05
2000/2001	2,376	4,802	0	2,429	2,615	594	2.02
2001/2002	2,115	3,882	0	1,628	2,540	308	1.84
2002/2003	2,225	4,479	0	1,992	2,545	250	2.01
2003/2004	2,461	4,848	0	1,868	2,595	635	1.97
2004/2005	2,520	5,025	0	2,801	2,550	309	1.99
2005/2006	2,620	5,547	0	3,664	1,896	296	2.12
2006/2007	2,581	5,438	0	2,839	2,195	700	2.11
2007/2008	2,515	5,563	0	2,982	2,718	563	2.21
2008/2009	2,963	6,952	0	2,910	3,390	1,215	2.35
2009/2010	2,883	6,883	16	4,000	2,914	1,200	2.39
2010/2011	2,365	4,823	32	3,385	2,447	223	2.04
2011/2012	2,571	6,160	54	3,456	2,481	500	2.40
2012/2013	2,309	5,536	45	3,578	2,203	300	2.40
2013/2014	2,789	6,798	31	3,950	2,500	679	2.44
2014/2015	2,850	6,900	30	3,800	2,600	1,209	2.42
2015/2016 (추정치)	2,740	6,700	10	4,200	2,800	919	2.45
2016/2017 (전망치)	2,800	6,900	10	4,200	2,800	829	2.46

□ 인도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41,137	63,825	5	250	62,080	9,000	2.33
1986/1987	40,774	60,416	5	350	60,071	9,000	2.22
1987/1988	38,806	56,862	650	200	59,312	7,000	2.20
1988/1989	41,736	70,489	650	450	65,689	12,000	2.53
1989/1990	42,167	73,573	50	500	71,123	14,000	2.62
1990/1991	42,687	74,291	0	700	73,091	14,500	2.61
1991/1992	42,650	74,680	15	600	74,595	14,000	2.63
1992/1993	41,775	72,868	55	650	75,273	11,000	2.62
1993/1994	42,034	80,300	0	750	76,050	14,500	2.87
1994/1995	42,500	81,810	0	4,150	77,660	14,500	2.89
1995/1996	42,300	76,980	0	3,700	76,280	11,500	2.73
1996/1997	43,433	80,736	0	2,100	80,636	9,500	2.79
1997/1998	43,447	82,545	12	4,000	77,557	10,500	2.85
1998/1999	44,802	86,077	4	3,350	81,231	12,000	2.88
1999/2000	45,162	89,683	86	1,400	82,669	17,700	2.98
2000/2001	44,712	84,977	0	1,685	75,992	25,000	2.85
2001/2002	44,904	93,334	0	6,300	87,534	24,500	3.12
2002/2003	41,176	71,814	0	5,440	79,874	11,000	2.62
2003/2004	42,593	88,522	0	3,100	85,622	10,800	3.12
2004/2005	41,907	83,127	0	4,569	80,858	8,500	2.98
2005/2006	43,660	91,785	6	4,688	85,083	10,520	3.15
2006/2007	43,814	93,345	0	5,740	86,695	11,430	3.20
2007/2008	43,914	96,682	0	4,654	90,458	13,000	3.30
2008/2009	45,537	99,172	0	2,090	91,082	19,000	3.27
2009/2010	41,918	89,083	0	2,082	85,501	20,500	3.19
2010/2011	42,862	95,970	0	2,774	90,196	23,500	3.36
2011/2012	44,006	105,301	0	10,376	93,325	25,100	3.59
2012/2013	42,754	105,241	0	10,869	93,972	25,500	3.69
2013/2014	44,136	106,646	0	10,619	98,727	22,800	3.63
2014/2015	44,110	105,482	0	12,238	98,244	17,800	3.59
2015/2016 (추정치)	43,479	104,320	0	10,240	93,480	18,400	3.60
2016/2017 (전망치)	44,500	106,500	0	10,000	97,000	17,900	3.59

□ 이집트

연도	재배면적 (천 ha)	생산량 (천 톤)	수입량 (천 톤)	수출량 (천 톤)	소비량 (천 톤)	기말재고량 (천 톤)	단수 (톤/ha)
1985/1986	389	1,549	61	92	1,518	0	5.94
1986/1987	459	1,830	11	105	1,736	0	5.95
1987/1988	423	1,562	15	108	1,469	0	5.51
1988/1989	352	1,427	1	32	1,396	0	6.05
1989/1990	352	1,427	3	85	1,345	0	6.05
1990/1991	435	2,122	0	159	1,813	150	7.28
1991/1992	462	2,313	0	209	2,054	200	7.46
1992/1993	510	2,427	0	135	2,289	203	7.66
1993/1994	538	2,540	3	268	2,375	103	7.80
1994/1995	575	2,830	2	163	2,492	280	7.94
1995/1996	560	2,600	1	338	2,443	100	7.86
1996/1997	591	2,989	0	201	2,619	269	8.29
1997/1998	630	3,510	16	426	2,769	600	8.57
1998/1999	504	2,645	46	320	2,771	200	8.33
1999/2000	654	3,787	35	500	2,891	631	8.91
2000/2001	655	3,965	11	705	3,015	887	9.31
2001/2002	563	3,575	0	468	3,100	894	9.77
2002/2003	588	3,705	50	579	3,200	870	9.69
2003/2004	615	3,900	0	826	3,225	719	9.76
2004/2005	645	4,128	0	1,095	3,250	502	9.85
2005/2006	669	4,135	28	979	3,320	366	9.51
2006/2007	669	4,653	100	1,203	3,540	376	10.08
2007/2008	670	4,655	20	750	3,610	691	10.07
2008/2009	672	4,673	20	550	4,270	564	10.08
2009/2010	670	4,564	15	705	3,940	498	9.87
2010/2011	450	3,100	24	200	3,300	122	9.98
2011/2012	700	4,250	335	600	3,620	487	8.80
2012/2013	770	4,675	15	700	4,050	427	8.80
2013/2014	770	4,750	33	600	4,000	610	8.94
2014/2015	650	4,530	34	250	4,000	924	10.10
2015/2016 (추정치)	650	4,000	100	200	3,900	924	8.92
2016/2017 (전망치)	750	4,554	300	300	4,000	1,478	8.80

☎ 12-2017-01 **해외곡물시장 동향** 2017 제 6권 제1호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17년 1월 6일

발 행 2017년 1월 6일

발행인 김창길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팩시밀리 061-820-2211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61-332-7120 팩시밀리 061-333-2247

E-mail: dongyt@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